교육개발

1997 5
통권 107 호

특집
부권 회복과 가정교육

권두칼럼
어떻게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키나?/송자

시론
변해야 하는 것 두가지, 평등화 교육과 대학교육/이상희
새로운 여성교육의 지향점/이계경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으로부터/변영계

테마대담 초등학생 영어과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

교육정보자료실 홍보출판운영팀
TEL (02) 3460-0233,0234, FAX (02) 577-5117
E-mail: keditor@ns.kedi.re.kr

화제의 사진

최신 북한 교과서

위의 사진은 북한이 발행한 70년대 교과서(위의 두권)와 최근에 입수한 90년대 교과서(아래 두권)이다. 「공산주의 도덕」(1995년)과 「조선력사」(1994년)는 과거의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용지와 인쇄 상태, 표지의 컬러 등 모든 면에서 조악하기 짝이 없는데, 이는 점점 더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관련기사 PP. 73~75. '북한 교육의 위기와 우리의 과제' 참고)

* 자료제공 : 본원 통일교육연구팀
* 자료해설 : 정경아
* 사진촬영 : 정태호

교육개발

1997. 5

교육개발 1997. 5/통권 107호/1975년 8월 25일 등록
등록번호 마-574/1997년 4월 25일 발행/격월간
발행인 · 이돈희/발행처 ·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우편번호 137-791
전화 3460-0233, 0234/인쇄처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인/이돈희
· 출판심의위원장/박경숙
출판심의위원/김명숙, 김영준, 김혜숙,
구자억, 남미영, 신익현,
이종태, 최상근
· 홍보출판운영팀장/심웅기
· 기자/정경아, 정태호

화제의 사진
최신 북한 교과서 ……1

권두칼럼
어떻게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키나?/**송자** ……4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25
한국 음악 교육의 뿌리(Ⅱ)/**노동은** ……6

시론
- 변해야 하는 것 두가지, 평등화 교육과 대학교육/**이상희** ……10
- 새로운 여성교육의 지향점/**이계경**……14
-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으로부터/**변영계** ……18

스승의 한마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정택희**……22

특별기획

부권 회복과 가정교육

-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이계학**……26
- 좋은 아버지/**문은희**……30
- 흥부가 기가 막혀? 아버지가 기가 막혀!/**박일용** ……34
- 내가 본 미국 아버지의 역할/**박금복**……37
- 아버지의 주변성과 가정교육/**안병철**……41
- 부권 상실의 문제와 그 회복 방안/**정채기** ……46

멀지만 가야할 길

방송수업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김정숙**……52

테마대담

초등학생 영어과외

정민표/백승호/김명신/이선영/이재희 ……56

뉴스 레이더

북한 교육의 위기와 우리의 과제/**한만길** ……73

보고서 중계

- 초등학교 수학과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CAI 프로그램 연구 개발/**황혜정** ……76
- 초등학교 교수·학습공간 재구성 방안/**박재윤** …80

연구동향

- 역할극을 통한 감성교육/**김영근** ……84
- 문해(文解)의 문화정치학/**한숭희** ……89
- 내생적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역할/**이남철** ……93

세계교육의 현주소

- 영국의 학교 수업/**문제풍** ……98
- 이스라엘의 영재교육/**조석희** ……104

KEDI 연구뉴스……110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110

학교 탐방 ……65

성남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를 찾아서/**이종태**

문화광장 ……70

인형극 이야기/**하혜자**

KEDI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 7…109

어떻게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키나?

송 자
(전 연세대 총장)

한 세기, 천년, 이 천년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든 나라나 사람들이 21세기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누가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더욱이 21세기는 무한경쟁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모두들 결론을 짓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21세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교육개혁'이라는 항목을 빠트린 것을 못 보게 된다. 어떠한 교육개혁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기본 방향도 다 같은 것 같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왔지, 따라가는 사람은 큰 역할을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을 길러 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 보게 된다. 이미 객관화된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늘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새것을 찾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착한 사람을 기르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는 교육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암시하여 주는 것이다. 더욱이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말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바로 이 말은 어려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일생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도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한다. 그러므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즉, 착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초등교육은 인성교육에, 고등교육은 지식교육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착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먼저고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그 다음이다. 이 순서가 잘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에만 교육열이 불 타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열을 가지고는 우리의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없다.

어린이들은 들은 것은 5%를, 읽은 것은 10%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직접 해 보면 80%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초등교육이 생활 위주의 교육으로 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지금까지처럼 암기하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물론 암기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 입학시키는 것을 행복의 극치로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교육이라는 것이 온통 대학 입학 시험에 매달리게 된다. 점수를 한 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다 보니 사람이 되는 교육을 받을 시간은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나?

21세기의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 창출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대학을 가지겠다는 것을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도 21세기에 중국을 이끌어 갈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중점대학 10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대학이 가장 창조적인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다. 소위 자율권을 가진 대학이 가장 창조적인 대학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속시원한 자율권을 대학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물론 전과 비교하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과 비교하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대학의 자율권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나로 결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대학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제약 없이 결정지을 수 있을 때 대학은 자율권을 제대로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권의 행사 능력에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은 결정지어 지고 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서 자율권을 가졌는가, 아니면 자율권이 있어서 경쟁력을 가졌는가? 사람에 따라 답이 같지는 않겠지만 나는 자율권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믿는다. 기업을 보아도 규제가 없는 나라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 나라도 규제가 가장 많은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낮다. 그러므로 자율권을 과감하게 고등교육기관에 주고 책임도 지게 하므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나라에도 다양화된 대학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 그동안 획일화 속에서 경색되어 온 대학이 생동감 넘치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하면 앞으로는 컴퓨터가 교수들의 일을 대신할 것이다. 또 자유롭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 창조적인 것이 나올 수 없다. 의무교육까지도 민영화하자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국·공립과 사립을 구별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 주어 스스로 경쟁을 하게 하자.

우리의 교육이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교육이 앞으로 우리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자신있게 대답을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식의 전달과 지시에 순응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 교육은 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며, 새로운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의 순서도 지켜 시민사회에서 시민 의식을 철저하게 발휘하는 시민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교육에는 기적이 없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끈질지게, 길게, 앞을 보며 바꾸어 나가자.

"한국 음악 교육의 뿌리"(II)

노 동 은

<지난호에 이어서>

4. 조선시대 음악교육의 뿌리는 무엇인가?

조선시대의 장악원같은 중앙과 지방의 국가 음악기관 자체가 음악 제도교육의 산실이고, 또 이 시대의 악(樂)은 모든 인식(진)·도덕(선)·예술(미)과 정치를 완성하는 사상으로 주도되었으므로 서당·향교·서원·성균관 등의 학교는 음악을 포함한 포괄적 인간교육 현장이었다. 사대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들은 악론(樂論)을 공부해야 했으며, 거문고와 비파 등의 악기를 인격 수양악기로 다루었다. 안으로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삼고, 밖으로 가정, 사회, 국가, 인류에게 공헌하는 인간·인류 교육을 완성하려는 음악교육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음악의 정의는 언제나 '혈맥'(血脈)이란 용어와 정치를 완성하는 내용이 빠져본 적이 없었다. 서양의 음악 정의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시콜콜하게 '작곡자의 사상과 감정을 음을 통하여 나타내는 시간적 예술의 하나'라거나 '조직화된 소리'(organized sound)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들은 인간과 사회 교육의 완성과 창의력 그리고 하나됨이 바로 음악(춤·시)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실제적 음악을 다루었다. 선비들의 사랑방, 정(산정, 계정, 강정, 모정, 수각 등), 당, 정원, 계곡 등은 열린 음악공간이었다.

조선후기에 사회기강이 느슨해지고 정치와 경제가 문란해지면서 실제적 악기다룸이 없이 악론을 암기해

버리는 음악현상이 번지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원인이 일차적으로 과거제도에 있음을 알고 이를 비판하며 과거제도 철폐까지 주장한 바 있다. 요즘 같으면 실제적인 음악시간이 국·영·수 위로시간으로 전락하는 현상의 원인이 입시제도와 고시에 있음을 알고 그 철폐를 주장했다는 말이다. 오늘날 세계화라는 화두 속에 영·수·과학 교과가 부각되면서 음악 교과가 학교교육에서 밀려나는 추세이고 보면, 인간교육도 창의적인 과학교육도 죽어감을 웅변한다. 세계화가 독자적·독창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 지식·기술·태도의 창의력을 위해서도 조선시대 음악 교육의 뿌리를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음악교육의 뿌리가 사대부 중심으로만 전개된 것은 물론 아니다. 기층 민중들의 음악교육도 있었거니와, 또 기층민중 출신의 전문음악·춤 예술인들이 '종합예술학교'로 제도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핵심 교육기관은 신청(神廳, 또는 재인청)이었다.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것의 완성을 악(樂)에 두었으므로 중앙과 지방의 장악원과 군대(용호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과 지방 육군과 해군기관 등) 기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음악가와 춤꾼들을 이곳 신청기관이 배출,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무당과 무부들의 전국적인 조직체와 그 기관을 신청 또는 재인청이라 한다. 이들은 매일 신참들에게 '기(氣)넣자-구음 장단실기-성악·기악실기' 시간을 거쳐 모든 사람들의 애·경사 현장에 적용되는 음악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적일 수 있었다. 이들이 떠돌이 예인 집단이 되기도 하고, 광대·재인·정재 전문춤꾼 등으로 분화하기도 하였고, 장악원의 악공도 되었으며, 군영의 취고수나 세악수가 되어 한국 음악 역사를 주도하였다. 이 역사적 사실은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최초의 학교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1910년대 활동한 조선 정악전습소가 최초의 음악교육기관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한국역사에서 1885년 이전의 역사가 없을 때만이 그 수식어가 맞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전의 역사를 증발시킬 수 있을까?

5. 근대 음악 교육의 뿌리는?

1885년 선교사들에게 학교는 조선을 복음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하였다. 자연히, 음악교육에서 '찬미가'가 중심이었다. '창가'(唱歌)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창가라는 용어는 1900년대에 들어와 알려지기 시작했고, 1906년 보통학교령, 사범학교령, 고등학교령에 의하여 공식화된 용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866년 한국 가톨릭교회가 과학·인문·신학을 교육하는 일반학교도 설립하였고, 1882년에 종현성당 관내에 '인재붓재 글방'이란 교회학교, 1880년에 설립된 개항지 원산의 '원산학사', 1884년에 서울 한한학원(韓漢學院)의 설립 모두가 근대교육기관이었다. 1885년의 배재학당은 첫 교과목이 영어와 만국 역사였다.

1880년대부터 1906년 대한제국-통감부 제2차 학교령 시행기에 학부 칙령 제44호로 보통학교령과 보통학교령 시행규칙에서 '창가' 교과목을 두기 전까지 사립학교에서 음악 교과는 찬미가이었으며, 그 뿌리에서 점차 사립학교가 민족적·애국적·계몽적 성격의 온상지가 되었다. 이 전통은 일제 강점하에 항일 음악교육·국권회복 음악교육으로 사립학교와 국내외의 학교와 독립운동 현장에서 일관된 성격으로 발전하는 뿌리였다.

1881년 이은돌이 일본육군교도단 군악대로 유학하여 프랑스 악대 지도자 다그룡(G.C.Dagron)으로부터 코넷(Cornet)과 신호나팔과 악대교육을 지도받고, 1882년부터 신식군대인 친군영제 변통으로 나팔수를 부대에서 양성한 이래, 1899년 대한제국의 위용을 대내외로 천명하기 위한 군제개혁기에 이르면 중앙에 시

1891년의 이화학당

위대 군악대, 친위대 곡호대를 비롯한 전국의 곡호대에 이르는 군악대원 475명은 공식적인 군악교육을 제도교육으로 받았다. 이 결과에 따라 1901년 2월에 시위연대 군악대에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가 군악교사로 공식 초청되어 제2단계 악대 증강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일제 통감부에 의하여 군대가 해산되고 군악대가 양악대로 개편되다가 총독부에 의하여 해산되고, 이어서 경성악대라는 민간악대로 명맥을 이어가다 끝내 해체되었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군악대원 대부분이 사립학교 음악교사나 교원검정시험을 거쳐 공립학교의 음악교사로 진출하여 학교 기악교육을 뿌리내린 점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학부-통감부의 제1차 학교령시행기(1906~1909)에 관·공립학교에 '창가' 교과목을 두었다면, 그 교사교육과 교육기관은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시행하여 전국화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1907년에 동경에서 초청한 고이데(小出雷吉)에 의하여 관립 한성사범학교에서 '일본식 쇼오카(唱歌)'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그 교재는 물론 일본에서 나온 온갖 '쇼오카집'(唱歌集)이었다. 일본식 쇼오카란 '국악'(國樂)이란 용어에서 나왔다. 일본 전통음악에다 서양음악의 장점을 취한 새로운 일본 국민음악이 국악(國樂, National Music)이었다. 이 국악의 저학년 교과가 '쇼오카'(창가)이었으며, 고학년이 '온가쿠'(音樂) 교과이었다. 따라서, '국악, 창가, 음악' 세 용어는 일본 근대 음악용어이지 한국에서 역사화시킨 용어가 결코 아니었다. 일본에서 이 용어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메가타 타네타로오가 기막히게도 1904년부터 한국 재정고문으로 들어와 그 용어로서 제도개편을 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1910년에 학부 최초로 만들어낸 『보통교육창가집』은 가사만 한글이었지, 그 음향적 재료는 일본의 쇼오카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가사를 바꾼 노래들이었으며, 이것이 한국인들을 일본풍으로 젖게 한 직접적인 조건이었다. 일제 강점의 교육이 무서운 것도 이 때문이다.

'청산 속에 묻힌 옥고/갈아야만 광채나네~'라는 「학도가」를 지금도 불러 불라치면 가슴이 벅차고 애국 계몽사상에 불타는 학도들이 그려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노래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요나누키 장음계에다 4분의 2박자로 작곡한 오사카사범학교 음악교육이자 일본아악 음악가인 오오노 우메와카의 「철도창가」를 번역하여 『보통교육창가집』으로 학습한 결과이다. 역사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노래라고 주장하는 노래들은 얼마나 많은가!

또, 「안」(雁, 기러기)은 전형적인 일본의 민요음계에다 4분의 2박자로 이루어진 일본 전래동요인데, 그대로 번역하여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노래들을 통하여 일본의 민요음계에 의한 동요가 한국에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우야 여우야」랄지, 「쎄쎄쎄」랄지, 「똑똑똑 누구십니까」랄지, 「잔케풍」(잠깨봉) 등의 노래가 그러하다. 이들 노래가 한국에서 불리어지기 이전에 일본에서 에도(江戶)-메이지(明治)시대부터 술래놀이 노래로 불리어 졌었다. 『즐거운 생활』(2학년 1학기용)에 게재되어 가르치고 있는 「똑똑똑 누구십니까」라는 '줄넘기'는 소개한 대로 '한국 전래동요'인가? 아니다. 일본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불리어진 「톤톤톤 도나타?」라는 노래이자 가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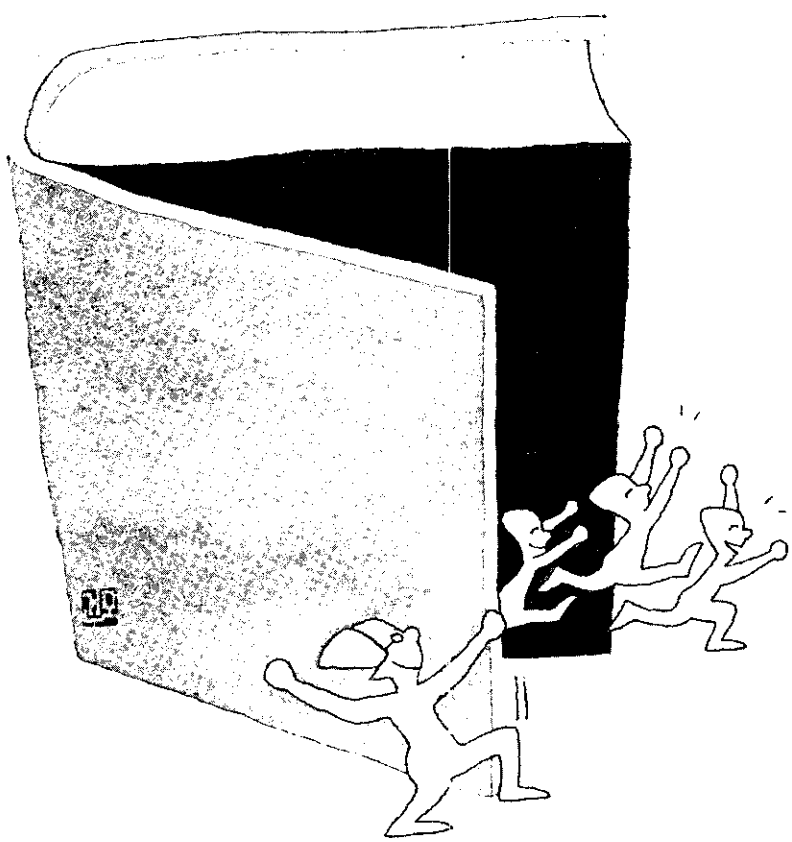
일제통감부 강점시대의 제1차 학교령 시행기(1906. 8~1909. 8)와 제2차 학교령 시행기(1909. 8~1911. 8), 일제 총독부 강점시대에 제1차 조선교육령시행기(1911. 8~1922. 2), 제2차(1922~1938. 3), 제3차(1938~1943. 4), 제4차(1943~1945. 8) 조선교육령 시기를 통하여 우리 음악교육은 굴절되고 왜곡되는 통한의 뿌리를 안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노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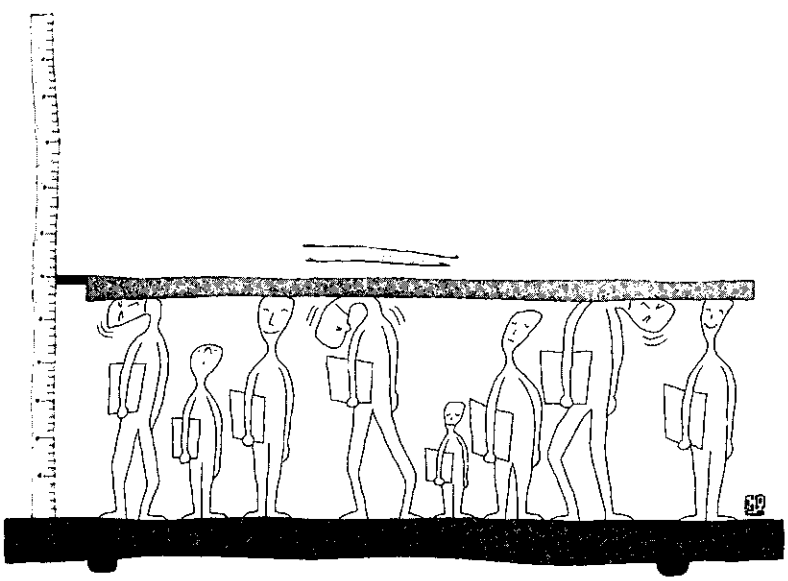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음대 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미학과 및 과기원에서 음악학 강의
-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초대학장 역임
- 현 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 「한국 근대 음악사」, 「노동은의 음악상자」 외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 • 목적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현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 두가지
-평등화 교육과 대학교육-

이 상 희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영재 교육

중국 송나라 때 가장 많은 신동을 배출한 고장으로 요주 땅을 꼽는다.

요주가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곳에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재능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다섯 살 된 아이들에게, 학문·예술·무예 등 각 아이가 가진 재능에 따라, 그 독특한 재능을 살려 집중적으로 가르친 때문이라 한다.

미국의 학자 루이스 타이먼은 천재아 4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IQ 140~150 정도의 사람들이 다빈치,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이 특정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농업사회가 단순한 직종을 가진 단순 구조의 사회였다면, 산업사회는 세분화, 전문화된 사회였고, 정보화 사회는 그 세분화, 전문화된 영역을 수많은 시스템으로 엮은 멀티미디어 사회다.

단순사회였던 농업사회에서는 많은 분야의 여러 영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산업사회에서는 각 분야에서의 영재가 필요

했고 그들이 주도해 사회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란 세분화, 전문화된 영재들이 이룩한 발전을 엮어 멀티미디어화, 시스템화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교도화된 영재가 필요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뇌 경쟁이 지나치게 가속화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제 경쟁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습득과 고부가 상품 개발에 뒤지지 않으려면, 이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어 이겨나가는 도리 밖에 없다. 멈추거나 포기하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밀려, 갖은 요구를 들어 주며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영재를 길러내야 한다. 그 방법으로 IQ 140이 넘는 몇몇 특별한 아이만을 특수하게 교육해 소수의 영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IQ 100 내외의 평범한 아이들을 그 소질과 관심에 맞게 능력을 개발해 다수의 뛰어난 영재를 키워야 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영재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집단을 훌륭하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도 영재고, 집단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도 영재며, 복잡 다단한 문제를 단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영재라는 것이다. 머리의 영민함만을 따지지 않고, 이에 사회적 능력과 이해력까지 추가했으니 영재의 폭이 한층 넓어진 셈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재능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IQ 100 정도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 평등화 교육보다는 개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 방법으로는 곤란하므로 먼저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 교육 환경의 혁신은 몇몇 학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컴퓨터 통신을 통한 학교교육으로 정보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을 키우고, 가상 현실을 통한 여러 가지 학습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며, 세계화 교육을 통해 시야를 넓혀 주어야 한다.

세계화는 분명 정보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보화의 미래도 과학기술이 발달한 여러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와 세계화는 짝을 이루면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멀티미디어화해가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는 교육의 틀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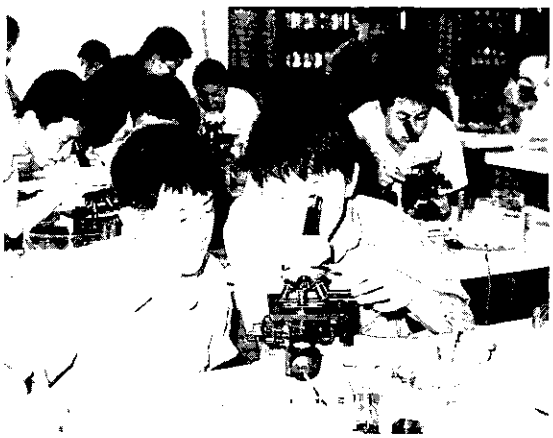
우선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평준화된 평등 교육으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학생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길러주고, 재능별 전문 지도교사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도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능별 전문 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하나씩 제도를 고치고 시설을 늘려 나가야 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착한 심성으로 올곧게 커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바른 시각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과학하는 자세, 정보를 읽고 활용할 줄 아는 자세, 세계 주민으로서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길러주고, 아울러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력과 융통성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일깨워주고 심어줘야 하겠다.

높은 지능지수를 가진 천재가 아닌, 보통의 지능지수를 가진 불특정 다수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기존의 고정된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여론을 의식해 쫓겨 다니고, 형식적인 개선작업



우리나라도 많은 영재를 길러내야 한다.
그 방법으로 IQ 140이 넘는
몇몇 특별한 아이만을 특수하게 교육해
소수의 영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IQ 100 내외의 평범한 아이들을 그 소질과 관심에 맞게
능력을 개발해 다수의 뛰어난 영재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앞으로 나올
무수한 한국의 영재들이 미래를 위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탈바꿈해야 되겠다.

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결국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의 개혁은 이루지 못하고, 영원히 '희망 사항'으로 미뤄둘 수밖에 없다. 과거나 현실의 문제해결에 집착해 그나마 가진 여력을 허비해 버린다면 IQ 100은 물론 IQ 170의 아이조차 바보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겠다.

영재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2세를 미래의 국가와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하는 인재로 키울 것인가 하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하겠고, 또 개인의 천재성을 존중하고 국민 모두가 이를 지원하는 문화적 풍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재는 사회와 동떨어져 고독해지거나 현실과 괴리된 이상한 생각을 가진 기형적 인간으로 자라고 만다. 신경정신과적으로 볼 때 천재는 보통의 인간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존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할 때에는 유용한 인재로 자라나 빛나는 업적을 쌓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그들의 천재성이 묵살될 경우에는 오히려 무능한 생활인이 되거나 협동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를 곧잘 보게 된다.

영재를 발굴하고, 그 재능을 계발하여 국력화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이다. 미래의 꿈나무를 잘 가꾸기 위한 국민적인 합의와 그 합의의 실천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 • 정보화 시대의 대학교육

미래사회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인간보다는, 다양한 지식을 종합해서 응용하고 재창조하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된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진행에 따른 필연적인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재를 배출해야 할 우리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그것은 시대 변화에 걸맞게,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중심의 창의성 교육으로 그 틀을 바꾸는 일이다.

우선 탄탄한 기초과학의 바탕이 있을 때 급변하

는 첨단과학의 응용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초과학 관련 과목의 비중을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할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외국어를 필수 기초과목으로 설정하여 창조하고 응용하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수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현재의 대학 강의실은 고등학교 수업의 연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른 분야, 다른 생각들이 모여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멀티미디어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 1인에 의한 강의 형태를 과감히 지양하고 학생들이 서로 팀을 이뤄 연구하고 창조하는 멀티미디어 교육 형태로 거듭나야 한다.

국경없는 정보경쟁의 시대인 미래사회에서는 대학과 정부, 사회의 기능 역시 따로일 수 없다. "학문은 대학에서, 정책은 정부에서, 돈벌이는 기업에서"라는 인식은 이제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산학협동도 그저 기업에서 준조세 형태로 대학 건물이나 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족한 실험·실습을 현장에서 직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주는 보다 적극적이고 시스템화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나는 10년 전부터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캠프를 열어오고 있다. 비록 1박 2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연수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세계의 현실과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워주자는 것이 캠프를 주관하는 나의 취지이다.

이 기간동안 나는 국내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바를 기탄없이 들려주고 그들의 생각을 듣는다. 이렇게 연수가 끝나면 소감문을 받아 읽어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요지의 감상을 적는다. 모르긴 해도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생 대부분의 감상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실이 경직된 학사운영, 빈약한 정보화 교육으로 수많은 '고등학교 7학년'에게 학사모를 씌워주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지나친 표현일까? 지금의 대학 형태를 고수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와 같은 창의적 인재는 영원히 나오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기우는 아니다.

학문의 상아탑이라지만 대학 역시 시장원리에 따라 개방되어,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대학도 앞으로 나올 무수한 한국의 영재들이 미래를 위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탈바꿈해야 되겠다.

밝고 희망적인 한국의 미래를 원한다면 밝고 희망적인 교육체제를 가져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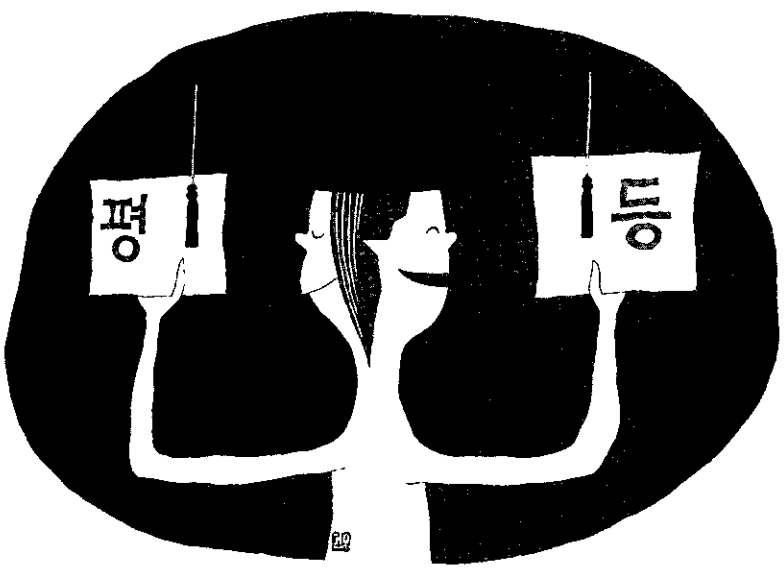
미래는 개성과 창의성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제 평등화 교육은 깨뜨리고 대학교육은 수준을 높여 나가자.

이상희

-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약학 박사)
- 미국 조지타운대학 Law School 수학
- 국회의원,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총재, 한국영재학회 회장
- 「IQ 100의 천재, IQ 150의 바보」(공저),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정보 인프라 구축과 21세기 비전」 외

새로운 여성교육의 지향점

이 계 경



7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 미래 희망을 물으면 '현모 양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요즈음은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구체적인 직업인을 말한다.

과거 여성들의 주된 역할이 어머니와 아내로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어머니나 아내 이외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누구의 아내, 어머니이기 이전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감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 삶 찾기'가 우선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교육의 목표를 전면 수정하게 만들었고 여성의 자아실현에 의한 '여성의 인간화' 작업이 주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70년대 말 대두되기 시작한 여성학은 남녀평등의 이론적 밑받침을 제시하였고 여성운동 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권을 전면 공격하고 개인의 의식개혁과 생활개혁, 사회적인 남녀 차별의 제도를 바꾸도록 요구했다.

80, 90년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여성이 부당하게 차별

받는 가족법이 개정되고 남녀 고용 평등법 등이 제정되었고 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참여율은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성 지위는 세계 117개국 중 90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2위에 처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아실현에 눈뜬 여성들의 활약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 때에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미래 여성의 역할에 따른 새로운 여성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여성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의식 확립을 고취시켜야 한다. 누구의 종속물이 아닌, 누구에게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독립된 한 개체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의식 확립은 교육에서의 기본적 과제다.

요사이는 초등학교에서도 반장이 여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늘 대표성 있는 역할은 남자에게만 주어졌다. 이제는 누구라도 능력이 있으면 어떤 역할도 맡을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여필종부', '삼종지도'식의 가부장제 문화권에서의 여성에게 강요한 순종과 인내의 여성상을 탈피한 '창조적 여성상'의 모습을 보다 더 강조해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갖도록 하며 여성이 성공한 예, 즉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예·체능 분야의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제시해 주므로 인해 자신감을 갖는 여성으로 키워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 여성들의 자의식은 많이 계발되었고 평등권에 대한 이해 및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사회교육기관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고 자기의 능력 개발을 위한 현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사회는 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활성화시킬 대비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여성에게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강화해 주며 평생의 직업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남녀가 평등한 관계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력을 갖기 위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

과거 여성들에게 직업을 갖는 것이 선택적이었다면 미래의 여성들에게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장에서의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아무리 여성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존의 조직은 모두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취업 이후 갈등을 무척 심하게 겪는다. 더구나 직장은 치열한 경쟁논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생리적으로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결혼 후에는 출산, 육아, 가사노동으로 인한 이중, 삼중 부담으로 직장에서의 경쟁에서 열세로 밀려 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의 공동분담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출산에 대한 제도적 보장, 육아의 사회화가 뒷받침되도록 사회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슈퍼우먼으로의 초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자신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임을 알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입시켜야 한다.

최근 여성 고용 활성화를 권장하는 정책적 배려로 많은 기업체가 여성 채용률을 높였으나 여성 자신의 직업의식 부족으로 기업체가 여전히 여성 고용을 기피하게 만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게 평생직업관을 철저히 교육시켜 책임감 및 조직사

경제발전으로 인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아실현에 눈뜬 여성들의 활약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 때에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미래 여성의 역할에 따른 새로운 여성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회에서의 적응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리더십 훈련은 학교생활에서 시작된다. 흔히 남녀공학에 있는 여학생들보다 여학교의 학생들이 리더십이 더 많다고 한다. 남녀공학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는 대개 남자들이 차지하게 되므로 여성들은 기회가 없다. 그러나 여성들의 집단에서는 여성들이 모두 담당해야 하므로 조직의 상위직, 하위직의 경험을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학교에서의 여성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다. 여성들도 기회가 주어지고 경험을 하게 되면 남성보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증명이 되는 셈이다.

셋째,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과 창의성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21세기는 멀티미디어의 시대이다. 이 시대를 일컬어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기술, 노동력을 생산의 3요소라고 배워 왔다. 기본적으로 이 3요소를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산업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량을 누가 얼마나 빨리, 많이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새로운 정보·문화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기술습득을 위해 투자되던 시간과 비용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하나도 중요치 않다. 14살짜리 아이도 컴퓨터 앞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돈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여성들이 열등할 수 밖에 없다는 시대는 지나갔다. 오히려 여성들이기에 더 섬세하고 부드럽고 예민한 장점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졌다. 패션디자이너나 광고 카피라이터, 방송드라마 작가 등 새로운 분야로의 여성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언어 능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하다는 점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기 방송 드라마 작가의 9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꽤나 놀랍다. 예술 분야에서의 진출 또한 대단하다. 정트리오에 이어 장영주, 장한나, 조수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여성이고 이미 서울대 미대에서는 수년 전부터 여성 합격률이 증가되어 오히려 남학생 할당제까지 두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이제 그들이 하려고만 하면 진출할 기회나 분야가 훨씬 다양해졌다.

문제는 여성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첨단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술과 자질을 훈련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여전히 새로운 정보산업 분야에서도 소외되는 층은 여성일 수 있다. 따라서 여성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안목을 넓혀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넷째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의 가족구조와 성에 대한 가치관이다. 이미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가족형태는 다양해져서 독신 가정, 부자녀 가정, 모자녀 가정, 부부만의 가정, 현재와 같은 부모·자녀 가정, 3세대 가정 뿐 아니라 다가족이 구성되는 공동체 가정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

미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가정이 시도된 바 있다. 이혼은 더 이상 여성에게 흠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과거의 이중적인 성윤리관도 깨지고 있다. 남성에게는 허용되고 여성에게는 규제가 되었던 성개방의 문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여성 자신도 이미 순결 교육에 의해 자기자신을 구속해버린 성적 가치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있다. 그것은 결코 문란한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순결은 생명이라는 등식의 보수적인 교육에 의해 성폭행을 당해도 말못하고 자신의 수치로 여기며 심신이 병들어 가던 구시대적인 사고는 벗어나자는 것이다. 성폭력도 일반 폭력과 같아서 가허자가 처벌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신고하고 치료받으며 보상까지도 받아야 한다. 이제 혼전에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로 파혼당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처럼 되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대비한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도 앞으로 겪어야 할 과제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보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과 같은 노인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들도 부모 부양의 책임을 꼭 지지 않는 반면 딸이라도 모시는 경우가 많다. 대를 잇는 호주제로 인한 아들낳기도 무의미하게 되고 있다. 여성교육에 있어서의 효 강조, 부덕 칭송의 기준인 순종과 인내는 퇴색해 버린지 오래다. 새로운 효의 개념 정립 및 가정 내에서의 새로운 가족상이 구성되어야 한다. 딸, 며느리, 아들과 사위는 똑같은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가족법 개정으로 변화된 사회상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침도 변해야 할 것이며 교육현장의 담당자들은 여성 문제에 관한 사회 변화상에 재빨리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요즈음 여성 운동단체에서 '부모 성 같이 쓰기'가 제안되고 있다. 이제까지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자연히 아버지 성을 따라 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부계혈통 중심 사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계혈통도 중시하자는 움직임에서 부모 성 같이쓰기가 제안되었고 이것은 그동안 아들 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이 가져올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책이기도 하다. 아직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운동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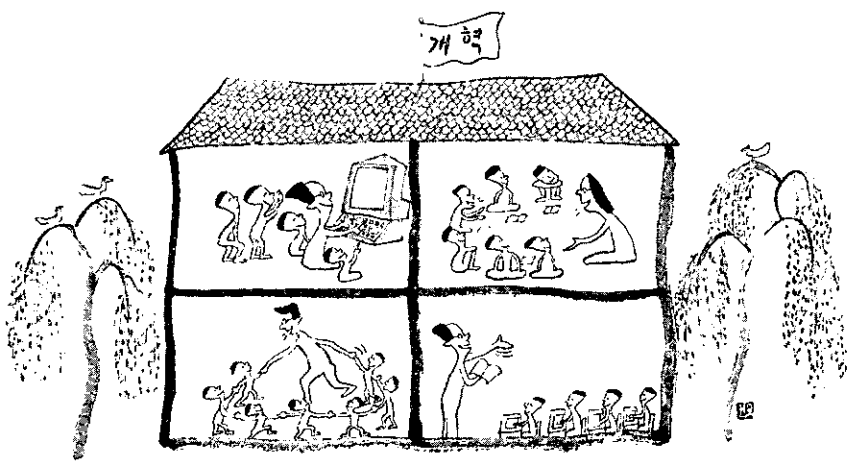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여성 발전에 따른 여성 교육의 미래 방침을 정리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사회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교육 담당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여성의 인간화에 대한 깊은 인식과 연구를 하여 보다 앞선 교육을 시행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계경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과 졸업
- 여성신문사 발행인
- 「왜 사는가를 묻는 젊은이들에게」(공저)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으로부터

변 영 계



학교교육의 효과는 수업의 효과 여하에 달려 있다. 한 시간 한 시간의 수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매 시간 수업의 성패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달라지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교사의 교육관으로, 선생님이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수업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의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학교교육의 개혁을 계획할 때 이 선생님들이 지니고 있는 불가사의한 잠재력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개혁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도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양성'이라는 큰 항목 속에 교원양성 제도, 교원연수 강화, 능력 중심 승진, 효율적인 근무 여건, 자율적인 출·퇴근 등 7개의 소항목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1996년부터 이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이 구현되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살

맛나는 교단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더없이 좋겠다. 또 그로 인하여 자기가 담임하는 학급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신명 나는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르치는 일이 신이 나면 선생님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누가 하지 말래도 열심히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그러한 교사들을 위한 교육개혁안들이 전국의 40만에 가까운 교원들에게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교사들이 자기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려는데 이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의 하위 과제들이 얼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흔히 수업의 효율화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의 요인을 가장 먼저 지적한다. 그리고 이 때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첫째,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목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과 자질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가르치는 방법, 즉 수업 방법에 대한 숙달된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치는 일 자체에 대하여 애정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수업의 효과는 수업 효과 총량의 2/3 만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0에 가깝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쉬운 예로 어느 영어 선생님이 영어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영어로 말하고 듣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수업방법과 관련 있는 말재주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열정이 대단히 높다고 해도, 그가 가르치는 영어 수업의 효과는 좋게 나올 리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을 잘못 가르쳐 안 배운 것만도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르치는 방법과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성 정도도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의 개혁을 주장할 때, 선생님의 요인을 항상 들먹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자질을 갖춘 선생님들이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그 나라의 교육 효과가 달렸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개혁의 크고 작은 바람이 학교와 교단을 수없이 휩쓸고 지나갔다. 각급 학교의 입시제도를 비롯해서 과외 근절, 교실 개혁, 시청각 교육 등등. 이러한 교육개혁에 대한 계획들은 우리 나라 학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정작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은 그 개혁의 의도에 비하여 얼마나 좋아졌을까? 또 수차례의 개혁안들을 항상 추진하려고 했던 교실 수업에서의 선생님들은 그러한 개혁의 바람에 동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수업은 개혁안이 나오기 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달라졌을까? 모두는 아니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개혁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우리 나라 교육의 개혁을 위한 그 짐의 무거운 무게를 나누어지려고 애쓴다면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선생님들이 '또 개혁이라는 골치 아픈 바람이 몰려와 교단을 어지럽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교단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의 바람을 쐰 선생님일수록 교육개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교육개혁도 한때 지나가고 말 바람으로 생각한다면 그 개혁은 계획서에서만 머물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교육개혁은 전국의 각 교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렸다.

학교의 수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반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형식에 그치거나 변죽만을 울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수업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업자, 즉 선생님의 생각이나 수업 기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급 학교의 각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 활동이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학교교육도 자유경제 체제 속에서 학생들 즉 소비자의 희망과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행하고 있는 수업이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예를 들어 현행 수업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수업 방법 및 운영을 효과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다양한 학습 지도 방법 사용,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응용을 강조하고, 적응력 신장을 위한 학습 지도 등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한 마디로 그렇지 않다라는 정도를 넘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다. 특히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불만을 모르고 있거나 무시해 버리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럼 학교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얼마 전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들이 학교의 수업,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어떠한 선생님의 수업이 가장 싫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는 한 마디로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19세기의 수업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좋지 않은 수업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면 ; 1) 체벌을 수업의 중요한 수업 기법으로 활용, 2) 학생들의 인격에 모욕을 주는 언어 폭력의 난무, 3) 공부 잘하는 소수 학생 중심의 수업, 4) 참고서나 문제집 풀이를 주로 하는 수업 활동, 5) 설명보다는 엄청난 양의 필기로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업, 6) 참고서보다도 못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수

업, 7) 학생들의 질문에 당황하거나 언짢아 하는 선생님의 수업, 8) 베껴 오기 식의 숙제 등과 같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맨손 수업, 무성의한 수업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해당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은 더 슬퍼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 지적된 것들이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선생님들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거나 선생님을 학생들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사회가 온다면 지금 지적한 것과 같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선생님은 보따리를 싸거나 그런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는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학교 교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를 추방하려고 했었지만 지금까지 전횡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이 글을 읽고 있을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도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이 그대로 답습되다니. 그래서 교실에서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교육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계획이나 노력은 어느 한 부분만을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학교교육과 관련 있는 주변 여건이나 제도 등도 동시에 개선시켜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의 수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반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형식에 그치거나 변죽만을 울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수업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업자, 즉 선생님의 생각이나 수업 기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수차례의 교육개혁안이 제시되었고, 그 계획의 구현을 위해 행·재정적인 투입을 줄기차게 해 왔다. 그러나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수업활동이 그 개혁의 의도에 얼마 만큼이나 흡족할 수준으로 바뀌었을까? 그 개혁의 기대하는 수준만큼 흡족한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았고, 지금도 각급 학교의 교실 수업에 앞에서 학생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교사의 요인을 너무 가볍게 다루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교실개혁으로부터'라는 화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교실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침묵하고 있는 학생들의 불만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불만을 제거하고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변영계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수업설계」, 「학습지도」 외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정 택 희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 한 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크나 큰 상처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발의 계기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안내자로 작용하는 것을 자주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거론할 만한 귀중한 '스승의 말 한 마디'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생활의 여정 속에서 이따금씩 불쑥 떠오르는 몇 마디의 말은 가지고 있다. 내가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거나 들어가기 직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두메산골 농투성이들의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 보릿고개 넘기에 지치고 허기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이면 긴긴 낮에 점심 굶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누가 와서 끼니때가 되었는데도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끝까지 가지 않으면 밥이 있더라도 함께 굶고 마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어느 집에서 밥 한끼라도 얻어먹게 되면 그렇게 고맙고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당시 내가 가장 부러워 했던 사람은 종가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없이 지내는 동갑나기 친척 동생이었다. 비록 사는 모습이 다르긴 했지만 우리는 매우 친하게 지냈다. 특히 그 친구의 집은 크고 깨끗하고, 가지고 놀 것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날을 그 친구 집에 가서 뒹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는데 정신이 팔려

·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교육통계연구특임본부장
· 「학교교육과 컴퓨터」,
「정보화사회 대응 교육과정 개선연구」 외

그 친구나 나나 점심때가 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해 그 친구 어머니가 점심상을 가지고 오셨다. 그 분은 나에게는 당숙모님이 되시는 분으로서 친조카가 없기 때문에 당질인 나는 매우 가까운 손아래 친척인 셈이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밥 숟가락과 나의 밥 숟가락이 달랐다. 그 친구 것은 은 숟가락, 은 젓가락이었고(나에게는 그렇게 기억됨), 나의 것은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도 된다"였다.

그 아주머니는 매우 성격이 깔끔하고 조용한 반면에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 집은 종가집이었기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내 집 일은 못해도 그 집 일은 먼저 해주는 그런 실정이었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상의하고 해결방법을 물어 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께서는 자기의 '귀한 아들'과 나와 같은 '천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무심코 상차림에 반영하였던 것 같다. 나는 그날 그 밥을 먹지 못하였다.

세월이 흘러 공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시골 어느 중학교에서 한 2년쯤 교편을 잡다가 늦은 나이지만 상경하여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특별히 학문을 하여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일반 학교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 다른 인생 활로를 열어 보아야겠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학기쯤 다니고 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부만 한다는 것이 어쩐지 불안하였고 학비도 마련해야겠고, 교육개발원에 다니다 보면 졸업 후에 자리도 쉽게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도 교수님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분이 노발 대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나의 지도교수님은 학문적 열정이 높으시고 또한 실제로 이루어 놓은 업적도 많으시고, 자신에게 배우는 모든 제자들이 본인보다 앞서기를 강하게 요구하셨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그 교수님을 존경했고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 메마르고 잘못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학생과 정의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는 실패하신 것으로 보였다. 특히 공부하는 중에 일자리를 갖는 것을 제일 경계하셨다. "공부도 못하고 박사들 뒷치닥거리나 하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공부도 안 끝내고 연구부터 한다는 생각부터 되먹지 못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자주하셨다. 한 마디로 "무섭고 어렵다"라는 것이 당시 그분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생각이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두 마디였다.
"학문의 길은 형극의 길이다. 고생없이 무슨 학문을 한다 하느냐?
난 이런 포도 먹을 수 없으니 당장 가지고 돌아가라."

나와 거의 동시에 교육개발원에 일자리를 찾은 동료와 함께 포도 한 관을 사들고 교수님 댁을 방문하였다. 용서도 빌고 개인사정도 말씀드려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말았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두 마디였다. "학문의 길은 형극의 길이다. 고생없이 무슨 학문을 한다 하느냐? 난 이런 포도 먹을 수 없으니 당장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말 한 마디 드리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다. 함께 간 동료는 그 후 학문에 회의가 느껴진다면서 공부를 그만두고 은행에 취직하여 지금은 중견 간부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 용기가 없었던 나는 결국 공부를 그만두지도 못하였고, 그 분의 제자로 자리매김을 하지도 못하였다.

어느새 내 나이도 50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분주하고 어렵기만 하였지 무엇하나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무엇이 남았는가 계산하여 보니 연구 보고서 몇 권이 전부였다. 이것이 나인가 하고 회한의 생각을 할 때마다, 위 두 분의 말씀이 때로는 분발의 조건으로, 때로는 아쉬움과 아픔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서글픔으로 소리없이 들려 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더욱 생생하게 들려오는 '스승의 한마디'는 성경책 어디엔가 나오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교회에 나가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고집스럽게 물리치고 '무신론자'로서의 영역을 구축해 오던 나는 15년 전 두 번의 큰 수술을 받고는 별수없이 교회 문을 들어섰다. 그 때 들은 설교의 제목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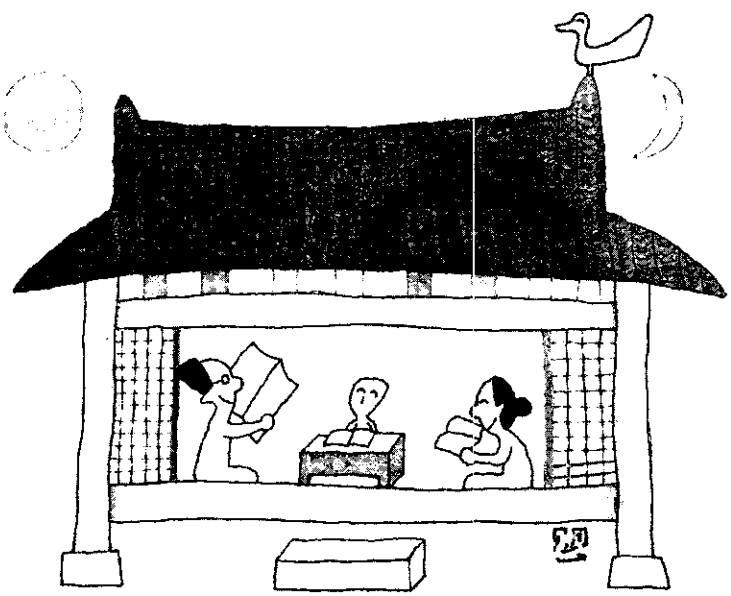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오. 세리(악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나를 사랑하는자)에게만 문안(사랑)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나쁜사람)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악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는 내가 들은 이 말 한마디를 온갖 미움과 질시와 이기심과 탐욕에 찌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악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부권 회복과 가정교육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이계학 ····· 26
좋은 아버지/문은희 ····· 30
흥부가 기가 막혀?
아버지가 기가 막혀!/박일용 ····· 34
내가 본 미국 아버지의 역할/박금복 ····· 37
아버지의 주변성과 가정교육/안병철 ····· 41
부권 상실의 문제와 그 회복 방안/정채기 ····· 46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정교육

이 계 학

<당시로 보아 인류의 전쟁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한국전쟁을 주시하고 있던 미국의 정신위생학자가 1953년 한국에 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6·25의 비극을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해서 미쳐 버린 사람들이 한국의 거리에 넘쳐 있으려니 짐작을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거리에서 '미친이를 찾아 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그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간벽지를 방문하여 한국인의 육아 전통을 조사하고 나서 본국에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이 조사를 통해서 한국의 어른들이 인류의 전쟁 역사상 최대 비극이었던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으면서 미쳐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았으며, 자기 나라의 어른들이 10명 중 한명 정도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할 만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도 찾았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자아계발 프로그램」, 「인격교육론」 외

이 이야기는 당시 정신위생학자를 안내했던 고 성내운 교수가 남긴 글이다. 성교수에 의하면 이 정신위생학자가 살펴 본 것은 6·25 당시 한국의 어른들이 어머니 배안에 있었던 시절부터 출생했을 때, 젖먹던 시절, 젖떨어지고 식구 속에서 지내던 시절, 그리고 집밖으로 나와 다니며 동네에서 자라던 시기에 걸쳐 받은 넓은 뜻에서의 교육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 미국의 정신위생학자가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풍토 속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성내운 교수는 한국전쟁을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 우리의 조상이 남겨준 자랑스런 인생 초기의 우리 전통적 교육이 서양 사람의 실패한 육아방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애절한 안타까움에서 70년대 중반에 이 글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 그가 느낀 애절한 안타까움은 날이 갈수록 짙어만 가고 있다. 요즘 서양의 지식층에서는 모유를 먹여 자식을 기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해서 더욱 그렇다. 다행인 것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적 삶의 방식에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고, 점점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전통 가정교육은 조상이 물려준 전통이기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위대한 교육 전통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전문이 부족한 탓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처럼 확고한 철학적 기반 위에 산뜻하게 정립되어 있는 가정교육의 전통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현대의 육아방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읽어보면 볼수록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이 얼마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이고, 가정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는 엄부자모(嚴父慈母)요, 효(孝) 교육이다. 엄부자모가 인격의 바른 틀을 마련해 주려는 부모들의 교육 원리라면 효 교육은 아동 스스로가 인격의 바른 틀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학습의 원리이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단군신화를 분석해 보면 한국인이 염원하는 삶의 이상은 저승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삶다운 삶이고, 그러한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곰녀처럼 천신만고 끝에 인격을 확립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다. 그리고 이승에서 삶다운 삶을 누린 인격은 저승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서 신선이 되어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갓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중국 사람들이 오랜 옛날부터 중국의 다른 변방과는 달리 우리를 '인방(人方)'이니 '군자지향'이니 '군자불사국' 또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일컬어온 데서 방증되고 있다. 이러한 인격지상주의 문화풍토 속에 일찍이 공맹시대의 선진유가의 가르침이 한국인이 조상을 숭배했던 삶의 방식에 스며들고,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 500년을 지배해 온 성리학적 세계관이 우리 삶의 방식으로 체계화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형화된 것이 오늘의 자랑스런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이다.

동양인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다. 삼강오륜이 단적으로 그것을 잘 드러내 주고 있으며, 인간이란 말 자체-인간은 '사잇적' 존재라는 말-가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되는 것이지 저 홀로는 인간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한 인격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싱거운 이야기 같지만 인간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제 속에 유폐되어 저 홀로 웃고, 화내면서 정신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이와의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폐증에 빠져 있는 이런 이들을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란 말이 실감난다.

이런 안목에서 보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발전시켜 가면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그가 비록 세상을 떠난 후일지라도 이승에서 맺어온 관계의 망은 즉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이승에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의 망을 형성해 놓고 갔느냐에 따라 곧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도 한다. 죽어서도 죽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위대한 인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실로 인격은 죽는 법이 없이 우리와 함께 이웃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한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삶다운 삶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 삼라만상과 옳고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능력이 그 필요조건이요,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이고,
가정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는 엄부자모(嚴父慈母)요, 효(孝) 교육이다.
엄부자모가 인격의 바른 틀을 마련해 주려는 부모들의 교육 원리라면
효 교육은 아동 스스로가 인격의 바른 틀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학습의 원리이다.

인간관계를 분석해 보면 인간은 모래알들의 집합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관계의 망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들이다. 그러나 좁혀서 나와 너의 관점에서 보면 유관의 관계와 무관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무관의 관계를 유관의 관계로 관계지어 주는 요소는 우리 말로 정(情)이요, 요샛말로 사랑이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인간과 인간, 나아가서는 삼라만상과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저 밖의 삼라만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정감을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출생 이후에 어머니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정감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삶의 체험을 통해 신생아기로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감을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인간과 인간, 나아가서는 삼라만상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특히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인생 초기에 체험하는 삶의 경험은 아동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삶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생아기로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옳고 바르게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정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엄부자모의 전통적인 가정교육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愛)과 두려움(嚴)의 정감이다.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이란 정감은 나와 너의 사이를 밀착시켜 주는 합일(合一)의 정감(情感)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이는 가깝게 되고, 드디어는 하나가 된다. 그러나 나와 너와의 사이가 밀착하여 합일이 되면 사잇적 존재인 너와 나의 관계가 필요로 하는 '사이'가 증발해 버린다. 반면에 두려움이란 정감은 너와 나 사이를 멀리해 주는 정(情)적인 느낌이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 대상을 멀리하게 된다. 따라서 두려움이란 정감은 너와 나 사이를 멀리해 주는 분리(分離)의 정감(情感)이다. 그러므로 '옳고',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합일의 정감과 분리의 정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인간, 삼라만상과 옳고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합일의 정감인 사랑과, 분리의 정감인 두려움이란 정적인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정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사랑하기에 멀리할 수도 없고, 두렵기에 가까이할 수도 없어서 온당하게 멀고 온당하게 가까운 사이를 유지시켜, 옳고 바른 관계의 원리(윤리)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정감이 조화롭게 통정된 마음의 상태를 성리학에서는 경(敬)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때 경이란 개념은 존경이란 의미를 넘어서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며, 관계적 존재인 인격의 실체이기도 하다. 이 경(敬)이 자기로 나타나는 것을 자경심,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심, 아동에 대해서는 존중심, 어른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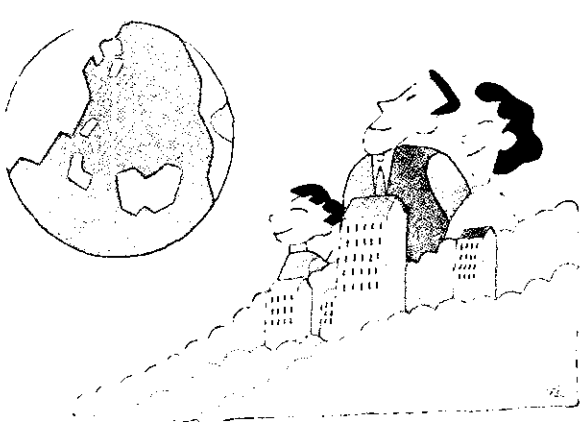
존경심, 신이나 자연에 대해서는 외경심이라 한다. 말하자면 이러한 정감들의 근거가 경(敬)이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감은 체험을 통해서 발달해 간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사랑이란 정감은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두려움이란 정감은 두려움의 체험을 통해서 발달해 간다. 아닌게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두려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사랑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으며, 두려움은 아비없이 자란 자식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초기에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체험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의 체험은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인격을 확립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두 가지 요소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역사적인 삶 속에서 정형화된 것이 엄부자모의 원리이고, 효 교육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엄(嚴)하고 친(親)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어머니는 자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孝)을 통해 인간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경(敬)을 확충시켜 인격을 확립시켜야 한다.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삶다운 삶을 지혜롭게 실현토록 하는 방법이다. 만일 인생의 초기에 이 두 가지의 정감을 부모가 발달시키지 못하고 인격의 바른 틀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장래에 옳고 바른 인격을 확립할 기연을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 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이야기인가?

위의 논의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랑은 한 인격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소가 되고, 온당하게 멀고 온당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주는 아버지의 위엄은 인격의 틀을 결정해 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빵 만들기에 비유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빵의 크기를 결정하는 질료가 되고, 아버지의 위엄은 빵의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빵이 아니라 인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모양일까 아니면 크기일까? 가정에 있어 아버지의 권위가 날로 상실되어 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가정교육적 기능은 무엇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일까? 모성과 부성의 교육적 기능은 치환할 수가 있는 것일까? 두려움을 상실한 호로자식들이 저질러 내는 뒷처리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감당할 것인가?

가정의 달을 맞아 참으로의 남녀평등 사상이라는 것이 부부유별에 상치되는 사상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아이를 키우는 모성에게 있어 육아의 책임과 경제의 비중도 깊이있게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아버지

문 은 희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및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 졸업
· 영국 글라스고우대학교 대학원 졸업 (심리학 박사)
· 연세대, 동국대 강사

아버지들은 누구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좋은 뜻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원래 뜻한 바와 다르게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영향을 미치고 또, 결과에 실망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환경 요인이 적합하지 못해서 그럴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같은 '바깥의 자원'을 탓하고 있기 보다는 자기 '안의 자원'을 바로 챙기는 것만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기의 됨됨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폭이나 유연성에 따라 그 나름으로 바깥의 자원을 바르게 보고 적합하게 동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의 자원'에는 성격, 믿음, 태도, 가치관, 지식, 그리고 건강 같은 것이 모두 얽혀 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문화권에 태어나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기에 안팎의 자원은 제각기 뿔뿔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다. 지식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태도와 방식을 달리 터득할 것이고, 종교의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종교를 갖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다를 것이다. 또한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띤 사회·문화 요인들이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의 자원' 특성을 달리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사회·문화 안에서 우리가 갖추

기를 바라는 '안의 자원'도 남다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서구의 인간관에 기초한 심리학 이론으로는 우리의 특징인 '안의 자원'을 무리없이 왜곡하지 않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런 줄기에서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떤 '안의 자원'을 가진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려 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고 또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를 같이 고심해야 할 일이다. '안의 자원' 가운데도 건강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려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건강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몸'의 건강만을 마음에 두고 말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며 듣는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서로 힘을 입히고 받는다. 그러기에 '몸'과 '마음'의 건강은 똑같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몸만 튼튼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할 것이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딸)이라"는 말같이 건강한 마음을 지닌 아버지 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건강하다'고 할 때 질환의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로 만족하는 소극적인 밑바닥 건강보다는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적극적인 건강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자신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됨됨이'를 뚜렷하게 알고 열등감 없이 자랑스럽게 여길 때 자신과 다를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특징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의 바로 그 '다름'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 좁은 자기중심의 안목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보아 조급해 하며 다그쳐 훈계하듯 가르치려 들지 않게 된다. 이 때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갖추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어차피 아이들의 삶은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아이들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없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러기에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일을 대신해 주고 아이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꼭두각시 삼은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누구라면 다 알만한 유명인들이 그들의 '2세'의 삶을 망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기에 빠트리고 우리가 살고 숨쉬는 문화를 한심하게 더럽히는 것을 어쳐구니 없이 바라보게 된다. 그만한 유명인사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어른의 욕심대로 아이들을 주물러 만들어 보려는 처사를 가까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는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만나볼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대로 하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다.

둘째로 건강한 사람은 '힘' 있게 정당한 영향을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다. 완력을 써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고 또 마음껏 자라고, 뜻을 한껏 키워 나름대로 성취하려는 의욕을 품게 할 수 있다. 아이가 제멋대로 자기만의 길을 걷는데 방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수동적으로 따르도록 어른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길을 헤쳐나가도록 협조하는 데 힘을 다해 영향력을 미친다. 때려서 억지로 아버지 말을 듣게 하고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떠지 못하는 환경 요인이 적합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그만치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개성 있는 아이들을 도매금으로 똑같이 값매기 듯 물건 취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다른 아이를 남다르게 보살피는 아버지여야 한다. 아이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을 볼 줄 알고, 다른 요구가 있음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환경을 마련하는 창의적인 아버지 역할을 터득해야 한다. 여기에 정신건강의 또 한 가지 특성인 '창의적'이라는 자질이 등장한다.

창의성이란 남다른 짓거리를 하는 것이지만 미친 짓이나 모자라거나 못된 짓과는 달라서 독자적이면서 가치와 근거있는 바탕 위에서 남달라야만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 거짓과 부정으로 남달리 앞장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주고, 아이도 아버지를 따라 남보다 앞서 부정 부패의 고수가 되는 경우는 아무리 남달라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와 세상을 바르게 제대로, 그러나 남다른 시각으로 보고 거기서 자신과 세상을 자기가 보는 대로 표현할 수 있고 실현하려 하는 것이 창의적인 것이라면 예술활동하듯 남편되고 아버지도 되는 우리 보통 사람의 몫이 창의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확실하게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아버지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왜 그럴까?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자원봉사 정신으로 수행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역할이 집 바깥의 일에 치우치고 무게 중심이 기울어진 '경제 위주'의 생각 탓에 집안일과 상관없다는 듯이 손을 터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 경제와 정치의 힘과 관련 없는 듯 보이는 생명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양육의 일은 돈과 힘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서 무시되고 낮추어 값이 매겨진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로는 떠들면서도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산물을 생산하는 바깥 일, 이른바 남성들의 역할만 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사람 사이의 일, 이른바 여성들이 전담하는 가정 안의 일들은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이라고 깍아내린다. 그러니 더 인정받는 바깥일을 제쳐두고 아버지들이 아이들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 좋은 아버지될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들이 어머니의 일을 격하시키더라도 여성들이 자부심과 품위를 지키며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아버지 없는 가정으로, 어머니만 있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나 이렇게 격하된 어머니들이 아버지 몫까지 부모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데 아이들의 비극이 깊게 도사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고 널리 번져있는 경제위주의 논리로 사회화되고 교육되어 여성들도 남성만큼 어머니의 역할을 무시하고 피하려고 한다. 남성과 함께 여성들도 상품 생산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부모 역할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모두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영역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아이들은 파출부,

학교 선생님, 가정 교사나 각종 학원 강사들에게 맡겨져 또다시 경제 우선을 신봉할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재생산되는 대열로 줄지어 행진하게 된다.

우리 사회만 경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사회·문화의 특성이 있어, 좋은 아버지가 되는 데 방해하는 한몫을 단단히 한다. 바로 서구인들과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라는 것이다. 서구인들은 행동의 단위가 '개인'인데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포함'한 행동 단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노릇도 남편 노릇도 '개인' 단위로 사는 사람과 달리하고 있다.

'개인' 단위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아내를 자기와 분리된 존재로 보는데 우리는 아이나 아내를 자기에게 '포함'해서 생각하며 부모 노릇과 남편 구실을 한다. 아이를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 특성을 존중해서 키우려는 자세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될 것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이다.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극진하더라도 자기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몰입되어, 거리를 두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버지 자신의 판단만을 주장하게 되기 쉽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도 "아이를 사랑해서"라고 하며 "아내를 사람 만들려고" 그런다고 한다.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서 판단하며, 대신 아이 일을 처리해주고, 말 없이도 눈치껏 묵묵히 따라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의 뜻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사회적인 통로가 활발하지 못하다. 아이가 나와 다른 '개인'이라고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아이에게 자기 뜻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고 또 자기와 다른 수 있는 아이의 뜻을 들어 깨닫고 이해해야 하므로 의사 소통이 활발하고 전달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을 존중하고 그 다른 뜻을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예의라면 어른과 아이관계라도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포함'의 단위로 살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아이를 키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부모의 일이라면 우리는 공공정신을 길러야 한다. '포함'한 사람들의 편의와 안락만을 생각하는 가족이기주의, 혈연과 학연주의, 지방색 같은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아이가 나에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정신을 가질 수 있게 아버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세 살짜리 손녀에게 12억 짜리 부동산을 남기는 어른은 공공정신에 관한 한 낙제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아이들만 대학에 입학하라고 40일 기도하는 사람도, 자격을 묻지 않고 자기 지역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도, 같은 학교 출신끼리만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도 모두 '포함'된 사람에 목을 매고 공공정신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아이의 공공정신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으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건강해야 하고, '좋은 아버지'의 길은 또한 '좋은 어머니'의 길이기도 하다.

흥부가 기가 막혀?
아버지가 기가 막혀 !

박 일 용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자문위원
· Edunet 교육상담 서비스 청소년고민 상담위원
· 가정상담연구원 원장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건강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생활이 불안정한 현실속에서 내가정 내이웃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내 가정의 생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며, 최선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안정된 생활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근본이기에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야 말로 더 이상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각박해진 가족관계 속에서 진지한 삶의 의미를 녀나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따뜻함과 인정이 있는 우리의 고향을 잊은 채 내마음을 열어보이고 싶은 이도 그러한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천성이 착한 이 시대의 흥부, 우리 보통 아버지들이 어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애수'라는 영화에서 솟구치는 인간애와 장면마다 묻어나는 따뜻한 인간성에 동감하며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주인공 자신의 허물을 죽음으로 마감하는 아름다운 숭고함이나 남자 주인공이 그 가치를 고귀함으로 승화시켜주는 대목에서 많은 흥부들의 마음을 적시어 주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 군상들의 일그러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온갖 부정과 비리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비정상, 비합리적인 무리가 우겨대고 얼버무리는 뱃심에 흥부는 기가 막힙니다. 묵묵히 그리고 우직스럽게 살아왔던 흥부가 88올림픽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으쓱했던 어깨가 여기저기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끊어지는 참상을 당하며 모질게 소외당하고 힘없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면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탓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면 내 탓이라고 그렇게 알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 나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영국에는 신사도가 있고, 미국에는 개척정신이 있고, 이 땅에는 선비정신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기 저기서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계 원로들께서 그 처방을 내놓았는데 대강 이러합니다. 책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사욕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힘있고 가진자가 베풀어야하며 각자 제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파국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여기에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 또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뿌리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재삼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흥부가 기가 막힌 것은 놀부가 흥부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부정하는 상대로 취급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가정의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아버지요 남편입니다. 모든 아버지가 기가 막히다고 하소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60년대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나만 열심히 일하면 참일군이며 모범 가장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후 80년대까지 산업사회를 살아 오면서 부터는 생산의 극대화와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이해타산에 몰두한 결과 가족끼리도 이기적인 관계가 되어 오늘날 이 사회가 혼란스러움에 처하게 된 근본이기도 합니다. 흔히 90년대 이후를 문화의 사회, 정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하여 부정의 대상이 아닌 공감의 대상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불화의 골만 깊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아내와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정해 주고 공감하는 자세가 수반되어야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몇가지를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내와 자녀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으며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위치를 다지는 길이요, 상호 일체감을 갖게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옷 한벌 사주세요" 했을 때, "옷은 무슨 옷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면 "옷장의 옷은 옷이 아니야?"라고 한다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래! 옷 한벌 못사주는 주제에 남편이라고 큰 소리는!" 하겠지요. 이쯤되면 서로에게 반감만 갖게되는 상태가 되겠지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 입을 옷이 없으면 진작 말 할 것이지. 사러 갑시다!" 사 줄 형편이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그럴 형편이 못되면 "여보! 미안해. 당신이 알다시피 사정이 안 좋아서… 기회 닿는대로 사줄테니, 못사주는 내 마음을 당신이 이해해 주었으면 정말 고맙겠어!"라고 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표현 방법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딸애가 밤 11시가 넘어서 귀가했다고 합시다. 집에 들어서는 딸애를 향하여 " 너 지금 몇시야!" 라고 하면 "아빤 시계도 볼 줄 모르세요? 11시가 넘었잖아요." 하면서 뒤도 안돌아 보고 제 방문을 쾅 닫을 것입니다. 이때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얘야, 밤 11시가 넘었는데 연락도 없어서 무슨 사고라도 났는지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사고없이 들어와 주어서 다행이다." 하면 딸애는 "아빠! 미안해요. 여차저차 늦었으니 다음에는 연락이라도 할께요." 어느쪽이 아버지 스스로가 편하시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는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상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상대로 출발해

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모 조모 따져서 부정하면 상대방도 따져가며 부정하려 든다는 거지요. 부정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권을 바라겠습니까? 이때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위치는 이미 상실돼 가는게 사실입니다.

둘째는 포용하는 자세입니다. 최고의 덕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포용 그 자체는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손한번 잡아줄 때 따뜻한 가장이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자기 몫의 지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지혜와 의견을 포용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의 길입니다. 셋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한 자세가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내나 자녀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변명 내지는 합리화에 급급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을 때 가족은 애정을 느끼고 공동체로서의 긍지와 소속감을 갖게됩니다. 나아가 가장으로서의 '신뢰감'이라는 보상까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과 같은 내용이 최소한 전제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하여 성숙해 갑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동물을 기를 때는 사육이라고 하지만 자녀교육은 양육이라 일컫는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때 교육이 첨가되지 않은 양육은 사육과 같다는 것을 가정교육의 본질로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정교육이 뿌리라면 학교교육은 줄기라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의 중요성이야말로 이 나라 장래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국가 사업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선비정신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바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육자야말로 이 사회의 기둥이요, 국가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그 교육자가 바로 아버지요, 남편이라면 이 사회의 뿌리 역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같은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제 심정을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보루"라는 단어를 상기하며 삽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남자의 일생에서 마지막 자기를 보호해주고 쉴 곳은 가정이라는 의미이지요. 밖에서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해도 가정이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두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에게 늘 부족한 남편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번 원고료를 받으면 나는 또 아내에게 제안을 할 것입니다. 어디 분위기 있는데 가서 외식이라도 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거절할게 뻔하고, 그 거절속에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보루"의 의미가 있음을 알지요. 두 아이의 뒷바라지를 생각하는 아내의 체념에 가까운 표정을 읽으며 나는 한없이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분명 "보루"는 아내의 몫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몫이 첨가되었을 때 빛이 난다는 사실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의 몫을 아내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제몫을 다할 때 결국, 빼앗긴 부권에도 봄은 오는 것이겠지요.

내가 본 미국 아버지의 역할

박 금 복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 사회과학과 졸업
· 중앙일보 영문판 편집국장 역임
· 프리랜스 통·번역사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 누군지 아세요?" 하고 나는 아버지께 여쭌다.

"몰라…"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자신없이 대답을 하신다.

"아이, 참, 아버지 딸이잖아요, 아버지 딸!"하며는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신다.

"내 딸? 네가 내 딸이야?" 눈이 휘둥그래지고 입을 딱 벌리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핑도는 눈물을 억제하느라 더 크게 웃어보인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치매현상이 악화되어 가족들 조차 못알아보게 된 후 수시로 가졌던 대화의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추려 보려고 하니 나의 아버지의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뒤늦게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가셔서 이 역할을 어떻게 소화시키시고 감당하셨는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된다. 아버지께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때에 딸이 너무 '미국화'되는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정교육을 시키셨고 또한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남다른 노력을 하셨다. 주위의 미국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에게 반항도 하고 원망도 해 보았으나, 출가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야 그 고마움을 깨닫고 아버지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무서운 치매에 걸려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 가벼운 증세로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참 모습을 서서히 잊어가는 것을 애통히 여기며 슬퍼해 왔었다. 그러나 정말로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돌아가신 후에는 병드시기 전의 모습들과 끝없이 베풀어주신 사랑만이 나의 가슴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문화와 언어, 풍습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엔 흡사한 점이 더 많다. 아버지의 역할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창조해 낸 생명에 대한 책임과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아버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집안의 기둥으로서 가정에 규범을 세워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을 형성해 주면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 아버지들의 모습을 관찰한 것과 나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느낀 것을 모아 미국 아버지들의 역할을 얘기해 보려 한다.

시대적으로 변해온 가정의 모습

기독교 윤리를 생활의 근본으로 지니고 온 미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급변해 온 시대상에 따라 가정의 모습도 따라서 변하였고 아버지의 역할 또한 일반적인 변화가 있었다.

제2차 대전 후 산업이 급속히 발전해 나아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던 1963년 전후로 미국은 최고의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다. 일자리는 풍부했고 푸르고 넓은 정원과 큰 차고(two car garage)를 갖춘 교외의 새 주택을 향해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아갔으며, 누구나 성실과 근면을 갖추면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을 성취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돈벌이를 하는 가장(breadwinner)으로서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주부(homemaker)로서 전통적인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다.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자녀가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아버지는 울타리 역할을 하였다.

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데모들이 무성해 가며 히피족들인 flower children이 등장하고 성 개방과 마약 문제 등으로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대략 70년대부터는 가정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미국 이혼법에 의하면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자녀 양육권은 어머니의 것이고 양육비는 아버지의 책임이다. 가정 파괴로 인해 이혼률이 차츰 증가하면서 남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역할에 소홀해지면서 아버지의 위치가 불확실해졌고 청소년 가출, 마약, 각종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80년대에 이어서 베이비 붐 세대(1945~1960년 태생)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근래에 와서는 반대 추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들이 자녀교육과 가정의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되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물론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나 여러 곳에서 의식적인 노력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미국의 가정이 다시 서는 것에 대해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오래 전부터 아버지의 이상적인 역할로 존재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이 실행되지 않았던 자녀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실제적으로 이행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역할을 단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공평히 나누는 등 진보적인 가정환경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부엌에서 식사준비를 하고 빨래와 청소를 하며 자녀들을 씻기고 잠자리에 들게 해주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총 노동력의 반을 차지해가고 여성의 인권이 강화됨에 따라 아버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혹은 재산 때문이 아니고
순수하게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함을 보임으로써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아버지야말로 정말로 뜻이 있고 보람이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산 분이 아닐까.

의 역할에도 상대적인 변화가 온 것이다. 부모 각각의 역할이 성별로 구분되기보다는 각 가정의 형편과 상태에 따라 구분되는 추세가 현대 가정의 합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아버지의 역할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다. 출산을 위하여 호흡하는 방법을 부부가 같이 배워서 남편도 분만실에 들어가 호흡을 코치해 주며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첫 순간을 같이 나눔으로써 생명의 신비함과 신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며, 아버지가 된 막대한 책임감과 아버지라는 중대한 역할의 존엄성을 경험한다고 한다.

갓난 아기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아버지는 인도해 주고 밀어주며 지켜주는 믿음직한 존재인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가는 일도 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행사와 발표회 때에도 꼭 참석을 하며, 자전거 타기나 공 던지기 등의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미국의 아버지이다. 이러한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는 데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위치가 확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때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감을 갖게 된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어 생각과 행동이 독립되기 시작하여 대화와 접근이 어려워지더라도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규범과 질서를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는 것이 곧 아버지의 역할이다.

미국이 겪어온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는 가정 파탄으로 인한 가족제도의 위협이다. 이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홀어머니(single mother)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충실하다. 자녀에게 양 부모의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반면 홀아버지(single father)의 경우는 매우 대조적이다. 경제적 수준을 막론하고 이혼이 성립되면 제일 기본적인 책임인 양육비 지불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가 많다 보니 'deadbeat father'(좋게 해석해서 '형편없는 아버지'라는 뜻)라는 명칭이 생겼고 법적 조치까지 내려져 법의 개입으로라도 아버지의 책임을 완수시키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본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의 심리적 상태는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가정과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존재가 다시 가정에 재확립되어야 한다.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

내가 만났던 아버지 중에 잊지 못할 한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다. 나의 둘째 아이가 유아원을 다닐 적에 만난 학부형이었는데 그녀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며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꽤 품위있고 교양있는 엄마여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친구의 사촌이 한국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집을 방문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뿐더러 아이가 말을 잘 안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사람을

만나 모국어를 듣게 되면 아이가 좋아할 것 같고 또 그 아이의 생각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한국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양부모들한테 괜히 미안하고 묘한 죄책감을 느끼던 터라 쾌히 승락을 했다.

며칠 후 방문한 입양아의 집은 청결하고 검소하며 온화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한 주택이었다. 양아버지가 단발머리를 한 대여섯 살난 한국 얼굴의 귀여운 양녀를 소개했다. 양녀보다 두어살 위인 친아들이 있었고 양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나의 방문을 위해 아버지가 준비한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양어머니는 입양 수속을 시작한 후 다발성 경화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증세가 악화되어서 하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입양 수속을 취소하느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한 결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며 부인의 간병을 하고 두 자녀를 키우는 것을 진실한 사랑과 정성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친부모와 고국을 등지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얼굴 색깔도 다른 사람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양딸이 측은하였고 또, 이 딸을 위해서 한국의 문화나 풍습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나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고국에서 버려졌다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과 믿음, 협조와 배려 등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여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날 그들과 헤어졌다.

존경받는 아버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시대에 따라 바뀐다. 슈바이쳐 박사, 링컨 대통령, 헬렌 켈러 여사 등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의 이름은 나와 같은 구세대들에게서 나왔었던 흔한 대답이다. 요즘에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이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발생한 사회적인 변화가 개인적인 철학이나 삶의 스타일에 끼친 불가피한 영향이라 하겠다. 그러나 시대에 상관없이 그 중에도 자신의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혹은 재산 때문이 아니고 순수하게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함을 보임으로써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아버지야말로 정말로 뜻이 있고 보람이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산 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버지의 주변성과 가정 교육

안 병 철

Ⅰ. 머리말

최근 국내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서구 사회의 경우 이러한 관심과 연구의 증가는 이혼의 급증과 관련이 있다. 이혼이 늘면서 편모, 편부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소년 비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들어 와서 우리 사회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고개 숙인 아버지', '아버지 부재', '부권 상실', '권위 하강', '아버지의 주변성'과 같은 표현에서도 관심의 증가를 읽을 수 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및 코빌 대학교 대학원 졸업 (가족 전공, 박사)
· 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가족사회학」(공역) 외

그렇다면 왜 최근에 와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관심의 증가를 지난 30여년 간의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구조적으로는 농업 사회로부터 도시 산업 사회로 이행하였고, 이념적으로는 평등 이데올로기가 보다 확산되었다. 그리고 기혼 여성의 유급 노동 참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아버지의 자녀 교육에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도시 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일터와 가정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가 시작되던 60년대와 비교할 때 최근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개입할 기회는 감소하였다. 둘째, 기혼 여성의 유급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아버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족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셋째,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가족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아버지 부재 현상과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대한 변화 요구와 관계가 있다.

아버지의 행동과 자녀 교육 참여가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에 중

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의 훈육적 역할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가정 교육의 현황을 부모됨의 자격, 부모의 권위 포기, 가정 교육 부재, 그리고 잘못된 가정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그 동안 자녀 교육에서 왜 아버지가 주변적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버지의 직업 역할, 한국 사회의 성역할 규범, 부부간의 권력 관계,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부권 회복과 가정 교육에 대해 필자 나름의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II. 가정 교육의 현황

여기서는 우리 가정 교육의 현황을 부모됨의 자격, 부모의 권위 포기, 가정 교육 부재, 그리고 잘못된 가정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됨의 자격

"다음 시험에도 9개 틀리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초등학교 1학년 월말고사 결과를 두고 어머니가 딸에게 한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우리 가정 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부모됨의 자격을 생각해 보았다.

1994년은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였다. 가족에 관한 학술 회의도 많이 있었다. 한 모임에서는 '부모 자격증' 발급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부모가 되기 위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부모 자격증'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 많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 교육학자가 전국 49개 초·중·고교생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평소 부모와 교사로부터 듣는 욕의 종류는 140여종에 달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로부터 맞아 본 매의 종류도 60여종이나 되었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징계해야 할 경우에도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위협'적인 말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징계 도구도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매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한 때 미국 공익 광고 협의회에서 발행한 포스터 한 장을 복사해 집에다 붙여 둔 적이 있다. 그 포스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Words hit as hard as a fist. Watch what you say."

(말이 주먹만큼 세게 친다. 말을 조심하라.)

부권 회복은 먼저 부모됨의 자격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찮은 말 한 마디가 자녀에게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일이다.

2. 부모의 권위 포기

주위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포기하는 경우도 흔히 본다. 김희복 교수는 한국 학부모 문화의 특성을 수월 지향, 엄마 주도, 타자 준거, 투자 지향,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권위 포기로 규정한 바 있다(김희복, 1992). 이 중 권위 포기란 "입시 준비는 고행이기 때문에 자녀의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권위 포기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수험생 학부모(아버지 904명, 어머니 1,044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9%의 어머니와 43%의 아버지가

입시 준비는 고행이기 때문에 자녀의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하였다(한국사회학회 가족 문화연구회, 1992 ; 안병철, 1993). 다시 말해서 자녀의 대입을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포기해도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과연 이래도 좋은가?

3. 가정 교육 부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터와 가정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가 시작되던 60년대와 비교할 때 최근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개입할 기회는 감소하였다(안병철, 1994). 여성 취업이 증가하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5년에는 37%였으나, 1990년에는 47%로 증가하였다(김태홍, 1993). 1992년 현재 전체 기혼 여성 중 임금 근로자는 35%에 달한다(통계청, 1993).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부모가 '적정한' 자녀 양육의 기능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취직이나 개인 취미 등으로 아이를 실질적으로 방기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은 도리어 인간을 멸종 아니면 쇠퇴로 몰아가는 반진화론적이고 반생존적인 소위"(정범모, 1994)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4. 잘못된 가정 교육

가정교육 부재도 문제이거니와 그나마 있는 가정교육도 생활 교육, 예절 교육, 시민 윤리 의식 함양은 뒷전이고 지식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동원과 조성남이 E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 관계 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 있지 않았다. 부모들이 지적한 갈등 요인 1위는 "자기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였으며, "집안 일을 돕지 않는다"가 2위였다(1991).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만 하라"고 했는데,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루아침에 자기방 청소도 하고 집안 일도 돕고 하겠는가? 어릴 때부터 근로에 대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인의 희박한 공공 질서 의식도 잘못된 가정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갤럽에서 실시한 6개국 비교 조사에서 이는 잘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평소 타이르는 일을 물은 결과, "교통 질서를 잘 지킬 것", "약속과 시간을 잘 지킬 것",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 그리고 "새치기를 하지 말 것"에서 한국의 부모는 꼴찌였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우리는 자녀를 친족원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

Ⅲ. 왜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서 주변적인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서 왜 아버지는 주변적인가? 한국 사회학회 가족 문화 연구회는 1992년 서울과 수도권 지역 수험생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와 가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와 병행하여 필자는 수험생 아버지 10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여기서는 이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주변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아버지의 직업 역할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주변성은 먼저 아버지의 직업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의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경우가 아버지의 과반수(51%)를 넘었으며,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버지도 22%나 되었다(안병철, 1993). 인터뷰에 응한 아버지 중에는 주 7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주 2일은 지방 출장,

그 동안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들은 '2선'에 물러나 있었다.
부양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교육은 내팽개쳐 두었다.
과연 자녀 교육은 덜 중요한가?
이제 아버지들이 나서야 할 때다.

월 1회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들의 평균 귀가 시간도 9시 이후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12시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응답한 아버지도 있었다. 늦은 귀가는 업무와 관련된 손님 접대(예컨대, 은행 간부의 경우),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장 책임자와의 회의 및 회식(예컨대, 소기업 대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예컨대, 도매업자의 경우) 등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며 퇴근하는 생활'(동아일보, 1987년 9월 30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한국 사회의 성역할 규범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주변성을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성역할 규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성역할이라는 면에서 볼 때 가장 일반적인 한국 가족 유형은 남편이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부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주된 책임이 부인에게 있는 것은 물론이다. 가족문화 연구회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대다수 아버지들은 자녀 공부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달려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며(63%), 실제 가정 교육에서도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가정이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가정의 약 10배가 되었다. 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은 아버지가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 규범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주변성은 이와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도 있다.

3. 부부간의 권력 관계

필자가 인터뷰한 아버지들 중에는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버지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아버지는 수험생 문제로 해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는 가정의 금전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었는데, 금전 지출 문제 또한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부인이 남편에게 "모자란다"고 하면 남편은 부인에게 "내가 돈버는 기계냐?"고 응수한다고 하였다.

이 가정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금전 관리를 전적으로 또는 주로 부인이 한다는 가정이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수(54%)가 넘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 결정도 주로 어머니가 하고 있었으며(57%), 수험생 자녀의 과외나 학원 수강 문제를 결정할 때도 부인이 결정한다는 가정은 남편이 결정한다는 가정의 4배나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가정의 금전 관리 및 자녀 교육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서 밀리고 있다. 이것은 그간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권력 관계

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4. 입시 위주의 교육

필자가 인터뷰한 한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주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교 교육이 전인교육이라는 교육 목표의 실현에 있다면 아버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대입 수험 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대입 전문가(예컨대, 학원 강사)의 역할이 더 크다.

만일 우리가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면, 아버지들은 십대 후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인생 경험 등을 들려주며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 어머니들끼리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며, 어머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서 겉돌게 된다."(51세 은행 간부)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주변성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Ⅳ. 부권 회복과 가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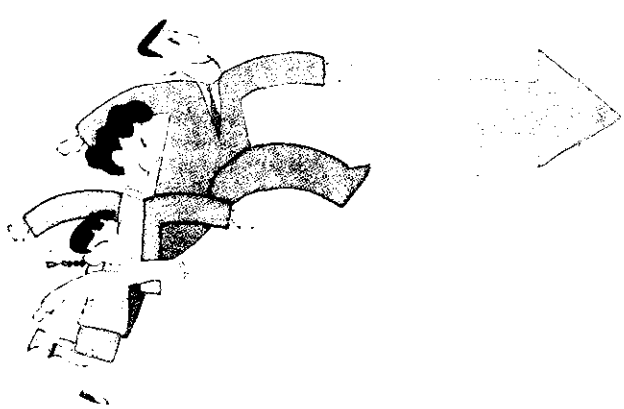
위에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가 주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권을 회복하여 아버지들이 가정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까?

필자의 소견으로는 부권 회복은 먼저 부모됨의 자격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아이들 앞에서 교통 질서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자식들 앞에서 험한 소리로 싸운 적은 없는가? 부권 회복은 우리들 스스로 자신의 부모됨을 반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포기한 적은 없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공부만 잘 하면, 학교 성적만 좋으면 부모의 권위도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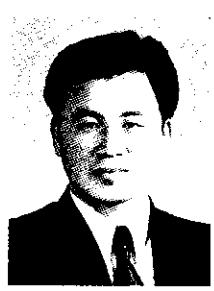
셋째,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자녀들의 가정 교육을 내팽개쳐 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한다. "당신은 밖의 일이나 열심히 해. 과외비나 많이 벌어다 주면 돼. 아이들 공부는 나한테 맡겨." 이러는 부인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는 공동의 문제"라고 항변한 적이 있는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할 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라고 바로 잡아 준 적이 있는가? 깊이 반성해 볼일이다.

그 동안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들은 '2선'에 물러나 있었다. 부양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교육은 내팽개쳐 두었다. 과연 자녀 교육은 덜 중요한가? 이제 아버지들이 나서야 할 때다.



부권 상실의 문제와 그 회복 방안

정 채 기



·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한국남성학 연구회장, 아버지 모임 전국 연합 운영위원
· 건국대학교, 숙명여대 강사
·「남성학이란 무엇인가?」,「남성해방론」,「벼랑끝에 서있는 남성들의 이야기」외

1. 아버지 문제의 실상과 허상

'95년 6월 26~29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는 알바니아와 리헨텐슈타인을 포함한 유럽 42개국 사회·복지장관들이 모여 국제회의를 열었다.

'현대 가정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아버지의 지위를 드높이는 방안'이 이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유럽에서 자꾸만 지위가 격하되고 있는 가장(家長)들을 우려하는 일종의 대책회의였다.

선진국 장관들(그들도 대개는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버지일 것인데)이 사흘동안이나 머리를 맞댄 것을 보면, 가정내에서 아버지의 문제는 피부색과 언어를 초월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로이터·연합통신에 따르면, 테르트 후트 핀란드 사회복지장관은 미리 배포한 토론 자료에서 "남성은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구조에 얽매인 수인(囚人)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이 아버지가 됨으로써 겪는 독특한 경험을 모두 감내하려면, 비상한 용기가 필요하다. 가족내에서 설 자리는 없으며, 자기 자신과 자기 필요를 정의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성인 남성 5명 중 약 1명이 실직자인 핀란드의 경우, 가정내 남성의 정체성 위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심하다.

아버지 문제를 논의한 헬싱키 국제 회의에서는, 로마 교황청도 대표를 파견하여, 아버지의 권리회복을 촉구하는 토론자료를 제출하였다. 교황청은 "아버지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집 밖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주지하였다시피, 가정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성·아버지의 위축현상은, 더 이상 해외뉴스가 아니다. 몇년 전 한반도를 들끓게 하였던 '간 큰 남자 시리즈'를 시점으로 하여, 급기야 작년에 태풍의 눈으로서 일기 시작한 직장인들의 명예·조기퇴직과 이에 대한 '아버지'소설의 신드롬은, 이 땅의 아버지 문제의 실상을 절감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한국의 이 '고개숙인 남성·아버지'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진 것 같다. 즉, 이들의 요새 풀죽어 지내는 모습이 바깥 세상에도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언론의 경우, 한국 경제의 우려 상황을 소개하면서, 명예퇴직자들이 '고개숙인 남자'로 불리는 실상도 소개하고 있다.

얼마전만 해도 도도한 야심과 패기 때문에 심지어 거칠다는 평판까지 듣던 한국의 남자였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해방 전후에 태어나 숱한 역경과 격류를 헤엄쳐온 이들 중·장년 세대가 돌연 가정과 사회의 '폐기처리물 제1호'(?)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밖에서까지 연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30~40대 젊은 아버지들이라 해서 결코 편한 것은 없다. 소위 직장에서는 '낀(샌드위치) 세대'의 조기 퇴직 대상 1호이며, 가정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마누라와 자기주장이 세고 영리한 자식들' 등살에, 밤낮으로 뛰어야 하는 피곤한 가장의 신세에 머물러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이제 우리 모두가, 일방의 혹은 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아버지의 위기문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의 보다 원천적이고 직접적인 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이 아버지의 위기는 크게 '남성의 위기'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다루어져야 한다.

2. 아버지 문제의 원인 규명

19세기 중엽 이래로 산업화된 사회는 가족에게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다. 남성들은 하루종일 가정 밖의 각 일터에서 일할 수 밖에 없다. 도시에 사는 가정의 아버지와 아이들의 접촉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아버지는 자식들의 눈에 '알수 없는 일을 하는 먼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노동의 이같은 시스템들은 사실성과 역할의 근본적인 분리를 초래한다. 18세기의 남편과 아내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농가에서, 시장에서 또는 상점에서 나란히 일을 했었지만, 50년이 지난 후의 세상은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두 개의 이질적 영역, 즉 어머니에 의해 지배되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남자들만의 공적이고 직업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한편으로 여자는 어머니이고 가정부이며, 다른 한편으로 남자는 노동자이며 양육자, 즉 돈을 버는 사람(breadwinner)이다. 특별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정·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성공, 돈, 그리고 가치있는 일 등이 육체적 힘과 명예를 대치하게 되었다.

어느 면에서 20세기 보다는 오히려 19세기 말에 남성들이 더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이 때의 피해를 단적으로 표현한 바는 "남성의 일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럼으로써 가부장제도가 무너진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은 결코 일어나 본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1929년의 공황이 아버지들에게 모

육을 안겨주었다. 부득이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실업자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잃었고 자신의 남성성이 상처를 입었다고 느꼈다.

20세기로 들어옴에 따라, 가정에서의 아버지 임무는 점점 더 줄어들고, 오히려 마치 어머니가 딸이건 아들이건 간에 자식을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천부적으로 부여받기나 한것처럼 행동한다.

이 와중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는 흐려질 대로 흐려졌다. 사실 18세기 까지는 아버지의 권위와 영향력이 컸었지만, 19세기에 더하여 20세기 이르러서는 더욱 그것이 쇠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기껏해야 현실은 아버지를 물질(돈) 공급자로서의 기능(능력)에 따라 정의하고, 그리고 교육적인 최후의 심판자·사후 결재자로서의 권위("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말씀드려 보마")만을 마치 적선식으로 부여할 뿐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한국의 남성·아버지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게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 직·간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여성·아내들의 변화이다. 즉 문예부흥, 계몽주의 및 민주주의의 발달을 통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상에 영향을 입은 여성해방운동(페미니즘—여권신장운동, 남녀평등주의)의 전세계적인 물결이 이 땅에도 예외없이 불어닥쳤던 것이다.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권신장에 중점을 둔 19세기의 근대 여성해방 운동과, 참정권 획득을 위한 20세기의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별히 1960년대 서구 사회의 본격적인 페미니즘을 통하여 남녀 성역할 변화의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세계의 여성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20~30년의 차이를 두고 근대·현대 여성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의 변화만큼 남성들 자신의 性정체성(sexul identity)에 일대 혼란과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 남성들의 남성성 위기를 보자면, 앞에서 제시된 미국 남성들의 위기와 같은 맥락으로 전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결정적 시기를 꼽자면, 여성운동의 주체가 지식인 여성에서 여성대중, 즉 기층여성인 노동여성, 농민여성, 빈민여성(저소득, 저학력의 여성들) 및 전업주부들로 전환된 198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즉, 이제까지는 여성운동의 주체가 중산층의 고학력 기혼여성이었지만, 기층여성들까지 포함된 명실공히 여성대중에 의한 여성운동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부터, 일개 평범한 남성·남편들까지도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위기가 점차 고조되어 갔던 것이다, 이것의 극단적인 예가 최근 유행했던 '간 큰 남자 시리즈'(남자들의 자작극이라는 비난이 있긴 하지만…)임에 틀림없다.

종합적으로 아버지의 위기는 지금까지 거론된 것들의 주된 두가지 면, 즉 가족(아이들)과 멀어져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아버지, 또는 현실적으로 요청되다 못해 강요되는, 남성성들을 잃어버리고 경멸받는 아버지의 모습들로 압축된다. 환언하건대 전자는 산업화 사회의 후유증이고, 후자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와 체제를 불문한 '도구적 기능주의' 그리고 태풍의 눈으로 불어닥친 여성해방운동이 빚어낸 합작품인 아버지 문제라 여겨진다.

아버지의 이같은 위기 혹은 아버지 모습의 변화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보다는 덜 하지만 유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3. 아버지 문제해결의 통과요구 준거

아버지 문제의 실상과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여러가지로 복잡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제시 또한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이에 따라, 보다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 문제가 거쳐가야 할 우리의 과제, 즉 '통과요구'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설명하고자 한다.

1) 통과요구의 체제·구조적 준거

① 자본주의 ; 자본(돈, 노동력) 위주와 그 가치중심의 준거로서, 경제(제일)주의, 상업주의 및 물질주의 등을 유사한 준거로 하고 있다.

일찌기 우리 속담에 "부자 아버지 뒤에는 자녀들이 많고, 가난한 아비에게는 따르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과 독일 속담에 "억만장자 아버지에게는 따르는 자녀가 많고, 거렁뱅이 아버지 뒤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말들이 이 준거의 특징이다.

더 특별하게 지적되는 것으로서, 남성의 전화나 아버지의 전화에, 제 1위의 눈물로써 상담되는 아버지·남편의 돈·경제적인 면에 대한 해결문제(예 : 실직이나 무노동의 각종 후유증)는 우리 모두의 아킬레스건임에 틀림없다.

② 정보화주의 ; 18세기의 산업혁명에 따른 눈부신 산업주의, 과학·기술주의 그리고 정보화 사회는 도시·핵가족주의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공업화에 따른 超문명주의는 산업사회 이전까지 가능했던 '아버지의 회초리'를 자식들에게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먼 거리를 두게끔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는 정보 수집 채널의 전부이자 모델이 아닌 것이다(예 : "에이, 아빠는 여태 그것도 몰라요?").

그래도 산업화·정보화는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해보는 사람도, 퇴영적인 탈기술, 탈산업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아이러니를 깨닫게 된다.

아울러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산업화, 정보화 사회를 이룩한 일본 또한 이에 대해 "건너지 말아야 할 다리를 건넌 것과 같고, 이제는 되돌아 갈 수도 없다. 만약 되돌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유하였다.

③ 가부장주의 ; 인류역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닌 이 가부장제도는, 남성·가장우월주의, 가장책임·지배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점차 더 거세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것은 아직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버지들 스스로에겐 자충수를, 아내와 자녀들에겐 무조건 의존하는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④ 여성주의(feminism) ; 마치 삼각파도의 높이와 위력만큼으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이것은, 여권신장과 여성해방운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대편 남성·아버지들의 실상에 대해 잘 묘사한 것을 보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넋을 잃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아직은 우리 체제상 어려운 다소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페미니즘(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그 중에서 아버지들이 더욱 난감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통과요구의 작용적·정서적 준거

① 이기주의 ;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고, 그게 최선이다."라는 방식의 지극히 이기주의적·개인주의적인 아버지들의 의식과 행동의 작용은 어제 오늘의 문제이자 한계가 아닌, 내일의 난제 그 자체이다. 특별히 이같은 원리에 준하여, 아버지들이 비추이는 지나친 가족·혈연중심 사회는, 경직된 발전을 담보할 따름이다.

덧붙여서 꼭 지적할 것은, 이제는 여성이나 아내도 "결코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논리로서, 극단적인 경우로 이혼법정에서 아이를 그 누구도 키우

지 않겠다는 비극적 종말을 파생시키고 있는게 최근의 일들이다.

② 능력지상주의 ;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공해들 속에서 부지 불식간에 엄연히 살고 있다. "남자는 능력으로 승부하며,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좀 더 심해진다면, 폭력 그 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소위 '무한 경쟁'의 메카니즘이 기업은 물론 사회·국가 심지어 가정에까지 파고들어 각 장(場)의 주된 관리자인 아버지들의 힘겨움을 자아낸다.

이 냉혹한 준거(원리)에 의하여, 점차 어떠한 인간·아버지나, 그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그의 사람됨은 우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이제는 갈수록 '마음씨 좋은 아버지' 보다는, '능력있는 아버지'를 더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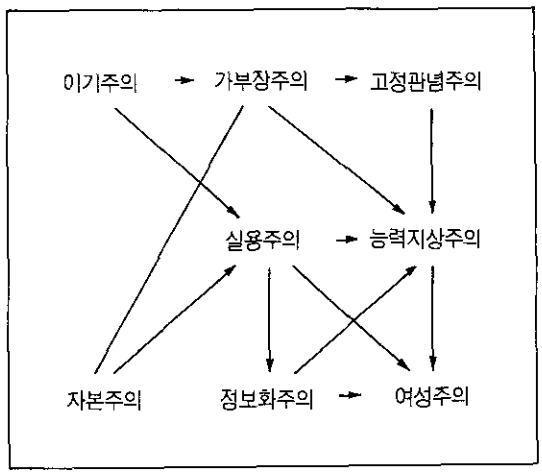
③ 고정관념주의 ; "이제 모든 여성이나 아내는 자아(自我)를 찾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왜곡된 채 획일적으로 전개되는 것 만큼, 아직도 "아버지가 그 어떤 것들에 대해 권리를 다 가지고, 게다가 책임은 꼭 그만큼 당연히 모두 져야 한다"라는 식의 우리의 병적인 집착 증세가 아직도 팽배한 고정관념적 획일주의, 체면·형식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④ 실용주의 ; 당장 내손에 잡히는 이익(효과)이나 기능(도구), 능률을 숭상하고 과제로 삼는 세태 가운데서, '소비가 미덕'이며 서양 답습의 무조건적 신(新)사고와 행동표방을 바로 여기서 지적하는 바이다.

이제 어느 누가(특히 젊은 아이들이) 아버지들의 '보릿고개나 호롱불' 혹은 '가난과 영웅적 상처'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겠는가?

지금까지 총 8가지로 제시한 「아버지 문제해결의 통과요구 준거」를 서로 관련지워서 하나의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문제 해결의 통과요구 준거>



※ 화살표가 출발하거나 화살표를 적게 받는 준거는, 더 근원적이면서도 현재 다소 간과되는 '이데올로기'이고, 화살표가 도달하거나 많이 받는 준거는, 정제된(clean)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 준거이다.

아버지 문제의 해결에 있어 통과해야 할 요구적 준거들이 위의 도표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얽히고 설켰다 해서 이 땅의 우리 모두, 특히 아버지들이 '신토불이'로써 스스로 해결하고 남겨줄 영원불멸할 그 무엇은 과연 없다는 말인가? 이에 여기서 분명히 밝힐 것은, 아버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있어, 그 문제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제한될 수가 결코 없는), 보다 더 거시적이고 상호관련적인 소위 '총체적인 해법'이 찾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버지의 문제가 단지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보다 더 근본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아버지 위기의 해결방안

중국어로 위기를 나타내는 상형문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를 잘 풀어보면 묘수를 얻을 수 있다.

危機	=	危	⊕	機
(위기)		(위험)		(기회)

이제 입달린 자라면 누구나 '아버지 위기의 시대'라고 야단법석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 해결방안의 제시에는 게으르거나 또 미봉책이라면,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전체 아버지들을 실망케 하는 처사이다.

아울러 여기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아버지 문제가 뭐 그리 대단하고 심각하단 말이냐?"라는 무지한 반응과, "아직도 멀었다. 고개숙인 아버지들의 고개가 앞으로 더 숙여 져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오만불손한(?) 반응들이 그것이다.

"대안이 없는 문제 자체는 절망이며, 대안제시가 없는 문제 제기는 그 자체가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같은 반응들에 유의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아버지들의 위기에서 '위험'이 아닌 기회로써의 해결책을 능히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준하여, 여기에서는 아버지 문제 위기에 대한 보다 더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의 허결책들을 전술한 통과요구 준거들에 각각 대비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① 인본주의(humanism) : '자본주의'라는 통과요구의 준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인간 그 자체로서 귀하게 여겨지고 평가 받는 인간적 자유와 해방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② 정신문화주의 : '정보화주의'라는 준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신윤리주의 혹은 심의주의(審議主義)가 여기에 속한다.

③ 민주주의 : '가부장주의'에 대비된 것으로서, 가장이나 남성위주의 지배가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공평하게 대접하고 대접받는 평등주의가 그 원칙이다.

④ 양성조화주의 : '여성주의'에 대비된 것으로서, 남성이나 남성주의에 무조건·극단적으로 反하는 방식이 아닌, 양자간의 화해와 연합모색을 이루어 가는 소위 양성주의(兩性主義)가 바로 이것이다.

⑤ 이타주의 : '이기주의'에 대비된 것으로서, 소위 공존주의의 원칙아래 희생·봉사의 사랑주의, 공동체·공익주의, 협동주의 등의 신성주의(神性主義)가 바로 이것이다.

⑥ 심성가치주의 : '능력지상주의'에 대비된 것으로서 능력 이전에 인간성·정신을 가치롭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원리이다.

⑦ 다원주의 : '고정관념주의'에 대비된 것으로서, 마치 동서고금을 통한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많고 다양한 문화의 발전을 전제로 하여 융통성있게 전개되는 다문화주의, 개방주의, 다양성주의 등의 원칙이 여기에 속한다.

⑧ 전통주의 : '실용주의'에 대비된 것으로서, 우리의 여러가지 전통과 유산 가운데 특히 정신적으로 본받을 만한 것들을 유지·전승하자는 것이 이 원리이다. 즉, 정신적인 유산과 윤리의식의 소위 '대의명분', 즉 더욱더 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바람직한 면의 민족주의를 계승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를 테면 겸손, 절제, 용기, 지혜, 정의, 신중성, 질서, 절약, 청결, 충, 효, 근면, 검소, 신뢰 등이 속한다.

방송수업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

김 정 숙

1. 머리말

우리는 지금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육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물론 학습 지도만을 한정하여 생각해 본 것이지만 우리의 교육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계속 답습한다면 교사가 학생의 발달 수준을 앞서 나가며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구시대의 교사가 분필과 낡은 지도안만으로 교단에 서는 현실에서는 미래의 시대적 변화에 우리 교육이 살아남을 수 없다. 교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사교육은 더욱 극성스러워질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의 우리 학생들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첨단 기기들을 수용하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교사들은 수업방식의 새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교수·학습 유형을 새롭게 고안해야 하고, 첨단 시청각 기기 및 학습자료를 다룰 줄 아는 능력과 함께 실제로 활용해야만 한다.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학습자료용으로 제작된 비디오, OHP, 실물화상기 등이 더욱 유용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자재들은 단순히 학습자료로서만 활용된다는 점이 제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시간의 수업 전체를 시청각 방식으로만 진행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필자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을 이용한 수업방식(이하 방송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방송수업의 개념 및 필요성

방송수업은 각급 학교에서 과목별 담당 교사가 직접 수업 장면을 녹화시켜 재생하거나, TV 모니터를 연결하여 수업과 동시에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 교육방송에서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은 학교마다 담당 교사가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방송수업은 무엇보다 학습효과가 증진된다. 시청각 기자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입체적인 수업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수업 전개 및 수업 시간 경감에도 한몫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가 한 시간의 방송수업을 계획하여 제작하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

하다. 학습자료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정성을 다하여 수업에 임해야 밀도 있는 수업 전개가 가능하다. 상영 결과를 교사 본인이 분석한다면 수업 지도시의 자신의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도 있다.

보통 한 교사가 동일한 학습내용으로 많은 학급을 가르치다 보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횟수로 5번이 넘어갈 경우 식상하지기 쉬운데, 이점도 보완할 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시간과 업무에 시달려, 정작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교과서 내용 분석 및 효과적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방송수업을 활용한다면 수업시간의 경감으로 보다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된다. 과중한 수업시간에 억눌려 양적인 수업시간만을 채우다 보면 개인 연수의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교사가 과거 중,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내용이나 방법으로, 또 경험이 쌓여가면 그것에 의존하여 쉽게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고정된 스타일을 갖게 된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듭한 수업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적당히, 안일함을 추구하는 허점을 가지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는 수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탈바꿈해야 할 시기이다.

3. 현 실태 분석

대부분의 학교는 방송실과 그에 따른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대부분을 안내방송이나 명상 및 점심시간의 음악 청취, 각종 비디오 학습자료 시청에 그치고 있다. 학급에 비치된 TV 모니터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비디오 카메라, 실물화상기 등의 기자재들도 거의 사장되어 일년에 한 두번 연구수업을 할 때에만 쓰인다. 기자재의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교육재정이 손실되고 있는 것이다.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청각 기자재들이 학교 행사용으로만 전락되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4. 방송수업의 운영방안

1) 운영시간

가. 정규수업 시간에 이용

필자는 보충수업에 이러한 방송수업을 이용하며 그 가치가 충분함을 느끼고 정규 수업시간에도 이용해 볼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다. 연간 수업시간표를 작성할 때 1~2주일에 한 시간 정도를 방송수업으로 미리 배당하는 것이다. 이때 주당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방송수업 시간수를 교과별로 가감하여 조정한다. 시간표는 동일 학년, 전체 학급 모두가 동일 교과를 시청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를 일주일에 한 시간 방송수업으로 안배한다면, 그 학년은 모두 국어교과를 시청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금과 같은 수업 방식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결강 시간에 운영

교사의 연가, 병가, 출장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강 시간에 이용해 보는 것이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타교과에 의해 보강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강수업은 온전하게 수업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결강교사가 미리 자신의 과목 수업 내용을 방송수업으로 준비하여 놓는 수고를 해준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결강시간의 녹화된 수업 비디오 상영은 방송수업만을 업무로 맡은 담당교사가 미리 준비하였다가, 수업시간에 재생시키면 되는 것이다.

2) 방송수업 제작 방법

방송수업을 제작할 때에는 방송시스템은 물론 실물화상기, 비디오 카메라 등 각종 기자재를 모두 동원하여 활용한다. 단순히 칠판 앞에서 수업을 전개한다면 실물화상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각종 인쇄물이나 실물 학습자료, 교과서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려면 실물화상기는 필수적이다. 실물화상기의 음성과 영상 모두를 비디오 카메라에 연결시킨다. 카메라는 교사의 수업 장면은 물론 제시하고자 하는 화상기 위의 학습자료도 번갈아 촬영함으로써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수업 전개는 물론 형성평가를 할 때에도 문제지 등의 인쇄물을 화상기에 얹어 놓고 교사가 필기구와 지시봉을 사용하여 풀어나가면 된다.

3) 학생의 방송수업 시청 요령

가. 그룹편성

학생들은 지금과 같이 칠판을 중심으로 배치된 좌석을 피하고, 되도록 소집단별로 편의집단이나 흥미집단으로 나눈다. 집단을 이루었으면 의견 수렴을 위한 대표자가 한 두 명 필요하다. 그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청취 보고서를 수합하며, 의문점을 교사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청취 보고서 작성·제출

방송수업 청취 보고서는 수업의 맥을 짚고 좀 더 신중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보고서 양식은 교과별로 달라져야 할 것이므로 담당교사가 그 양식을 제작한다.

보고서 양식에는 주제, 목표, 내용, 의문점을 적도록 해야 한다. 과목마다 특성이 있으나, 대체로 학습 내용을 상세화하여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서술식으로 많은 내용을 적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수업 진행에 열중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메꾸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의문점이나 느낌 및 소감란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사후 지도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학교의 경우 45분의 수업 시간 중 35분의 방송수업 상영과 10분의 보고서 작성 시간으로 안배되어야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4) 사전-사후 지도 방안

사전지도는 교사가 방송수업 상영 전에 내용에 대한 간략한 흐름 및 중요한 용어, 주요 관점, 줄거리 등을 일러주는 것이다. 전시학습 환기나 동기유발과도 관련이 된다. 사후지도는 학생들의 청취보고서에 적절한 대책과 반응으로 연결된다. 방송수업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미흡했다면 교사의 사후지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5) 평가

방송수업의 단점은 학생들의 반응을 매 순간 포착하지 못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방송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시청했느냐 하는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의 직접 지도가 없을 때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불성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준은 학생들이 각자 작성하여 수업 후 곧바로 제출해야 하는 청취보고서에 두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평가와 함께 학생과의 일대일 개별화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학생이 보고서에 적은 의문점을 해결해 주어야 하며 적절한 상벌 효과도 가하여 차후 학습 의욕 고취에도 힘쓰도록 해야 한다.

5. 방송수업 운영의 제한점

1) 학년별 동일 시간 상영의 문제

이 문제는 각 학급마다 과목의 진도가 다를 경우에 나타난다. 또한 한 학년의 동일 교과 담당

교사가 여럿이 될 경우에도 진도나 수업 전개 방식이 다름으로 인한 혼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점을 역으로 생각하여 방송수업을 위하여 교사가 학급별 진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또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는 방송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다보면 학급별 성취 수준의 격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TV 모니터 크기의 문제

우리나라의 한 학급 인원수는 50명이 넘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 대의 TV 모니터로 한 학급 전체의 학생들이 지장없이 시청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25인치 이상의 크기가 요구된다.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교사가 제시하는 글씨 등을 모니터 내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컴퓨터와 연결된 방송수업을 한다면 모니터의 해상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촬영상의 제반 문제

방송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촬영하는 교사나 학생 등 인적자원이 요구된다. 방송실 업무를 맡은 교사가 전담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만약 학생이 참가한다면 수업 시간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4)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지 못하는 문제점

수업장면을 상영하는 그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제시하거나 설명하고 마는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영 도중에 교사가 복도를 순회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상영 후 보고서를 참조하거나, 학급별로 들어가는 수업시간에 알아볼 수밖에 없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본인은 방송수업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몇년 전 전남 해남군의 송지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농어촌 학교로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학교로 되면서 여러 기자재를 구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던 내용을 여기에 적은 것이다.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으로 방송수업을 보충학습에 이용하였다. 그런데 방송수업의 상영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다. 평상시 수업 중에 졸음을 참지 못하거나 수업태도가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도 모니터를 지켜보며 재미있어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매일 보는 선생님이 TV 화면에 나타나니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자료들이 제시되기 때문인 듯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지금 빠른 기술변화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교육도 이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하겠기에 비록 미흡하고 모순되는 점이 많지만 바로 변화의 추구라는 면에서 하나의 작은 시도가 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진정 기쁨과 만족을 찾을 때 그 모습이 위대해 보이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수업방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숙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과 졸업
- 경기도 부천시 소사중학교 가정과 교사

특집주제

초등학생 영어과외

처음 시작한 초등 영어교육은 학교에서

정 민 표(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를 전면 금지하거나 아니면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새로운 과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란은 교육부에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을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과외 수강 금지조치 방침을 발표하면서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현상이 더욱 부각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는 '97학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87년부터 특별활동 시간과 아침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기초 생활영어를 실시해 왔으며, 2~3년 전부터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희망자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다만 금년부터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 교과로 채택됨에 따라 교육부의 원칙

에 입각한 학원과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일부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은 이미 상당수의 초등학생들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면 음성적인 고액 과외를 부추켜서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올거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교과와 달리 영어는 다양한 교재(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가 준비되어 있고, 종래의 문자 중심인 '읽고 쓰는' 교육에서 '듣고 말하는' 음성 언어 중심으로 지도하며, 시험을 보지 않고 단위 시간에 2~3개의 낱말을 반복하여 익히게 되므로 막대한 사교육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영어 과외를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인성교육과 호연지기를 길러야 할 초등학교의 아동들이 대학 입시를 겨냥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 과외에 매달리게 되면 심적 부담감만 커지고 학교 수업에 호기심과 흥미를 갖지 못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온다는 견해도 높다.

따라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어겨 가면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과외를 허용하기는 만무하고, 일부 학부모나 학원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는 힘의 논리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처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적용되는 영어 교육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한 발짝 물러서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영어학원 과외 방치해야 하는가?

백 승 호(서울 연천초등학교 교사)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영어 사용 능력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조기 영어교육이 절실히 요청된 것은 요근래의 일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성장·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과정은 어휘 확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고, 언

어교육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1982학년도부터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1995학년도에는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선택적으로 지도해 왔으며, 1997년도에는 3학년부터 정규 교과로 도입하여 연간 68시간씩 점진적으로 4, 5, 6학년까지 영어를 지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과 수업이라는 새롭고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실시로 인하여 영어 학원, 과외수강 인원이 초등학생의 49%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과외 열풍은 학교 교육의 파행 운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성 함양과 타고난 소질,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날 학교교육의 획일적이며 경직되어 있던 운영체제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교사와 학부모간의 불신의 벽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적인 욕구를 학교 내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학원 등 기타 사교육에 의존했던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초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지나친 성과 위주의 영어교육과 영리 추구에 치우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하여 교사나 학부모들이 다 같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밝힌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어능력과 수업기술을 갖춘 교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어과 교과용 도서로 검인정 도서의 발간과 함께 교재 활용에 관한 교사의 사전 연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영어수업을 위한 기본 시설 및 교수·학습자료의 확충이 시급하며 시청각 교육매체가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넷째, 초등학교 영어 지도에 관한 학부모의 계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수 인력을 계속 양성하여 지도 경험을 축적해 왔고, 시청각 교육매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초등 영어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도록 영어수업을 공개하여 교육과정을 이해시키고, 특별활동과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어린이가 능력별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놀이와 노래, 역할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등학생의 심리적, 개인적 특성과 신체적 발달과정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지도의 적임자이며 지도 역량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한 술 밥에 배 부르랴.'라는 속담이 있다.

영어교육에 대하여 공연히 두려워하거나 성급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교육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알차게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불신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학교를 떠난 교육을 교육의 장인 학교로 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김 명 신(도성초등학교 학부모,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상임운영위원)

최근 초등학생의 영어 과외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1주일에 2시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과외가 금지되고 4학년 이상은 과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 중 개인 교습은 되고 학원은 안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는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를 대비하는 방법은 자라나는 세대가 모두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국민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 방법이 공교육을 통해서건 사교육을 통해서건 말이다.

이번 영어 과외 논란에 대해 학부모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지키지 못할 규칙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같은 세상에 배우겠다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하여 영어 과외의 허용이냐 금지냐 두 가지로 선택해야 한다면 학부모로서는 당연히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3학년이든 4학년이든 학교에서 배우건 안배우건 상관없이 사교육을 통해 영어 일등 국민이 되는 불행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어 과외의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개인교습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학원이나 학습지로 대신한다.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영어 과외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인회화, 영어학습지, 영어학원 등을 돌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토막영어만 남은 채 중학교에 가서는 문법에 치중하는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으로 변한다. 이번에 미국교육평가원이 토플시험 성적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영어 실력이 북한, 마카오, 일본, 미얀마와 함께 중하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은 놀이터 대신 학원으로, 어른들은 잠잘 시간을 쪼개가며 회화학원으로 향하고 있는 데도 그렇다면 이는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부모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때에 초등학교에서 회화중심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교육체제를 무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강사가 단기 교육을 받았으니 실력이 의심스럽다, 교재를 너무 급작스레 만들었다더라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공교육에 의지하는 것뿐이다. 부모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수 없다.

이런 때에 학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학년 영어 수업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 수업의 내용과 수업의 질에 대해서 확인시킬 것을 학부모들은 희망한다. 그리고 단기간이라도 어학연수가 영어 익히기에 효과적이라면 교육부는 공교육 예산으로 각 시·도에 어학원을 설립하여 모든 학생이 1주일씩 입소하여 원어민 교사와 숙식을 함께 하며 일상어를 영어로 쓰는 단기체험을 하는 영어말하기, 듣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의한다. 즉,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 학부모에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 차제에 사교육을 뿌리뽑을 교육부의 소신과 분발을 기대한다.

바람직한 영어교육을 위하여

이 선 영(숭인초등학교 학부모, 참교육실현 전국 학부모회 회원)

"굿모닝 맘", "굿모닝 데드", "하이 민호" 다섯살박이 작은아이는 3학년 형님 옆에서 열심히 영어 테이프를 따라한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시끄러울 정도이다. 외국인 강습에서 학원, 학습지에 이르기까지 90% 이상이 영어과외를 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집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인성·창의성을 높여주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경우 이번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수업이 영어와의 첫 만남이다.

물론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있었다.

3월 초, 열심히 듣고 따라하게 해줄 영어교과서와 테이프를 기다리던 터에 '3학년 영어 학원 과외금지' 조치가 발표되었다. '과외망국론'을 믿고 있던 터라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했었다. 그러나 인쇄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 발표의 비현실성이나 허구성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당장 학원연합회측에서 들고 일어났고 실제 전혀 개의치 않고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다. 특히 필자가 나가고 있는 상담실로 문의전화가 걸려 왔는데 외국에서 4년간 살다와서 아이가 영어시간에 지루해 한다는 것이며, 지속적인 영어학습을 위해 수준에 맞는 영어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부 조기영어교육을 시킨 학부모가 도리어 학교에서 영어 발음을 망칠까봐 우려한다는 얘기와 일맥 통한다. 두 가지 경우가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편차를 어떻게 공교육이 담아내야 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네 이름이 뭐니?"하면 "한국이름이요?"한다는 국적없는 교육을 무분별하게 양산시키고 있는 일부 학부모와 영어교육 관계자들의 자성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교육정책이 올바로 서는 것이 급선무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최근 교육개혁위원회가 「과외 전면허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마치 80년 「과외금지 조치」, 89년 「과외 일부 해제 조치」를 생각나게 한다.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정책으로 '과외를 사교처럼 믿는 광신도의 나라'라는 국제적 오명을 얼마나 벗을 수 있을지 의아스럽다. 최근 모신문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오로라 공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레를 모두 없애버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물레에 찔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비유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다시말해 과외 금지·허용 논란은 의미가 없고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의해 과외유혹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영어과외도 똑같은 이치일 것이다.

이미 정보통신의 발달, 해외여행 등으로 하나의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이나 시기상 졸속 시행된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차피 실시되는 상황이라면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올 수 있는 폐해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영어과목의 추가로 3학년 담당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아졌다고 알고 있다. 특히 게임·놀이식 진행으로 갖추어야 할 학습도구도 많다. 업무를 줄여 줄 수 있는 학교측의 배려와 교육부 차원의 다양한 연수 기회의 확대, 그리고 원활한 학습진행을 위한 학부모들의 협조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졌으면 하는 것은 영어로 인한 평가 스트레스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영어테이프를 들기도 바빠 국어나 수학 등 타과목에 소홀해지는 게 사실이다. 아직은 왜 학습해야 하는지 자기동기가 없는 우리 아이들, 어설프게 시도된 영어교육으로 영원히 등돌리는 영어가 되지 않기 위해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에서의 세심한 배려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학부모에게는 환각제, 학교교육에는 고엽제

이 재 희(인천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교육부가 지난 2월 서울 시내 22개교 초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등학교 과외비 현황'에 따르면 학생들의 47.5%가 영어 과외 교습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수강료는 58,900원으로 집계되었다. 또 영어 과외 교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 52.7%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영어 교육 실시를 발표한 이후에 과외 교습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초등 영어 교육 실시로 인해 오히려 영어 과외 교습 바람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97학년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과외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초등학교 정규 교과에 대한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이다. 이 금지 조치의 세부 사항을 보면, 내년에는 3, 4학년, 99년에는 3, 4, 5학년,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3, 4, 5, 6학년의 모든 학생이 학원에서 영어 과외 교습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학생들에 의한 개인 과외는 허용되어 있다.

초등 학생의 영어 과외 교습 현상에 대한 원인은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현상은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등 영어 교육은 학부모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받은 영어 교육과는 성격과 목표,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일반 목표는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3~6학년에게 제시될 교육 내용은 기초적인 의사 소통 기능(인사하기, 사과·응답하기, 감사·응답하기 등)과 극히 제한적인 500단어(3, 4학년에서 각 100단어, 5, 6학년에서 각 150단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도 대화, 게임, 역할극 및 노래 등으로 편성되어 아동들이 놀이를 하면서 듣기·말하기 위주로 영어를 익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영어 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이 이렇게 평이한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또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급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육 태도

를 상상해 보자. 영어 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 수업 내용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흥미를 잃고, 집중을 할 리가 없다. 또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정상적인 수업 진도에 따라 교육받아야 할 학생에게 친절하게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의 학생들을 위해서 더 앞선 내용을 가르치기 쉽다. 그렇다면 교사는 '정상적인' 학생들에게는 직무유기를 하는 반면에 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이끌려 가면서, 학교교육은 점차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초등 영어 과외 교습은 영어 의사 소통 능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우려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한국인 교사의 서툰 발음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를 초기부터 망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학원이나 가정에서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면 영어다운 발음을 익히면서 쉽게 배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인이라고 모두 다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없듯이 원어민이라고 모두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영어 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 발음이 다소 서투르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영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영어 연수를 통해서 지도 능력을 갖춘 초등 교사에게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셋째, 초등 영어 과외는 학부모의 관심 부족과, 금전적 투자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태도에서 기인한다. 과외 교습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일시적으로 진정시켜 주는 환각제일 뿐이다. 현재 각종 방송을 통해서 우수한 초등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EBS의 'Hello, English', '초등 교사 영어 연수' 및 '초등 3학년 영어', DSN의 'Hello, English', 어린이 TV의 'English Fun, Fun', 다솜의 'Talk, Talk English', My-TV의 'English, Hop'과 'English 300' 등이 있다. 따라서 자녀의 영어 과외 교습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TV를 보면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한편 학원에서의 영어 과외 교습은 금지하고 대학생에 의한 개인 지도는 허용하는 교육부의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 학원 과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개인 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지역과 사회 계층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교육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 과외교사는 초등 영어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도 초등 학생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생에 의한 개인 교습도 금지해야 마땅하다.

끝으로, 모든 개혁은 현실과 유리되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의 현실적 요구에 따라 과외 교습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 파행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초등 영어, 체육, 음악, 미술 강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학원에서 채용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는 학원에는 강력한 제재(인가 취소와 체형 또는 벌금형)를 가하는 방안이 그 예방 장치가 될 수도 있다.

한국교육 논문 공모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전문학술지인
<한국교육> 제 24 권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내용 : 한국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서 타 학술지에
게재 사실이 없는 논문에 한함.

◈ 마감 : 1997 년 6 월 30 일

◈ 매수 : 논문은 200 자 원고지 100 매
내외 분량으로서 한 편당 2 부 제출
(디스켓 포함, 한글 2.1 이상으로 작성)
및 영문요약(A4용지 5 매 이내) 첨부
(더블스페이스 타자)

◈ 제출처 :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조정팀
<Tel : (02)34600-210, 211>

◈ 기타 : 제출된 논문은 본원 연구기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놀면서 배우는 학교 밖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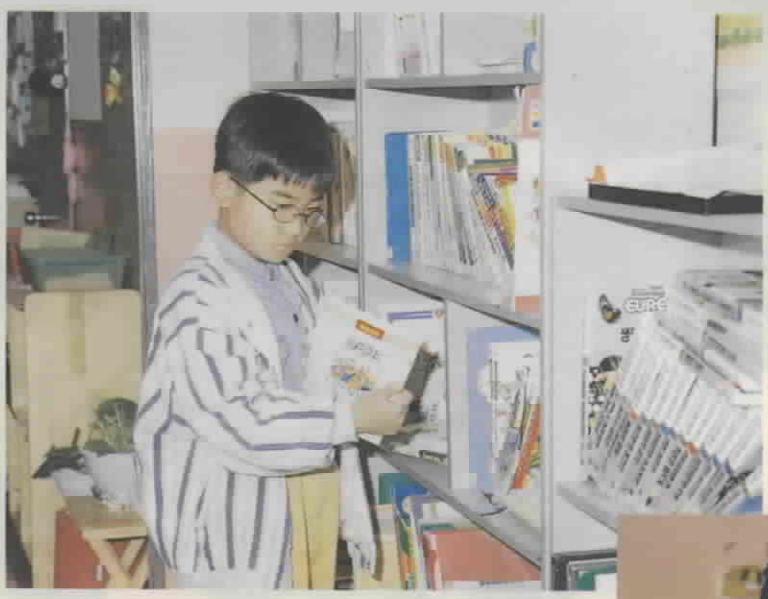
성남의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를 찾아서

이 종 태(본원 연구원)

12시 반이 지나 1시가 가까워오면서 책가방을 둘러멘 아이들이 하나 둘 문을 열고 들어선다. 스스럼 없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먼저 온 아이들과 잡담을 나눈다. "자, 모두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선생님의 말에 우르르 세면장으로 달려가 대강 씻은 아이들이 이동식 탁자들을 옮겨 식탁을 만든다. 아이들이 웅기종기 둘러 앉자 선생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과 국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메뉴는 하이라이스. 단촐한 식탁이지만 아이들은 모두 맛있게 먹는다. 깨끗이 밥그릇을 비운 아이들은 뒷정리를 하고, 잠시 저희들끼리 자유롭게 놀다가 2시가 되자 다시 삼삼오오 둘러앉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른바 러그미팅. 하루 동안의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꽃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성남시 중앙시장 한가운데 있는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광경이다. 이 학교는 보통의 학교 수업을 끝내고 오는 아이들에게 오후 내내 다채로운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이다. 오전에는 10여명의 취학전 아동도 가르치지만 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30여명의 아이들이 오후 6시나 7시까지 재미있게 놀면서 배우는 장소이다. 원장은 한신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김종수 목사. 부부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하며 같은 학과 출신의 전임 교사 두 분과 여섯 분의 고정 강사, 그밖에 여러 분의 보조 교사와 자원 교사가 땀을 흘리고 있다.



김종수 목사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지난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공과 신앙적 소명에 따라 같은 학과 동기들과 함께 은행동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놀이방을 시작한 것이다. '93년 초 이들은 같은 뜻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 교육을 통한 사회 선교를 기치로 내걸고 기독교사회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새롭게 '푸른교실'이라는 공부방을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방과후에 갈곳 없는 저학년 아이들이 오락실을 기웃거리다가 큰 아이들에게 맞거나 나쁜 길로 접어드는 것을 목격하고 방과후 시간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시급함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94년 7월에는 놀이방을 폐쇄하고 저학년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95년에는 장애아와 정상아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난 해 3월 새롭게 공간을 확보하여 현재의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를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취학전 어린이들(5~7세)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 세상'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로 이루어져 있지만, 후자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소개 책자에서는 학교의 특징을 '공동체 지향', '생명 존중', '평화 추구', '열린교육 지향'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 놀이처럼 재미있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아이들의 반응에서 나타나는데,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으면 놀다 왔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말 놀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피아노, 미술, 영어, 주제탐구 활동, 컴퓨터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고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교과 학습도 한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업 하나하나가 지겹지 않고 오히려 신나는 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이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기초로 한다는 데 있다.

한 예로 피아노나 미술과 같은 특기 수업을 보자. 보통의 학원에서는 철저한 기능 습득이 위주가 되지만, 이 학교에서는 기능보다는 아이들의 음악 또는 미술에 관련된

"난 햇빛도 살리고 물도 살리고 너도 살린단다."
아기 소나무가 말했대요.
소나무가 클수록 바위는 점점 부스러졌지만,
바위는 슬퍼하지 않았대요.
이제 싱싱한 소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 이야기 「바위와 소나무」 중에서 -

감수성을 키워주는 데 주안점을 둔다. 체르니 몇 번을 이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며, 마음 내킬 때 간단하게나마 반주를 하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재와 방식이 사용된다. 그림이나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교 아이들은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리고 글을 쓴다. 그 덕에 국내 유명 문인들이 심사하는 부스러기 선교회 주최의 글잔치에서 상을 독차지하다시피 한다고 한다. 몇 년 전 심사위원들이 배꼽을 잡으면서 으뜸상을 준 김목사의 6살 짜리 아들이 쓴 글을 보자.

우리 반 선생님은 힘이 세다. 머리가 길다. 안경을 쓰셨다. 발도 있다. 다리도 있다. 다 살이 쪘다. 찌찌도 있다. (제목 : 우리 선생님)

그런데, 이처럼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표현력이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급격하게 변질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글을 누군가 보고 평가하고 점수 또는 서열을 매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또하나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글을

참세상을 열어가는 꿈나무로 자라자.

쓰도록 하는 비교육적 정책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들에게 '금연'을 주제로 글을 써 오라고 하더란다. 억지 춘향식의 독후감 숙제도 글과 책을 멀리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 학교의 특징적인 수업은 주제 탐구 활동 시간에 하는 프로젝트 학습이다. 3~6학년 아이들이 최근 하고 있는 내용은 봄을 주제로 한 '마인드 맵'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정된 '봄과 식물', '봄과 생활', '봄과 날씨'이다. 아이들은 각 모둠별로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토의하고 각자 흩어져 조사활동을 벌이는데, 같은 주제라도 학년별로 이해와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예컨대 봄날 중 해가 비치는 날을 저학년 아이들은 막대 그래프로 그린다면 고학년 아이들은 퍼센트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치기도 한다. 슬쩍 본 3학년 아이들의 공책에는 '연구계획서'라는 제목에 봄과 날씨에 관해 연구할 내용, 방법, 일시, 참고 자료 등이 제법 그럴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공책과 함께 책상에는 백과사전과 다른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 학교의 프로그램은 붙박이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바꿔가기 때문이다. 한 예로서, 지난 해에는 NIE(신문을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과 컴퓨터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NIE는 직접 신문 만들기로 발전하였고 DOS와 같은 초보적 프로그램을 배우던 컴퓨터 시간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시간으로 발전하여, 결국 요즘에는 이 둘을 결합해 컴퓨터로 신문 만들기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여기에 싣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규 프로그램 외에 틈틈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뜨개질이나 스킬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흥미 있어 하고 또 잘한다고 한다. 아이들과 아이들 또는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에 친밀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속삭임 공책'은 인상적이었다. 수요일에는 특별활동을 하는데, 이때는 주로 외부로 나간다. 초봄에는 롤러 스케이트장에 갔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는 쑥도 캐고 시장도 보면서 자연과 사회를 체험하게 하였다. 앞으로는 성남 주변에 있는 산(작년에는 강)을 관찰하게 할 예정이다. 토요일에는 특별교실로 풍물과 연극 교실을 열고 있는데, 특히 연극 교실을 통해 익힌 연극은 매년 어린이날에 성남시민단체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어린이날 큰잔치에 출품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학교는 언론의 보도와 그가 지닌 장점들 때문에 이미 널리 소문이 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좀 더 숨통이 트이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멀리서도 보내기를 원한다. 이들 중에는 특히 교사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경영 상태는 큰 폭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임대료와 차량 운영비 등 지출이 많지만, 원비는 보통의 예능 학원이 한 과목 교습에 대해 받는 수준 남짓하다. 전임 교사의 월급은 낮은 수준으로나마 주고 있지만, 김목사 부부의 월급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일부 학부모도 있지만, 처음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출발하였기에 차마 올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한 가지 희망은 현재 80평 정도의 비교적 넓은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러볼수록 뚜렷하게 드는 생각은, 이 학교가 단지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시간을 돌보는 교실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또하나의 학교'이자 '또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여기에서 숙제나 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습득하지 못하는, 그러나 본래는 학교교육이 제공했어야 하는 값진 경험들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학교를 하나만 다녔으면 좋겠어요."라는 한 아이의 고백은 기존 학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기에다가 이 학교는 저학년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 또는 공동체적 생활과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보호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욕심으로 학원과 영재교육 기관 등을 순례하면서 정서적으로 황폐해진 아이들이 얼마 안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비록 산수 맑은 전원의 대안 학교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도시형 '대안학교'의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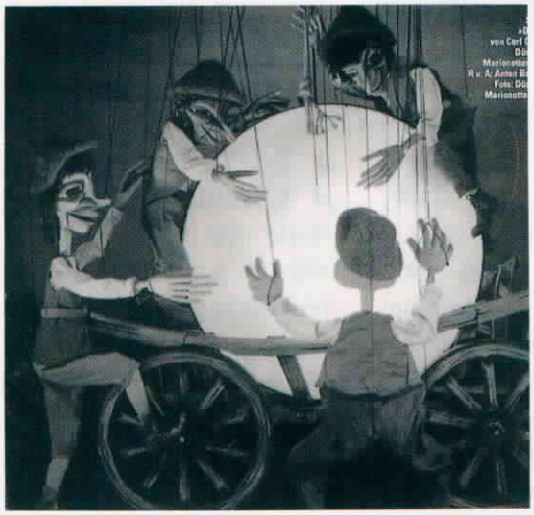
그러나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가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잡한 시장 한가운데서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이 전무한 상태에서 교사들에게 언제까지 박봉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아직은 실험적인 이러한 학교가 장차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꼭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가 아니더라도 학교와 가정 사이에 둘을 이어주는 새로운 기관이 요구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원은 기능 습득과 경쟁 수단을 제공하는 것 외에 정서적으로 주는 것이 거의 없다. 새로운 기관은 교육적인 것과 가정(공동체)의 정서적인 것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독일의 '호르트(Hort)'처럼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과후 학교가 정부 지원하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한다(지난 해 여름 김목사 부인이 직접 호르트를 견학하고 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를 또하나의 학원으로 만드는 방과후 교육활동 정책보다는, 이제 학교 밖의 방과후 학교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형극 이야기

하 혜 자
(인형극단 '해바라기' 대표)

"신이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였다면,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닮은 신, 인형을 만들었다."



'인형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곤란한 이유는 인형은 인간과 너무 가깝고 친숙하기 때문이다.

문화나 예술에 관련된 역사책을 찾아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공통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매우 많은 인형이 존재하여 왔음을 알게 되는데, 물론 인형극의 인형도 그중의 하나이다.

인형은 '인간의 형태'를 본떠서 만들었지만, 인형이 단지 인간의 육체를 의미없이 모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흙으로 만든 인형에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나 출산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인간 자신의 생활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인형은 언제나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인간의 외적 형태뿐만 아니라 인간

의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까지를 표현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인형극이란 '인형을 움직여서 연기하는 극'이다. 그렇다면 '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극' 또는 '연극'이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생활과 생활 속의 정서를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종합예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형극의 '극'을 이해하면 틀림이 없다.

다시 설명하면, 인형극은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인형에 언어를 포함시켜, 인형이 직접 이야기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 속 세계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듣게 하고, 또 갈등을 느끼게 하도록 연기하는 연극이 인형극이다.

인형극을 연기하는 데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 기술이란 인형의 움직이는 구조를 이용하여 관객에게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형극의 인형은 관절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형이 움직이는 구조의 발달에 의해 인형극이 발생한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인형극이 등장한 최초의 연대는 그리스 시대이다. 물론 그 이전에 이집트에도 관절로 움직이는 인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형태였는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스 시대에는 야외극장에서 연극이 상연되었으며 작은 극장 무대에서는 인형극을 볼 수 있었다고 소크라테스는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인형극은 대철학자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매우 풍자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인형극이 보여졌는가는 지금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세 시대가 되어 종교적 힘이 강화되고 민중의 생활은 극히 어두워졌다. 때문에 과거처럼 풍자적 인형극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적 인형극이 성행하였다. 당시 일부 성직자들이 너무나 인형극에 열중한 나머지 종교회

의에 의해 교회에서의 인형극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는 줄인형극(마리오넷)이 많이 공연되었고, 마리오넷의 의미를 성모 마리아의 애칭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로써 줄인형극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승천, 천사가 등장하는 종교극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마땅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후 이탈리아를 선두로 하여 인간의 본래적 행복과 희망을 추구하는 흐름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때가 르네상스 시대이다. 인형극에도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지금껏 생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인간의 일상생활을 극의 소재로 선택함으로써 재미있는 희극(코메디)이 등장하게 된다.

꼬메디아 · 델라르떼 라고 부르는 극이 출현하면서 다양한 성격의 인간이 인형극에도 반영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삐에로」도 이때 등장하였다. 그 삐에로의 동료중 한 사람이었던 「폴치넬라」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었는데, 극중에서 호탕하고 난폭한 성격으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그는 이탈리아 유랑 연예인의 손에 이끌려 유럽 각지에서 상연되어, 유럽 모든 나라의 민중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 오늘날 영국 인형극의 최고 대표자인 「펀치」는 폴치넬라가 「펀치」로 변화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폴리시넬」이라 부르는 인형이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도 관중의 사랑을 받았다.

또 덴마크에서는 「포리치넬라」라 부르는 인형이 안델센의 동화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후 프랑스의 폴리시넬은 1808년 「기뇰」이 등장하면서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기뇰은 낙천주의자로 순진, 명랑하며 서민의 대변자로 권위와 부자들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워 이기면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풍자하였다.

이 프랑스의 인형극은 다시 러시아로 건너가 「페트르슈카」를 탄생시킨다. 이 인물 역시 꼽추이며 순진, 명랑하고 재치가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잘 대처해 나간다.

또, 독일에서는 16세기 서민 연극의 희극적 인물이었던 「한스뷔스트」가 인형극의 익살 광대로 변신하여 등장한다. 괴테의 파우스트 역시도 전설의 인형극 「파우스트」에서 기초되었으며, 괴테 자신은 자기집에 인형극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사당의 「꼭두각시놀음」도 유랑예인집단에 의해 연희된 유럽의 인형극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20세기말의 시점에서 보면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인간의 움직임만을 그대로 흉내내던 인형극의 형태는 변화되고 있다. 인형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내는 인형극, …

다시 말해 시청각적이고 상징적인 종합예술로서, 인형극이 전세계 인형극 예술가들에 의해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 레이더

북한 교육의 위기와 우리의 과제

한 만 길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긴급 소식 : 북한, 우간다, 나이제리아, 이디오피아, 소말리아에 식량 지원"

이 소식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기사 제목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상황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몇 나라 실정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을 다녀 온 사람들이 전하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하루 식량 배급량은 100그람에 불과하고 그나마 4, 5월이 되면 바닥날 정도이다. 6세 이하 어린이 240만명 가운데 25%가 만성적인 영양 결핍 상태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WFP 사무국장 캐서린 버티니)

"들에서 난 풀, 말린 야채, 나무껍질 등 식용가능한 것은 모조리 먹고 있다. 환자들은 영양실조로 인한 단백질과 비타민 결핍증에 걸려 있다. 이같은 식량부족 상황으로 10살 소년이 7살처럼 보이고, 5살 소녀가 3살 정도로 보인다."(국제적십자사 아태지역 담당관 다나카 야스오)

"북한 어린이들 상당수가 영양실조로 심각한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속적인 영양실조로 인하여 저능아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유진벨 재단 이사장 스티브 린튼)

"풀뿌리를 뽑아 끓여 먹고 어린이들이 흙을 집어 먹고 설사를 해도 약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연변 과기대 김진경 총장)

북한 교과서와 열악한 교육 여건

이토록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최근에 입수한 북한 교과서는 그야말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얼마나 위기이며 그로 인하여 교육여건은 얼마나 열악한가를 한 마디로 말해 주고 있다.

먼저 교과서의 외형을 보면 표지와 지면의 인쇄 상태는 말할 수 없이 조악하여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지질은 재생을 몇 번씩 거듭한 용지로서 우리가 60년대 이전까지 사용하던 마분지와 비슷하다. 재생을 거듭한 용지라서 거무스름하고 손가락으로 만지면 느껴질 정도로 요철이 심하다.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마분지는 벽지의 초벌지로 쓰였는데 요즈음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도 라면상자나 만들 수 있을 용지라고 보면 맞을 듯 싶다.

인쇄된 활자 상태는 김일성, 김정일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든 교과가 흑백이고 등사 잉크와 같은 저질의 잉크를 사용하였다. 잉크 농도가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잉크 농도가 흐리다든가 고르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잉크 부족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교과서 지면에서 사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간단한 삽화만 간혹 눈에 띌 정도이다. 더욱이 교과서 지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유물 삽화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김일성, 김정일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다. 이들 교과서의 용지는 질낮은 갱지이고 글자는 확연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사진과 삽화가 다른 교과서에 비교해서 많을

뿐만 아니라 칼라 부분이 많다. 하지만 사진과 삽화의 칼라가 흐린 것을 보면 물감 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겠다.

내용상으로 볼 때 북한 교과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부터 개편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개편의 핵심은 김정일 우상화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1996년 초에 새로운 교육과정 편제를 확정하였다. 이 교육과정 편제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과목 명칭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다. 즉 김일성 과목은 종래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고등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으로서 김일성에 대한 호칭을 "원수님"에서 "대원수님"으로 한단계 승격시켰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인민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인민학교)으로 김정일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에서 "원수님"으로 격상시켰다.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서도 김정일 우상화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다. 95년 이후에 발행한 모든 교과서에서 김일성을 "대원수님"으로 바꿨으며, 김정일을 "원수님"으로 바꿔 놓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교시'나 예화는 약간 감소한 반면에 김정일의 '말씀'과 예화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상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침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곤경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이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교육의 위기

여기에서 북한 교육의 위기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침체로 인한 외형적인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사상 교육의 강화로 인한 내면적인 의식의 경직성과 폐쇄성에 있다. 북한의 교과서 상태는 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최근에 탈북 귀순한 인사들은 현재 북한에는 거의 모든 물자가 고갈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자는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 두세 명의 학생에게 교과서 한 권씩이 공급되는가 하면 학용품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학 기숙사에는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학생들이 각자 식량을 구하러 떠났기 때문에 학교문을 닫게 될 상황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현재 북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종이는 거의 새까만 재생지이고 필기도구는 만년필 또는 펜촉으로서 물감을 타서 쓰는 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입수한 교과서를 지난 80년대 말에 귀순한 유학생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형편없이 저질인 교과서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는 몇 차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리고는 그가 내 뱉은 한 마디는 "갈 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라는 말이었다. 지난 70, 80년대에 발행한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교과서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으니 그의 탄식도 이해할 만하다.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북한의 교육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북한이 우리와는 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웃이면서 우리 동포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위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위기를 바라 보면서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자신이 통일에 대비하려면 의식적인 태세는 물론이고 제도적인 정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통일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실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과제는 시급하다.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의연하고 확고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완벽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우선 북한 교육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학생과 주민들을 우리 민족으로 통합하고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통일교육은 북한 사회의 실정을 정확히 알리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침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또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과 궁핍한 생활의 실정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포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정권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도와 주고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화합할 상대이다. 북한 동포들이 우리 품안으로 찾아 들 때 우리는 그들을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써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들을 언제라도 받아 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포용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화해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무마시키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북한 당국에게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금처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동포로서 도와 주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젠가는 우리의 동포애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동포애가 점차적으로 퍼져 나갈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져 왔던 적대감과 대결의식은 얼음 녹듯이 녹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 지원도 절실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 북한 학생들을 허기와 질병으로부터 구출해야 할 것이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필과 종이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지원은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화해의 메시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만약 우리는 배불리 먹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면서도 도와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한만길

-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강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통일교육연구팀장
- 「교육이란 무엇일까」,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 연구」 외

* 이 연구는 필자가 황혜정, 김영애, 박영애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CR 95-26-1)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초등학교 수학과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CAI 프로그램 연구 개발

황 혜 정(본원 부연구위원)

컴퓨터 보조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과마다 여러 유형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고, 문제 해결에 관한 CAI 프로그램도 차츰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문제 해결에 관한 CAI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 시간에 문제 해결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 즉 교사가 문제에 관련된 정보, 원리,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제시하며, 그 문제를 푸는 과정과 방법을 일러주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김동식, 1984). 따라서, 학습자의 단편적인 지식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자 통제 방식에 따르는 문제 해결형 CAI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원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CAI 프로그램 『이야기 속의 수학』(총 7편)을 개발하였다.

「이야기 속의 수학」 프로그램 소개

『이야기 속의 수학』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은 안내적 발견학습 방법에 따라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배우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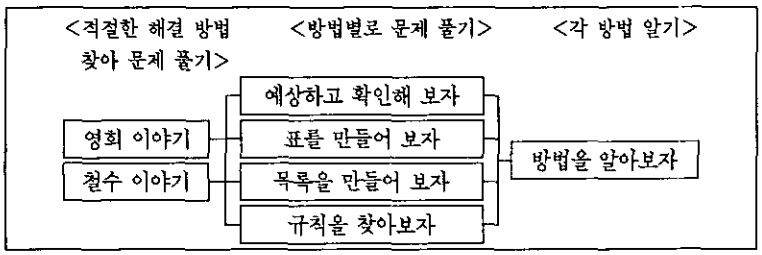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이 수학 학습의 의의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되었으며, 문제 해결 과정으로 Polya의 문제 이해, 계획 수립, 계획 실행, 검토의 4단계를 기준으로 하였고, 해결 방법으로는 예상과 확인, 표 만들기, 목록 만들기, 규칙성 찾기의 네 가지 방법을 다루었다. 또, 문제의 유형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학습자 나름대로 네 가지 해결 방법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풀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1편), 방법별로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4편),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고).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

「영희 이야기」와 「철수 이야기」 프로그램에서는 각각 영희와

<그림 1> 「이야기 속의 수학」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철수를 주인공으로 하여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화면에 이야기와 그림으로 전개해 가면서 이와 관련된 수학적 문제를 하나씩 제시한다. 두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이야기(사건)는 모두 16개이며(표 1 참고), 이 중에서 '영희의 생일'에 관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수학 문제를 그 예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철수 이야기	영희 이야기
멍게 선생님	팬더는 먹보
반장 선거	컴퓨터 반
정민이와의 약속	공 색깔 맞히기
좋아하는 과목	가위 바위 보
생일 선물	커튼 속의 비밀
영희의 생일	수빈이네 집
수학 시험	화단 장식
축구 대회	사랑의 봉지

<표1> 「철수 이야기」와 「영희 이야기」 프로그램 속에서의 주제(제목)

오늘은 영희의 생일이다. 철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평상시에 물만 대충 끼얹고 말던 목욕도 20분이 넘도록 하고, 누나의 로션도 듬뿍 발랐다. 그동안 아껴 두었던 청바지와 청조끼도 꺼내 입었다. 철수는 그 옷을 찾느라 옷장에 있는 옷들을 마구 헝클어 놓았다. 철수는 부엌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쏜살같이 집을 빠져 나왔다. 영희네 집에 들어선 순간, 철수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렇게 넓은 아파트도 있구나.'

철수는 그동안 잘사는 티를 별로 내지 않고 얌전하고 겸손하게 행동해 왔던 영희가 더 좋아졌다. 영희는 아주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데렐라와 같았다. 영희 엄마와 아빠는 모두 좋으신 분들 같았고, 영희의 쌍둥이 여동생도 아주 귀여웠다.

초대받은 아이는 모두 12명이었고, 그 중 남자는 5명이었다. 자리를 정할 때 철수는 영희 옆에 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영희는 수빈이 옆에 앉았다.

'역시, 영희는 수빈이를 좋아하고 있구나.' 철수는 마음이 울적했지만, 오늘은 영희 생일이니까 영희를 위해서 즐겁게 놀다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곧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다. 아이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영희는 촛불을 껐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각자 가져온 선물을 영희한테 주었다. 철수도 떨리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었다.

영희는 철수의 선물을 풀어 보고, 철수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였다. 철수는 아무래도 책이 다른 아이들이 준 학용품이나 인형보다는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이 선물을 모두 전하자 풍보 순자는 케이크를 잘라 먹자고 하였다. 그러자 영철이가 목에 힘을 주며 말하였다.

"어떻게 우리만 먹어? 영희 부모님께도 드리고, 동생들도 줘야지."

"너, 오랜만에 올바른 소리한다."

늘 잘난 척하는 영철이를 미워하는 철수는 빈정대며 말하였다.

"내가 언제 틀린 소리한 적 있어?"

영철이는 발끈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수빈이는 그만 두라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말씨름 그만 하고, 어떻게 자르면 모두 한 조각씩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영희는 케이크의 중심을 지나도록 직선으로 여러 번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말하였다.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데 몇 번이나 잘라야 할까?"

【문제】
원모양의 케이크를 크기에 상관없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직선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케이크가 17조각이 되게 하려면 최소한 몇 번을 잘라야 할까요?

<표 2> 「철수 이야기」 프로그램 중 '영희의 생일' 이야기와 문제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답을 바로 쓸 수도 있고, 네 가지 해결 방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풀 수도 있다. 다만, 문제의 답을 바로 쓸 경우 한 번의 기회를 주고, 학습자들이 정답을 쓰지 못하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풀도록 하였다. 또, 여기에서 각 방법별로

문제 풀기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문제 이해하기' 부분에 관한 학습 활동은 생략되었으며, 각 해결 방법의 전개 방법은 각 방법별로 문제 풀기에 관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2. 방법별로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

「예상하고 확인해 보자」, 「표를 만들어 보자」,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규칙을 찾아보자」는 「영희 이야기」 또는 「철수 이야기」 프로그램의 문제들을 풀어보고 학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림 2, 3, 4, 5참고).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은 각 해결 방법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를 각각 10개씩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문제의 내용을 먼저 읽어 보고 풀고 싶은 문제를 선택하여 풀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프로그램에서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이해하는 부분과 문제를 풀어보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문제를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학습자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조건을 컴퓨터 상의 빨간색 펜과 파란색 펜을 이용하여 직접 찾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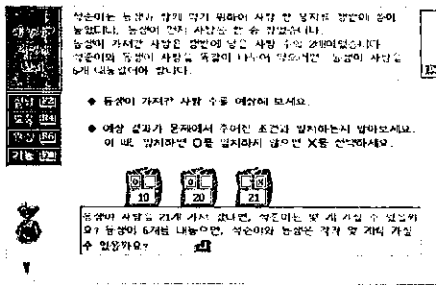
이 부분에서의 답 입력 기회는 2회로 제한하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것을 알려줌으로써 해당되는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과정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네 프로그램 모두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마다 '문제 이해하기' 부분을 마치고 나면 각각의 해결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 네 가지 프로그램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습자들의 원활한 학습 진행을 위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오류에 관련된 도움말을 적절한 상황에서 몇 차례 제시하고 있으며, 각 해결 방법을 익혀 문제를 푸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기(3회 오답 후)가 되면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정답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3회 오답 후 정답(즉, 예상 결과, 완성된 표, 완성된 목록, 또는 규칙성)을 보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스스로 각각의 해결 방법을 파악할 때까지 정답을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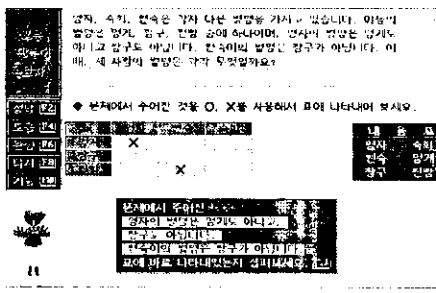
3.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

「방법을 알아보자」는 각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학습하고 나서도 해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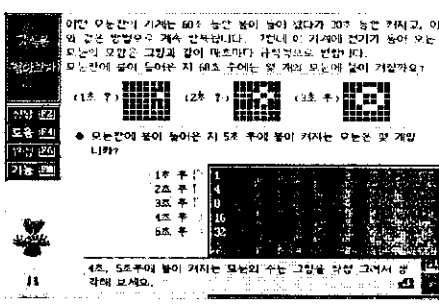
<그림 2> 「예상하고 확인해 보자」 프로그램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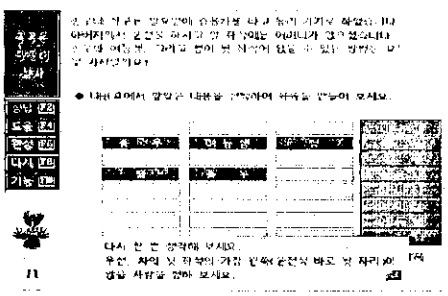
<그림 3> 「표를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의 예



<그림 4> 「목록을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의 예



<그림 5> 「규칙을 찾아보자」 프로그램의 예



로그램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전략 설명, 발문이 있는 예제를 통하여 예상과 확인, 표 만들기, 목록 만들기, 규칙성 찾기 등의 방법을 자세히 다루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이러한 해결 방법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에 따라 다른 적절한 발문이 요구되므로 이에 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방법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보기 문제는 각 전략마다 한 개씩 제시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단계별 발문과 함께 이에 대한 해답을 자세히 보여 주고 있다. 보기 문제 다음에는 해결 방법을 정리하여 그 방법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소개와 특성, 사용시 유의할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 다음에는 예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물음에 차근차근 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을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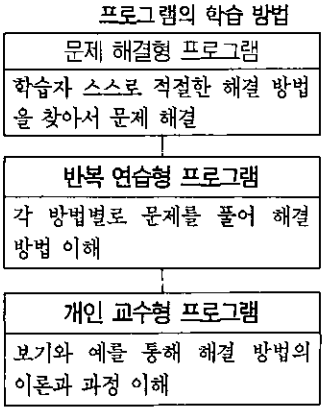
학습 결과는 5개의 화일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원하는 화일을 언제든지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때마다 그 시점까지 수행한 결과가 제시된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2학기 「여러 가지 문제」 단원을 학습할 때, 정규 수업 시간이나 특별 활동 시간에 학급 단위나 개인별로, 또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어떤 특정한 시기(학교급별, 시기별)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CAI 프로그램의 활용

『이야기 속의 수학』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이 이야기 전개와 함께 제시된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풀도록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필요한 해결 방법에 관한 이론이나 개념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하위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학습해 나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문제 해결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속의 수학』 프로그램은 안내적 발견 학습 방법에 따라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여 개인 교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하위 프로그램의 학습 도중 학습자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상위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그림 6 참고).

<그림 6> 「이야기 속의 수학」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최종 목표인 수학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AI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용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이 학습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안내적 발견학습 방법에 의한 수학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CAI 프로그램의 활용이 전통적인 수용 학습 방법보다, 수학과 학업 성취 능력이나 수학적 태도 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더 효과적인지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 이 연구는 박재윤, 류호섭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RR95-9)를 요약한 것임.

초등학교 교수·학습공간 재구성 방안

박 재 윤(본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추세와 요구에 대응한 효과적인 공간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수업과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컴퓨터와 기타 각종 첨단 기술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어 왔다.

종래의 획일적인 일제 수업방식의 초등학교 교수·학습활동을 개선코자 하는 새로운 동향은 크게 나누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성격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열린 수업의 추세와,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며 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양질의 수업을 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열린 교육은 여러 각도에서 파악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동과 학습, 그리고 지식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며 개방성, 자유, 책임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는 교수·학습의 방식이라고 하겠다. 종래의 획일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하여 열린 교육은 하나의 대안적 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게 대응하는 공간의 구성과 설비가 필수적인 것이다.

한편 컴퓨터의 활용 증가와 통신기술의 도입으로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학습집단이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는 이른바 텔레클라스룸(teleclass-room),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과 통신기술의 결합형태인 텔레-CAI 등의 기법과 전화,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방송 등을 교수·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나 정보기술의 활용은 교사가 수업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적인 사용과 관리가 수반되며 이에 따라 종래의 교수·학습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모형의 공간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열린 교육에 대응한 교수·학습공간

열린교육에 대응한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공간은 기존의 일제 수업 방법과 아울러 여러 다양한 교육방법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목적 공간 도입이 필요하다. 그 조건을 간략히 언급하면

①공간의 가변성, ②공간의 연속성, ③동적활동의 공간, ④학습집단의 규모(영역감)에 대응, ⑤정보화에의 대응, ⑥보다 충실한 실내 환경 계획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목적 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①보통교실과 완전히 대면할 것, ②보통교실과 시각적인 연속성이 있는 구성으로 할 것(경우에 따라서는 가동 칸막이의 사용도 필요함), ③다목적 공간의 면적은 학급이 아닌 학년에 대응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할 것, ④각 학년마다의 다목적 공간은 반드시 설치하며, 복수학년의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다종·다양한 학습용 교구의 준비와 여러 코너를 설치할 것(바닥재로 카펫의 사용을 고려할 것) 등이 충족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열린교육에 대응한 교수·학습공간의 유형과 활용방법과 장·단점에 대하여 언급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공간의 유형

가. 학년 대응의 다목적 공간

1) 커다란 공간에 여러 코너가 설치된 홀 타입(보통교실과 일체형)

커다란 공간에 여러 코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여러 코너를 순회하면서 학습활동을 진행하게 하는 타입. 따라서 학습활동이나 학습방법, 학습집단에 따라 특별교실의 기능을 포함한 여러 종류나 크기의 코너 설치가 필요하며, 각 코너는 이동식 칸막이나 교구 등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현지 소규모의 학교나 소인수의 학급에서 활용하기에는 유리한 면이 있어, 소규모 학교의 새로운 교수·학습공간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학년의 다목적 공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2) 현재의 교실+다목적 공간(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없앰)

① 다목적 공간의 폭 4.5m 정도 : 현재 학생수의 조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 현재 고양시의 성저초등학교와 교동(계획도면)초등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상태이므로 학년 단위의 학습활동보다는 각 학급 단위의 활동 위주의 공간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교사에서 열린교육을 전개하는 학교(영훈, 원당 등)보다는 집단형성이나 그에 따른 코너 설정에는 훨씬 자유로움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교구의 배치가 상당히 제한되며, 코너의 종류에 따라서는 학년 공유 코너를 설치할 수도 있다. 교구가 많이 배치되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시에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체 학생들의 러그 미팅이나 집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쉽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② 다목적 공간의 폭을 교실 폭의 1배 정도 : 비교적 여유있는 공간이며, 통합교과나 주제에 따라서 학년단위의 학습활동을 비롯하여 개별활동이나 학급단위의 여러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여러 다양한 교구의 설치와 이하에 언급되는 여러 코너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이나 러그 미팅 등의 면적도 가능하다. 학년당 3학급 정도까지가 바람직스러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분절하여 계획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상명초등학교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실제로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이 타입에 대한 요구가 크다.

여기에서는 2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지만 교실과 다목적 공간의 대면 상태에 따라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즉 각 교실과 다목적 공간이 전부 대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대면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목적 공간은 모든 교실, 면적이나 위치조건이 균등한 경우에는 각 학급이 또는 학년별로 열린교육을 전개하기 쉬운 조건이 되며, 그렇지 않고 일부교실에만 다목적 공간이 인접해 있을 경우

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서는 불균등한 공간조건으로 인해 열린 교육의 전개나 다목적 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쉽다.

3) 학년별 다목적 공간 (교실과 분리)

기존 교사의 형태에 각 학년이 이용할 다목적 공간 설치시에는 해당 학년의 교실과 최대한도로 연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학습활동에의 활용보다는 특별활동이나 생활 활동시에만 이용되기 쉬운 면도 내포하고 있다. 이 타입은 신축시에는 부지형태나 조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유형보다 대응하기 쉬운 면이 있으며, 아울러 기존 교사의 증·개축시에 바람직하다.

나. 다(복수)학년 대응의 다목적 공간

1)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이 다목적 공간은 기본적으로 각 학년별 다목적 공간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2개학년 이상의 복수학년이나 학교전체 무학년제의 개별화 학습, 예를 들면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단원이나 교과를 택하여 단계별 코너를 설치하여, 학생은 자신의 단계에 맞는 학습지 코너에서 개별학습을 진행하는 학습등을 하고자 할 때 유용한 활용이 예상되는 공간이다. 공간의 규모가 크므로 우천시의 체육행사나 학교 전체의 급식실로서도 활용 가능하며 학예회나 연극등의 활동과 기타 학교행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전체의 미디어 센터로서의 기능도 부가시킬 수 있다.

컴퓨터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공간

교수·학습활동에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컴퓨터실의 충실화, ② 보통교실, 특별교실에서 컴퓨터의 활용 설비 확충, ③ 시청각교실, 도서실, 학습자료실, 교재연구실 등의 재정비 등이 요구된다.

컴퓨터를 컴퓨터실에서만 이용하는 개념보다는 특정 교과의 특정시간에 특정학급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자료 검색과 활용에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컴퓨터실 설치에서 더 나아가 보통교실, 특별교실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청각교실은 종래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거나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필수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도서실은 필수 시설화하고 학생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자료의 검색 기능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료실은 도서실을 시청각교실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적당한 수량의 컴퓨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한다.

교사들이 이용하는 교재연구실에는 컴퓨터 활용을 위한 각종 메뉴얼과 교사수에 따른 적당한 수량의 컴퓨터와 다른 학교와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통신망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①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이 우선 고려되고 이에 따른 컴퓨터의 활용방안 수립, ② 교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수업 활용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양질의 연수, ③ 학생과 교사 등 사용자들의 안전과 보건위생적 측면에서의 충분한 고려 등이 중요하다.

컴퓨터 교실도 현재와 같이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컴퓨터를 설치하여 통행의 불편이나 수업의 애로를 초래하면 안될 것이

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설비도 구비해야 할 것이고, 휴식을 위한 공간, 자료보관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

원격수업은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교수·학습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재정, 사회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은 원격수업을 주관하는 중심학교와 이를 수신하는 분교의 교수·학습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종전의 한 교실 내의 공간 개념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개념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원격수업실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공간이 필요하고 수업을 위한 준비실, 자료제작실, 통신 및 제어공간, 기타 다양한 기기의 설치와 이를 위한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원격수업은 종래와 같은 방송의 송·수신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매체의 교환이 요구되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것이 전망되는 만큼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망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와 같은 원격수업실과 방송장비 이외에 멀티미디어의 제작과 보관을 위한 공간, 각종 텔레커뮤니케이션 망의 활용을 위한 설비와 공간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언

가. 초등학교 건축모형의 다양화

열린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거나 첨단 기기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등학교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는 학교건축 모형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원격수업을 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건축모형은 종래의 수업체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건축모형과 달라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건축모형을 다양화하도록 허용하고 그에 필요한 각 사례별 건축지침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 보건대책

'교육정보화 종합추진계획' (1995~2003) 중 초·중등 교육부문 정보화 사업은 컴퓨터실을 1교 1실 이상 확보하고 신기종을 보급·확대하며, 교수·학습 정보 및 학교생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학교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용 회선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건물에 이러한 다양한 기기와 설비가 도입될 경우 공간 배치와 안전, 보건 측면에서 검토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부문 정보화 사업 계획에 학교건축의 재구성, 안전 문제 및 보건 측면의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관련 법령 개정

교수·학습체제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고 정보화 사회에 따라 학교 체제가 변화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예컨대 원격교육의 경우 고가의 장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학교 운영조직을 가지고는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원격수업 자체의 총괄적인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교수·학습체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인적 조직의 특례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망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이 보급되면서 종래의 학교제도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소화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수·학습에 관련된 제도가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역할극을 통한 감성교육

김 영 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석사)
· 울진 영천초등학교 교감 역임
· 경상북도 군위교육청 장학사

1. 들어가는 말

한 사람의 성공 가능성은 지능(20%)·학력보다 성격 즉, '마음의 특성'인 감성(80%)이 더 큰 영향을 끼치므로 타인과 더불어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감성, 보람, 적성, 건강, 성공 등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 ; EQ)를 높이는 지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IQ를 중요시하고 EQ 지도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또 조기졸업, 진급아 결정에도 IQ 140을 기준으로 하는 등 EQ보다 IQ를 우선하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IQ와 EQ가 조화를 이룬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정보산업의 발달로 컴퓨터가 기억, 계산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은 인간이 직접 담당해야 하기에 EQ를 높여주는 교육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2. EQ가 높은 아동 발견하기

앞으로는 EQ가 높은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아동들이 EQ의 여러 요소를 고루 지닐 수 있도록 고무시켜 주어야 한다. EQ가 높은 아동은 주위 사람과 협력적 관계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그 일에 가치를 높이 둔다. EQ가 높은 아동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낙천적이며, 급우들에게 인기가 좋다.
2. 어려움이 닥쳐도 기가 죽지 않고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3. 모험심이 강하고, 주어진 과제는 자신감을 갖고 처리한다.
4.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잘 공감하며, 친절하게 대한다.

3. EQ를 높여주는 교사

"창의성이 없는 교사는 아동의 창의성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EQ에 관심이 적은 교사는 아동의 EQ를 높여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감성능력을 진단하여 풍부한 감성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감성적 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EQ를 높여주는 지속적인 지도로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더 성숙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표 1>EQ를 높여주는 교사의 행동

요 소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능력인정	어린이를 바보 취급하지 않는다. 어린이를 절대로 나무라지 않는다. 어린이가 심통을 부리지 못하게 한다.
통 제	어린이는 무엇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무엇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질문응답	어떤 것이라도 어린이의 질문에 꼭 대답한다.
체 벌	어린이에게 체벌을 하지 않는다.
존경심배양	자기 자신이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강조하여 지도한다.
감정표현	어떤 장소에서나 두드러진 행동을 시키지 않는다.

4. EQ를 높여주는 방법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생활 현장에서 체험학습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하여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인내와 여유, 결단력을 길러준다. 아울러 아동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한다.

1) 정신 집중력을 기른다.
2)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
3) 작은 일에 초조해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걱정하지 않는다.
4) 정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5) 맑고 명랑한 성격을 지니고 즐거운 생활을 한다.
6) 좋지 않은 버릇은 즉시 고친다.
7)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
8)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한다.
9) 처음 대하는 사람과도 상냥하게 지내며, 수줍음을 타지 않는다.
10)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지 않는다.
11) 이타정신을 가지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

5. EQ의 구성요소

EQ 구성요소를 피터 살로베이 교수와 존 메이어 교수가 제시한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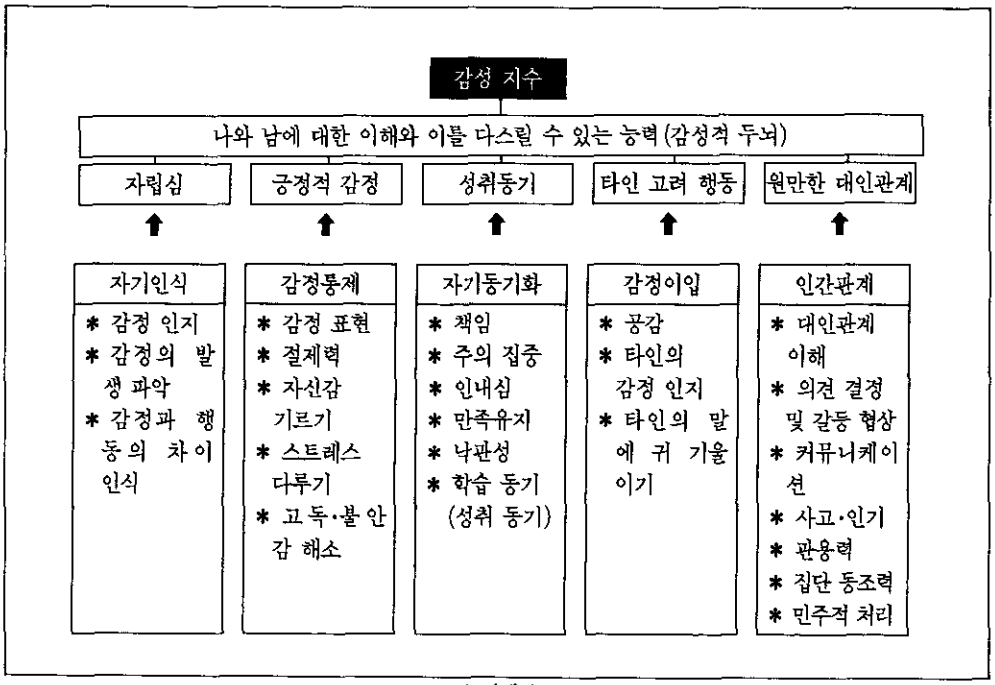
6. EQ 지도의 실제

EQ 지도는 어느 한 시간, 한 상황의 지도로써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사례를 들어 예행 연습을 시켜 왜 이런 감정이 생기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체험 활동을 반복 지도한다.

1) 요일별 지도 계획

EQ의 요소를 요일별로 안배하여 지도한다.



<표 2> EQ의 전체 구조도

<표 3> 요일별 지도 계획

요소 \ 구분	지도시기						비고
	월	화	수	목	금	토	
1. 자기인식	◎				◎		
2. 감정통제	◎			◎			
3. 자기동기화		◎	◎		◎		
4. 감정이입			◎			◎	
5. 인간관계		◎		◎		◎	

◎ : 중점지도일, 그외의 날 : 발생 사례의 요인별 지도

2) 상황별 지도

예로 월요일 중점 지도 요소중 감정통제의 상황은 아침시간에, 자기인식의 상황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한다.

<표 4> 활동 상황별 지도 계획

구분	시간대별	상 황	대상별	지도방법	지도내용 (EQ요소)
학교 일과중	아침시간	인사, 청소, 놀이	전학년	토의	감정통제 (감정표현)
	교과시간	주의집중, 인내심, 성취	학급별	예화 듣기	자기동기화
	점심시간	식사습관, 예절	전교생	VTR 시청	감정이입
	방과후	놀이, 청소활동, 독서지도	고학년	역할극, 토의	자기인식
가정	가정생활	생활전반(형제애, 충동 욕구 억제)	전교생	실연	인간관계, 자성록쓰기

3) 상대 입장 이해의 지도(예)

가. 역할극 지도 과정 모형

<표 5> 역할극 지도 모형

지도에 앞서	지도		정리시에
	단계	지도의 내용	
* 분위기 조성	상황 제시 ⬇	* 요소 내용의 제재 * 오늘의 내용 듣기(녹음, 안내)	* 소감발표
* 효과음악 듣기	타인과의 상호작용 ⬇	* 역할극, 비평과 소감 발표(2인 역할극 발표→타아동의 발표 경청→들은 아동의 느낌 발표→출연 아동 재연기, 자기 입장 재진술→전체 재정리)	* 상대입장 이해
* 상황 안내	협동 생활 하기 ⬇	* 반대만 해서 안되는 까닭 * 공동 생활에서의 협동 * 앞으로 나의 태도 변화	* 관용적으로 타인 대하기
	원만한 대인관계	*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한 일→반성·대면·사과→친숙	* 즉흥 역할극 하기

나. 역할극을 통한 상대 입장 이해

전교 어린이 집회시 강당에 모인 시간을 이용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할극 연기를 통한 지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화자료를 이용한 역할극 지도의 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비교 예화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의 부지런함과 끝까지 노력하는 인내심은 좋았다. 그렇지만 거북이는 잠을 자는 토끼를 깨워서 시합을 해야 하는데, 토끼가 잠을 자는 틈을 타서 일등을 했으니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하다고 1학년 어린이가 말했다. 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관련 예화 요점	무더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때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재미나게 노래만 부르고 시간을 보냈다. 겨울이 되어 배짱이는 먹을 양식이 없어 개미네 집에 식량을 얻으러 갔지만 개미는 단번에 거절하고 주지 않았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역할극의 대화 내용	<상황 1> 개미1 : 아유, 더워!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구나. 땀이 샘물처럼 흐르네. 개미2 :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가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보람있는 일이 아니예요? 개미3 : 그래, 우리 개미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야. 베짱이1 : (베짱이가 어딘가에서 노래부르는 소리가 난다.) 아유, 더워. 난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구나! 베짱이 2 : 난 노래부르는 것이 제일 좋아. 노래나 부르자. 베짱이3 : 난 더워서 꼼짝을 못하겠는 걸. 나무 그늘에서 쉬어야지. <상황 2> 베짱이1 : (개미집에 가서) 개미님! 계셔요? 저배가 고파서 못 있겠으니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예? 개미1 : 여름에 덥다고 노래만 부르고 놀았으니 지금도 노래만 부르고 노시오, 응! 베짱이2 : 하지만 지금은 날씨도 춥고 나무 그늘도 없으니 노래 부를 곳이 없어졌어요. 베짱이3 : 개미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은 배가 고파서 노래를 부를 힘도 없어요. 개미2 : (얄미운 투로) 다른데 가 보시오. 우리 식구들 먹을 양식도 없는데 남에게 줄 것이 어디 있겠소? 개미3 : 남이 일할 때 놀았으면서 밥 먹을 때라고 같이 먹어야 되겠어요?
반응 사례	C1 : 베짱이는 자기가 잘하는 노래를 불러 주위의 다른 동물과 곤충을 기쁘게 해주어서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개미는 자기가 배고픔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고 다른 동물에게 똑같이 하는 것은 보복이다.

	C2 : 기쁜 노래를 들은 곤충은 베짱이가 시간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한 대가로 먹을 양식을 주어야 한다(공동재산). C3 : 개미는 이웃과 남을 도울 줄 모르는 구두쇠이다. 혼자 살아야 한다. C4 : 베짱이는 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고 놀았으니 먹을 양식과 살아갈 대책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
사후 조언	* 막연한 동정은 버리게 한다. *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한다. * 상황 판단을 잘하게 한다. * 상부상조의 정신을 갖도록 한다.

7. EQ 지도시 유의할 점

교사가 아동의 정서적 표현에 무관심하게 되면 아동들은 강화·자극을 받지 못하여 감성의 싹을 죽이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아동들의 정서 반응에 대한 자극 제공자의 역할과 정서적 성숙의 모델로서 행동해야 한다.

1)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머리와 가슴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거부할지를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모두 아동의 자유의지에 맡긴다.
2) 자신의 감정 표현 방법, 타인의 감정 표현과 속마음을 읽는 연습으로, 남에게 적절히 대응하는 경험을 실제로 많이 해보게 한다.
3) 꾸중, 질책보다 폭넓은 사랑으로 감싸주며, 아동의 행동은 받아들이되 정도가 지나칠 때에는 반드시 그 한계를 알려 준다.
4) IQ와 EQ,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도한다.

8. 맺는 말

"인생에서의 성공은 머리에 의한 지능지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의한 감성지수에 달려 있다."고 한다.

성격의 변화, 대인관계 등은 평생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현명한 어린이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EQ와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

급우에게 도움을 청하고, 친밀감을 느끼며, 스스로 상실에서 벗어나고, 옳고 그름을 가려 나쁜 것을 걸러내는 등 모든 활동에 EQ가 작용하므로, 호기심을 부추겨 주는 자극과 적절한 정서적 환경의 조성으로 소질을 키우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머리와 가슴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너·나·그가 '우리'가 되도록 가정·학교·사회가 힘을 합쳐 정서적 성숙의 기본 토대를 형성시켜 주어야 하겠다.

EQ 지도가 교육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지식 편중의 교육에서 지(知)·정(情)·의(意)의 조화와 삶의 향기를 더해 주는 활력소가 되도록 EQ 지도에 교육활동의 비중을 좀더 많이 두어야 할 것이다.

Emotional Quotient

문해(文解)의 문화정치학

한 숭 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육학과) 졸업
· 미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연구원
· 「하이퍼미디어의 성인교육학적 이해: 원리와 방법론」 외

'문맹(文盲)'이란 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문맹'이란 문자 해득 능력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지식의 권위 구조적 경계 및 그에 터한 사회계급의 중층적 구조를 반영하는 정당화 기제로서 창출된 개념이다. 그리고 하필 '문해(文解)' 보다는 '문맹(文盲)'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이유는 그 중층구조의 서열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해자에 대한 존경보다는 비문해자에 대한 경멸이라는 부정적 강화기제를 통하여 그 지적 서열을 유지하고 정당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황종건 교수는 문해교육이란 사실상 '문화 해방'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말처럼, 문해란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 문화를 읽는 것이며, 문해와 비문해(혹은 '문맹')의 구분은 문화행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화정치학적 포함(inclusion)과 배제(exclusion)의 논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 사회에 한가지 문해 경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수십년 전만 해도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문해 요건은 읽기, 쓰기, 그리고 셈하기의 3R을 수행할 수 있는 차원의 기초 문해 단계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만을 달성한 사람들을 문해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늘날 문해자의 최소 기준은 문자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에의 활용과 적용을 위한 생활기능 문해(functional literacy)라는 개념에 의해 규정된다. 예컨대 OECD 국제 성인 문해 조사의 기준처럼 문해자란 최소한 산문 이해, 공식적 문서 이해, 그리고 계량적 수치 이해의 세 영역에 대한 측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성취한 사람들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든 '문해자'로 판별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한 사회의 지적·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 길이 열린 것은 아

니다. 이것은 마치 천로역정에서 기독자가 한가지 문제상황을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상황과 만나게 되는 연속적이고 중층적인 문제 설정 과정과 유사하다. 예컨대 히르쉬(Hirsh)의 문화 문해(cultural literacy)라는 개념이 시사하듯이 오늘날 쉴새없이 튀어나오는 영어 단어들과 한자어들 속에서 소위 '문해자'들이 느껴야 하는 또 다른 벽의 두터움은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전문직을 가진 집단의 경우에도 메타포적으로나마 문해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기술 문해(technological literacy), 미디어 문해(media literacy), 정보 문해(information literacy), 컴퓨터 문해(computer literacy) 등의 용어들이 요즈음의 '명예퇴직', '조기퇴직', '황당한 퇴직' 등의 용어와 어울리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문해 경계〉 밖으로 밀어 내려고 한다.

요컨대, 이러한 〈포함〉과 〈배제〉 관계는 다름아닌 사회의 중층적인 담론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극복의 삶을 담고 있는 독특한 사회현상이며, 문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현상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문해 문제는 이미 〈현상의 영역〉에서 〈담론의 영역〉으로 전이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문해 연구는 문자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실 판단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지식의 생성과정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사회 구성원간의 〈포함〉과 〈배제〉의 경계를 설정하는 문화정치학적 갈등 과정으로 논의의 중심을 옮겼다고 할 수 있다.

〈기능 문해〉에 대한 반성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문해 경계는 두가지 상이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 하나는 대체로 '문맹퇴치'라는 개념으로 알려진 〈기초 문해 경계〉이며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문자·지식생활의 영위와 관련된 〈문화 문해 경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문해 경계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급속한 사회변화는 대중들의 기초 문해율을 95퍼센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데에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그 사회변화는 또 다른 한편에서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문화적 간극을 낳게 하였으며 권위적 지식인들은 그들이 설정한 문화 문해의 경계선을 결코 넓히려 하지 않았다. 〈기능 문해〉라는 개념은 이 두 개의 간극 사이에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간극을 좁히지도 넓히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노정하여 왔다.

이 점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公論)은 그야말로 공론(空論)으로 머물고 말았다. 결국, 〈문해 경계〉 안에 머무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대중들의 노력을 받쳐줄 어떠한 성인교육기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늘을 사는 50대 이상의 결코 길지 않았던 초기교육을 고려할 때 해방 후 제1세대들의 삶은 항상 그러한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불안하고도 지난(至難)한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의 한국 교육학 연구에 있어서의 문해 연구는 문해가 가지는 담론적이고 문화정치학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을 결여함으로써 문해 연구를 가장 관심없고 쓸모없는 연구 분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최근 〈기능 문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주로 사례 중심의 기초조사에 머물렀을 뿐이다. 1996년에 발간된 OECD 교육지표 제4판에 성인 문해에 관한 항목이 크게 증보되었고 앞으로 2차 사업을 통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기능 문해〉라는 말의 어원은 1960년대 이후 제3세계의 비문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실험과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저개발국의 문해 사업을 주도하였던 유네스코의 기본 파라다임은 낙관론적 대규모 프로젝트(mass literacy campaign)로서, 대규모의 문해 사업을 통하여 문해의 기회를 펴부으면 문맹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마치 2차대전에 종지부를 찍은 무차별 폭격과도 같은 방식의 구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진한 생각은 곧 허구로 드러났는데, 문해 교육 이후에 나타나는 추후 교육 부재로 인한 문해 기능의 상실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초기 실패 경험에 기반하여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 기능 문해(functional literacy)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경제 환경 변화와 노동 인력의 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지역에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요구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환경에서 기능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의 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의 배후에는 교육관련 국제기구들이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국제기구들의 역할은 1959년 쿠바 혁명을 필두로 한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사회주의 정치변혁운동에 대하여 세계 자본주의시장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신고전경제학, 이른바 인간자본 중심의 근대 발전이론을 제3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요 전략으로 나타난 것이 다름아닌 문해 사업이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의 문해 사업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기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 추진된 만큼 문해의 대상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산업화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인구집단에 대한 선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능 문해의 '기능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및 오늘날 지구 경제하에서 나타난 세계주의적 압박 및 제3세계의 '강요된 문해'의 현실에 관한 관심은 주로 1980년대 초 전이국가(轉移國家: transitional states)들의 대규모 대중 문해 교육의 경험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비판적 문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출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1980년의 니카라구아 문해 운동은 급진적인 정치변동과 성인교육의 역할에 관한 학문적 논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인권투쟁이나 아시아의 민주화 투쟁, 남미의 캄페지노(campesino) 운동 등 전반적인 사회 민주화 운동이 제3세계 성인교육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면서 제3세계 성인 교육의 경험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중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요인으로서 비정부단체들에 의한 문해 운동의 국제적 협력이 돋보였는데 여기에 파울로 프레이리의 경험이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적 차원에서의 세계 경험의 공유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자기 고립적 학문체계가 가지는 인식론적 식민주의에 대하여 제3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학문적인 차원에서 표현해 내려고 하는 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문해와 대중담론의 형성

사회는 자연인으로서의 대중에게 체제의 옷을 입은 이차적 담론을 강요한다. 대부분 정치적 캠페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대규모 문해 운동은 생활세계의 언어를 국가통합체제의 언어로 각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두가지 세계는 단순히 글자의 존재와 비존재라는 차이를 넘어 언어를 표출하는 사고의 배경과 이데올로기, 가정 등에 명백한 차이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Gee)는, 문해는 세가지 담론체제의 복합체로

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시적 표현〉(referential), 그 표현이 의미를 가지는 〈사회 관계적 맥락〉(contextualization), 그리고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데올로기 체제〉(ideological system)의 중층적 복합체라는 것이다.

현재 문자화된 언어로서의 글이란 주로 구어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생활세계의 담론, 즉 '일차적 담론'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지(Gee)는 문해를 '이차적 담론'의 습득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일차적 담론'이란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 쓰이는 생활세계의 평상언어이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구어〉의 형태로 사용될 때 가장 친근하게 느껴진다(어머님과 직접 대화를 할 때와는 달리 멀리서 편지를 쓰려고 할 때의 어색함을 생각해 볼 것). 반면에 체제가 요구하는 종류의 언어는 평상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 억압되고 각색된 〈문어〉체로 나타나는 '이차적 담론'이며, 특히 법정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말들은 문어체의 극치로서 국가기구 및 사법기구의 권위와 억압의 기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일차적 담론과 이차적 담론의 간극은 결국 그 사회의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생산하는 지식과 힘의 매카니즘이 이중구조로서 민중의 삶을 격리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해에 있어서의 일차적 담론과 이차적 담론의 간극 만큼이나 〈쓰기〉와 〈읽기〉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도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문해 교육의 두 가지 측면, 즉 글을 읽는 행위와 글을 쓰는 행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여 왔다고 하는 점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문해 교육은 주로 〈쓰기〉라고 하는 지식 생산행위보다는 〈읽기〉라고 하는 지식 소비행위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에서 쓰기 행위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읽기란 또 하나의 쓰기'라고 하는 코트스(Courts)의 주장처럼 표피적인 차이를 제외한다면 읽기와 쓰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활동이다. 왜냐하면 읽기란 독자가 저자가 쓴 글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다시 쓰는'(=이해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비판적 문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읽기란 이차적이고 체제지향적 담론을 일차적 생활세계의 담론으로 다시 쓰는 독자의 재창조 작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읽기라는 의미의 적극적 해석은 대중의 '해방의 순간'의 단초를 드러내는 순간인 것이다. 문해는 언어 생산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언어구조 내에 포함시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포함〉의 논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문해의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복잡한 문화적·교육적 현상 이해를 필요로 한다. 〈비판적 문해〉라는 개념을 통한 문화정치학적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현대 대중문화에 있어서의 오류중 하나로서의 텍스트와 저자와의(세계에 대한 객관성을 가정한) 직접적 관계성 및 그것을 통한 지식생산 독점체제, 그리고 그 구조를 대중소외를 기반으로 재생산해 온 문해 교육의 오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청한다. 문해 교육이란 대중의 텍스트를 다시 쓰는 일이다. 그것은 대중의 의도와 생활세계 속에서, 그들의 담론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재평가되는 대중 담론의 생산현장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내생적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역할

이 남 철

· 단국대학교 및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 숭실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강사
· 「경제학원론」,
「한국 경제구조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영향 : 투입-산출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외

Ⅰ. 서 론

Solow(1956)에 의해 창안된 신고전학파 성장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은 경제성장률은 외생변수인 기술수준, 저축률(투자율), 인구성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에 따르면 자본량이 축적됨에 따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므로 국가간의 성장률 격차와 소득격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든다는 점근현상(convergence)을 예측한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모형에서처럼 현실 세계는 그러하지가 못하다.

예를 들면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은 신흥공업국가들(NICS : Newly Industry Countries)은 빠른 경제성장률을 가진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장기적인 경쟁성장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고전학파 모형은 장기적인 경제성장 요인의 근거를 기술진보와 인구증가에 두고 있는데 이 기술진보와 인구증가는 모형 밖에서 외생적(exogenous)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규명하는 데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들간의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오직 외생적인 기술수준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할까? 1980년대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선진국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개발도상국들의 원인을 기술진보의 차이로만 설명한다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든 것일까? 이러한 신고전학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80년대 중반에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등장한다.

경제성장이 Solow의 성장모형처럼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데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내생적 성장이론 및 점근현상에 대한 논쟁은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

에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내생적 성장이론의 관점에서 세계경제 통합에 따른 인적자본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내생적 성장이론에서의 인적자본

내생적 성장이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Romer (1986)와 Lucas(1988) 등을 중심으로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하였기 때문에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이라고도 한다.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고소득 국가의 성장률보다 높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성장률 격차가 점점 좁혀지게 되어 접근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간의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 대두된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등을 통한 지식의 파급효과를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 특히 Lucas는 외생적 기술 변화의 가정을 기각하고 기술, 학습 또는 연구개발 등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내생적 축적에 의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생각한다. 인적자본이란 광의의 의미로는 노동력에 체계화된 모든 생산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노동자의 교육수준, 지식, 직업훈련 정도, 건강 및 영양상태와 같이 노동의 질(quality of labor)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다.

협의의 개념으로의 인적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지식(knowledge)과 기술숙련도(skill)를 의미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적자본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측정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많은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수준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고,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경제의 노동자들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적자본의 육성과 배양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교육지표 : 1997) 발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수업시간은 초, 중, 고를 막론하고 세계 1위로, 수학과 과학 성적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전문대졸 이상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를 상위하는 등 고학력 사회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1995년 9월 전세계 192개국의 국부(한 나라의 전체적인 부를 측정하는 지표)를 천연자원, 인적자본, 생산자본, 사회자본으로 분류하여 조사·발표하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1인당 국부가 1990년 기준으로 $123,000로 조사 대상 국가 중 44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해 1인당 GNP가 40위인 것과 거의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1991, 1992년 모두 38위에서 1993년 32위가 되었다. 통상적인 개념대로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생산능력을 나타낸 인적자본은 교육수준(학생의 등록률, 교사 1인당 학생수), 영양상태, 인구당 의사수로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홍콩과 함께 인적자본이 국부의 가장 중

요한 요소가 되어 국부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인적자본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즉, 인구의 총량보다 인적 자본의 크기가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이것은 1980년대 이전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인구는 많으나 인적자본이 작은 국가가 저성장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처럼 인적 자본이 매우 작은 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내생적 성장이론이 아시아의 '4마리의 용'(Four Dragons)이라고 일컫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한다.

Grossman-Helpman(1991)이 도입한 R&D 모형에서는, 기술 진보는 의도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며 이러한 투자활동은 새로운 개발에 대한 사후적 독점권의 보장으로 보장받게 되며, 지식이 고갈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어떤 기업이 막대한 연구개발비(R&D) 투자에 의해 질이 좋은 중간투입요소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특허권 제도에 의해 보호된다면 그 기업은 신기술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신상품을 생산, 판매하여 독점이윤을 얻는다. 아울러 경제 전반에 파급되어 새로운 생산기술을 생산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응용하여 또다른 기술개발에 이용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게 되므로 R&D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은 전반적인 지식의 양과 질을 증가시켜 기업들의 새로운 R&D 투자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와같은 기술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R&D 투자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신기술 발명(innovation)이 계속됨에 따라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게 된다. 이와같은 내생적 성장모형에 따르면 어떤 나라의 노동력의 크기보다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의 크기가 성장률에 더욱 더 큰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인적자본 및 R&D는 창의력이 넘치는 젊은이의 노동시간과 컴퓨터, 실험 시약, 실험 기자재 등의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의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 물론 이와 같은 기술 진보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제 현상이 아니다. 또한 연구개발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노동현장에서 얻어지는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역시 중요한 생산성 향상의 요인이다. 미숙련 노동자가 생산활동을 통해 숙련 노동자가 되는 것은 그가 따로 정규교육, 사회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랜기간 동안 노동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숙련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학습효과로부터의 기술 습득은 기술 진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처럼 내생적 성장모형에서와 같이 내생적인 기술 진보(endogenous innovation)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정책 당국자는 R&D투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신기술 개발상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Ⅲ. 세계 경제의 통합과 인적 자본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특정 국가들간에 다른 제3국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혜택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배타적인 혜택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특정 경제적 목적 및 목표의 실현을 취지로 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내생적 성장모형은 인구의 크기보다 인적자본의 크기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통합이 각국의 인적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국제

내생적 경제 성장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정부가 교육, 훈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의 통합은 국가간의 지식 및 기술 이전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술의 창출, 확산, 모방 등 기술 진보를 고려한 경제성장의 내생적 성장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크며 단기적인 경제 정책의 운용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인당 인적자본량의 증가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동시에 증가시키게 되므로 경제성장률이 증가된다. 또한 인적자본의 생산성이 증가되므로 상품 생산이나 인적자본의 증대에는 더욱 더 유리한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자유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의 통합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내생적 성장모형은 설명한다.

즉 국가간의 지식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폐쇄경제(closed economy)하에서 저성장을 하던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가 경제를 대외 개방한 뒤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노동집약적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자체적인 학습효과나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식 및 기술이전을 통해 인적자본이 축적되면서 중·고급 기술집약적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게 된다. 국제 경제의 통합은 R&D 투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국제 경제의 통합에 의하여 잠재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R&D 투자의 새로운 동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기술 이전비용이라는 제약 조건에 부딪히게 된다.

Ⅳ. 내생적 성장 모형의 제한점

내생적 성장모형들은 국가간 국제 성장률의 격차와 한 국가의 경제 성장 과정을 규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내생적 성장모형 이론의 범위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발견, 기술확산 및 기술진보를 고려하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생적 성장이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실증적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들은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데 소수의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구성장률을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취급하여 인구성장률과 모형안의 내생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직 미비한 면을 보이고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단지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의해 도출되는 점금현상을 검증, 기각될 경우 간접적으로 내생적 성장이론을 검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점근현상이 기각된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전학파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내생적 성장모형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성장률의 차이는 조세 및 관세 정책 등의 거시정책과 제도의 효율성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왜곡지수(distortion index)나 정치체제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 지수(uncertainty index) 등에 의해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는 1973년과

1979년의 오일파동에 의해 큰 이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73년 당시보다 저하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한국, 대만, 싱가포르 및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반면,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둔화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경제정책 뿐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 및 사회적 제도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V. 시사점

단순히 신고전학파 모형의 타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내생적 성장이론의 우월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식 및 학습효과의 크기가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을 상쇄시킬 만큼 큰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만 내생적 성장이론의 모형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다.

최근 Jones(1995)의 연구에 따르면 R&D 성장모형의 핵심인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은 현실세계에 적합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R&D 비용의 감소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R&D에 대한 투자는 결국 중단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외생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실증연구의 차원에서 한 경제의 인적자본의 양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여 왔다. 그들은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교육 수준을 이용하여 인적자본의 수준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자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며,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도 노동자들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의 축적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규교육, 직업교육, 기술이전, R&D 등을 통하여 습득된 인적자본은 물적자본과 달리 지속적인 축적이 가능하므로 노동생산성이 수확체감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으며,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효과는 다른 기업이나 산업으로 파급되어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인적자본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이 영구적 성장(perpetual growth)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내생적 경제 성장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정부가 교육, 훈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국의 학교 수업

문 제 풍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열린교육'이란 개념의 시발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영국의 학교 및 교육제도는 한국의 것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 외에도 실제 운영 차원에서의 교육 방법과 내용에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교육방법 혹은 수업방식이 "주입식 교육(Cramming Education)"이라면 영국은 "학생중심의 교육(Student-centred Education)"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교육의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해나가는 중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의 발전이며, 학교교육의 중핵은 교사와 학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활동 즉,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교육개혁의 목표로서 "암기 위주의 획일교육에서 창의성과 개성 존중의 다양화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소비자 선택의 교육으로, 규제 위주 교육에서 자율 중심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소이가 여기에 있으며, 최근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란 개념도 결국 이러한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우리의 교육에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영국의 학교수업을 직접 참여하여 관찰한 필자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은 영국의 공립중등학교(Comprehensive Secondary School)였다. 이러한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물론 영국의 중등교육을 살펴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Public School 혹은 Grammar School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사립학교(Eton, Rugby, Harrow, Winchester 등의 명문학교를 포함하는)도 있지만, 영국 전체 중등학생의 87% 정도가 Comprehensive School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공립학교를 통하여 사립학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Comprehensive School은 선발시험없이 모든 능력의 학생을 받아들여 학문적 교과목을 포함, 광범위한 일반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1. 노트르담 학교('96년 1월 18일 방문)

이 학교는 로만 카톨릭 계통의 일반계 학교이며, 1855년에 세워졌다. 현재 약 1,000명의 11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53명의 전임 및 9명의 파트타임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Secondary School은 중학교 과정(우리의 중학교 과정과 나이가 같음 : 3년)과 2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5년제 학교이다. (그후에도 학생이 원하면 2~3년간 같은 학교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Sixth form 과정이 있다 : 직업교육 혹은 대학 입학시험 준비코스). 우선 노트르담 학교의 중학교 과정에서는 수업 과목으로서 종교, 수학, 영어, 과학, 역사, 지리학, 기술, 미술, 음악, 체육, 인성 및 사회교육(성교육 안내, 학습방법 및 일반상식 등을 교육

◀ 초등학교 연극 모습

함), 현대언어(불어, 독일어 혹은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고등학교 과정(Year 10과 Year 11)에서는 중등교육 수료 자격고사(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치루는데 중점을 둔다. 이 때 수업 과목은 8과목으로 줄어들고 학생은 학부모, 선생님과 상의하여 선택과목을 선정할 수 있다. 필수과목으로서 영어(혹은 영문학), 수학, 과학, 기술, 역사 혹은 지리, 선택과목으로서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체육, 미술 및 디자인, 지리, 역사, 경제, 음악, 직업교육, 연극, 산업기술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전	8 : 55	출석표 기재
	9 : 00	1교시 수업
	10 : 00	2교시 수업
	11 : 00	쉬는 시간
	11 : 20	3교시 수업
	12 : 20	점심
오후	1 : 20	출석표 기재
	1 : 35	4교시 수업
	2 : 35	5교시 수업
	3 : 35	수업 끝

필자는 1교시에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학급에 들어갔다. 지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급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하였으나,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재가 크게 없는 듯이 보였고, 우리와 비교하여 자유롭게 느껴졌다. 수업내용은 화산에 관한 것이었는데, 교사는 일단 여러 가지 사실을 설명해 주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화산을 그려보고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기에 바빴다. 학생들도 약간은 산만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역사 시간의 주제는 "노예 매매"였다. 19C에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벌였던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다. 우선 교사와 학생들은 노예 매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여러 사실들을 서로 도출해 내고 교사가 정리를 해준 다음에 어떤 두툼한 책자를 배부하였다. 그 책에는 그 당시에 기록되었고 사용되었던 각종 서류들이 표본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책자를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달아 자기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여 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 "노예 매매" 제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자기 의견을 정립하고 주제별로 급우들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셋째 시간에는 중3 과정의 영어 시간이었다. 주제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교과서는 없고 교사가 선택한 작품 원전을 그대로 읽고 공부하는 것이었다. 교사는 테이프를 틀어주고 실제 공연된 그 연극의 대사를 듣도록 하였고,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읽히며 역할놀이를 시켰다.

넷째 시간에는 중1 학생들의 영어 시간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단어와 귀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다. 역시 교과서는 없고 사전과 그리고 몇가지 인쇄물을 가지고 수업을 하였다.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 학생들의 경험과 예들을 이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학생들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예를

들어 "장미"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연상들 혹은 단어와 실체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교사는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었다.

다섯번째 참석한 중3 학급에서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주제는 "비율"에 관한 것이었는데 너무 쉬운 것들만 가르치는 것 같았다. 더욱이 학생들은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수문제를 풀고 있어서 교사에게 물어보았다. 계산기를 써서 산수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해로운 것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최근 영국 정부가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그 교사는 오히려 필자에게 묻는 것이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계산기를 사용한 계산은 단순한 연산능력에 불과하고, 논리적인 수리 능력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실제로 영국은 중학생까지의 수학은 그 정도가 매우 쉬운 것들을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는 어렵게 가르치며, Sixth form 과정과 대학교에서는 수준이 매우 높은 고등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을 대학교 수학과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으로부터 들었다.

여섯번째 들른 반은 생물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새로운 주제의 시작이던 것 같은데, 교사는 그가 지도할 주제에 대한 소개와 공부하고 가르칠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었다. 다음에 자신이 녹화한 비디오를 통하여 유전학자인 멘델의 생애를 소개해 주었다.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교육기자재를 사용하는데 매우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3 학급 물리실험시간을 방문하였는데, 실험시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실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우리와 좀 다른 면이 있었다. 학생들은 4~5명씩 한 팀을 이루어 전기와 자기의 힘에 관해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각 팀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실험을 위한 가정(Hypothesis)과 실험계획(Plan)을 세우고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과정을 통제하며 실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팀마다 실험계획이 약간씩 다르며, 결과도 다르게 도출되고 있었다. 과거의 우리 경우처럼 교사가 실험계획을 비롯한 모든 준비를 하고 단지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조건의 실험을 해보는 그런식은 아니었다.

또한 특수학급도 방문하였는데 경증의 특수장애아들의 학급이 편성되어 다른 일반 정상 학생들과 같은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2. 에드워드왕 7세 학교
('96년 1월 25일 방문)

이 학교는 16C에 세워진 공립 일반계 중등학교(Comprehensive Secondary School)이다. 약 1,530여명의 학생과 110여명의 전임 및 파트타임 교사들이 있었다. 이 학교에 들어서니 컴퓨터가 2주간의 학교 시간표와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었으며, 교사들이 연구하고 업무를 보는 교무실이 없고 단지 교사 대기실이 있었다(노트르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음).

중학교 과정의 수업일수(일주일 동안)

	중학교 1년 과정 (Year 7)	중학교 2년 과정 (Year 8)	중학교 3년 과정 (Year 9)
(핵심과목)			
영 어	3	3	3
수 학	3	3	3
과 학	4	3	3
(기초과목)			
기술·미술·가정	3	3	3
경제 및 디자인	3	4	4
외 국 어			
지리(지학 포함)	2	2	2
역 사	2	2	2
음악 / 연극	1	1	1
체 육	2	2	2
(기 타)			
종교교육	1	1	1
인성 및 사회교육	1	1	—

이 학교는 상대적으로 많은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거의 20%가 2중언어를 사용함 : 특히 인도, 파키스

탄 학생들이 많았음)을 수용하면서 학교와 사회간의 긴밀한 관계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학교는 종교교육, 다양한 문화교육,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개혁에 따라 국가공통 교육과정 제도(National Curriculum)의 도입에 따른 이 학교의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수업일수는 표와 같다.

고등학교 과정의 수업일수

	2년과정 (Year 10과 Year 11)
(핵심과제)	
영 어	3
수 학	3
과 학	5
(기초과목 및 기타)	
기 술	2
외국어(불어, 독일어 혹은 스페인어 중 1개 과목 선택)	2
역사, 지리 혹은 종교학 혹은 경제학중 선택 1과목	2
2개의 다른 선택 과목	2×2
(기타 필수과목)	
인성 및 사회교육	1
체 육	2
종교교육	1

이 학교의 수업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오전	8 : 50	교사회의
	9 : 00~9 : 15	출석 혹은 조회
	9 : 15~10 : 15	1교시 수업
	10 : 15~10 : 20	교실 이동
	10 : 20~11 : 15	2교시 수업
	11 : 15~11 : 35	쉬는 시간
	11 : 35~12 : 30	3교시 수업
	12 : 30~ 1 : 30	점심
오후	1 : 30~1 : 35	출석
	1 : 35~2 : 30	4교시 수업
	2 : 30~2 : 45	쉬는 시간
	2 : 45~3 : 40	5교시 수업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영어 수업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의 제1막 2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 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혹은 느낌을 말해보도록 요구되어졌다. 그리고 그 작품에서 42개 단어 중 중요한 단어 5개를 선택하여 그것들을 설명하도록 요구되어졌다.

중학교 1학년의 영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없이 전 시간에 배웠던 신문에 관한 것을 다시 환기하고 나서 신문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업의 과정은 서론, 사건의 취합, 결론 및 편집순으로, 학생들은 각자 신문 만드는 실습을 하였다. 그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물어보고 숙제를 내주었다. 수업 중 두 남학생이 싸웠다. 그러나 선생님은 조용히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고 들어왔다. 물리 시간에도 노트르담 학교에서와 같은 실험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관찰로부터 얻어진 영국 교육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로 이러한 학생중심의 교육은 적은 규모의 학급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영국 중등학교의 학급 크기는 한 반에 30명 이내의 규모이다.

둘째, 학급마다 많은 종류의 유익한 교재들이 있다. 학생들이 수업과목 교사를 찾아 해당교실로 이동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학생 이동시 약간은 어수선한 느낌이 들지만 좋은 교재들이 한 교실에 계속 축적될 수 있고 언제든지 교재들이 사용되어 질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교재를 가지고 다닌다든가 운반할 필요가 없다.

셋째, 학생들의 경험과 실험을 중시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다.

영국 교사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수업방식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며,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만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부하는 방법론 즉, 고기를 주기 보다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의 경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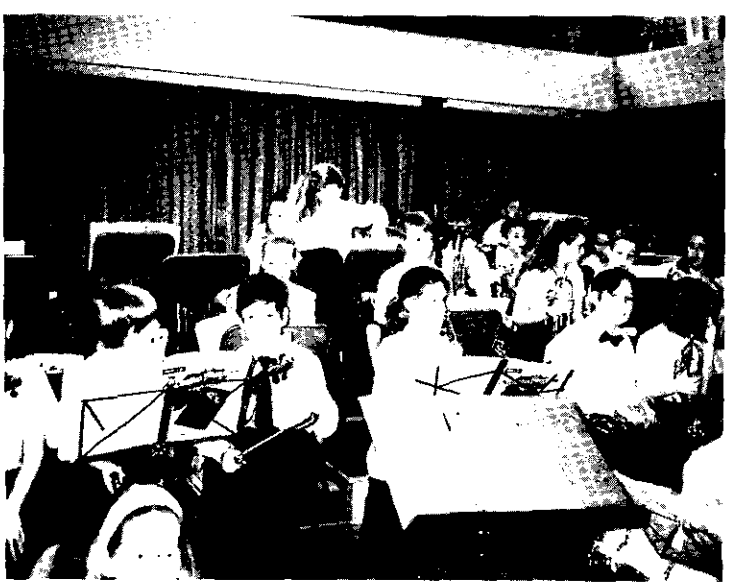
실험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교육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과학의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과목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발견된다.

넷째,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이 분명한 자기 의견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상대방 의견은 내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게 하는 교육방법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역사 시간의 노예 매매에 관한 수업은 자기의 의견을 증거를 내세우며 주장할 수 있는 틀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내 주장(노예매매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과 다른 사람의 의견(노예 매매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민주 사회의 발전에 매우 유익한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발달은 우연이 아닌 것이며, 그들은 토론을 즐겨한다. 실제로 필자가 중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노동자와 토론을 할 때에도 그들의 박식함에 또 그들의 논리전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으로 인하여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쉽게 정립하여 토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 교사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수업방식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며,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만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부하는 방법론 즉, 고기를 주기 보다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다.



◀ 1년에 약 2번씩 공연하는 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습 장면

다섯째, 논리와 창의성 중심의 교육이다.

영국의 교육은 "왜?"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그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수시로 학생에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일기와 레포트에 대한 선생님들의 Check Point에도 바로 이런 질문들이 많다. 단지 남의 의견이나 생각을 베껴 쓴다면 아마도 낙제점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들의 숙제와 시험도 논리와 창의성 중심이며, 비판적으로 전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자기 스스로의 작품을 완성하도록 요구되며, 그러한 레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분명한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적시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교육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의 시험제도가 아닌 논리와 창의성을 측정하는 영국의 시험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적 시험의 경우에 객관식 사지선다형시험이 아니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평한 채점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 국정내지는 검정교과서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마다 또는 선생님마다 약간은 다른 교육내용을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지식 위주와 점수 중심의 시험이 아니고 논리와 창의성에 대한 테스트와 학습방법에 대한 측정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채점에 있어 시간이 걸리고 약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관식의 시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도 초등 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 National Test(전국학력고사)에서도 영어시험문제가 세개의 제목이 주어지고 이들 중 2개를 선택하여 시험시간내에 소설을 쓰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좋은 예로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보통 2~3개 과목의 GCE A-level(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이 시험은 여러 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Sixth form 과정에서 2년간 공부한 후에 치르게 되며 그 수준은 상당히 높아 대체로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각 과목에 대한 "개론" 수준에 상응한다.

여기서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공부내용이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방법에서도 단순지식의 암기보다는 학생의 독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서적외에도 관련된 학습서적을 많이 읽어야 하며, 또 스스로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이 시험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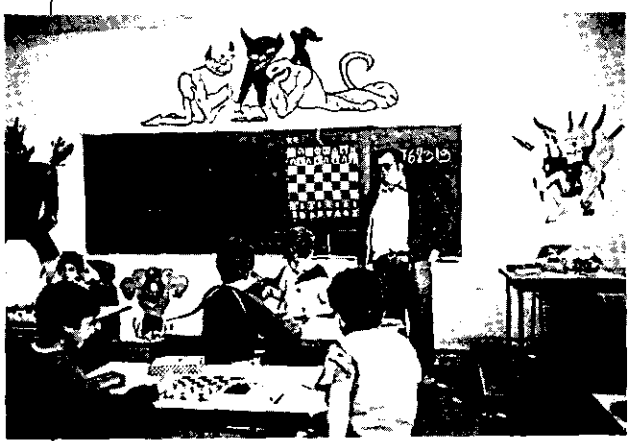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시행된 시험문제를 보면, 현대사의 경우,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하며, 남북대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사실인가? 논평하라." 종교학의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한사람의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 독재자를 암살하는 것이 옳다고 볼만한 도덕적 근거가 있는가?…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글자 그대로 사실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등이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 대학 수학능력시험제도라든가 논술고사 채택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과목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로 구분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도 논리성 증대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성과 창의성 증대는 국어과목 또는 별도의 논술과목의 공부로 쉽게 달성되어진다기보다는 영국의 경우에서 처럼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교육되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학생들에 비하여 영국 아동들의 학습부담은 매우 적다. 즉, 학교 숙제도 많지 않고 우리와 같은 과외 공부도 거의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이라든가 악기 연주를 비롯한 취미생활 및 체육활동 등의 과외활동 시간이 많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영국 중·고등교육에 관한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영국과 우리의 대학교육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중·고등학교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즉 과중한 학습부담(과외공부를 포함하여)은 상당히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스라엘의 영재교육

조 석 희(본원 연구위원)



필자는 1989년에는 2주간, 1997년에는 일주일간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영재교육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할 기회를 가졌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가장 원초적인 자본은 인간 자원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지적, 창의적 능력과 함께 상상력이 뛰어난 영재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국가의 주요 정책 중 필수 불가결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은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을 동시에 추구하여 왔다. 이스라엘 교육의 목적은 모든 아동들의 수월성을 계발시키는 것으로 각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시키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영재의 정의, 정책, 판별, 교사 훈련,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 방법을 살펴본다.

1. 역사적 배경과 영재 교육과

이전에는 이스라엘 국민의 강한 평등주의적 교육철학 때문에,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인식되어졌고, 따라서 영재아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교육형태도 제공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테크니온(하이파시에 있는 이스라엘 공과대학)과 텔아비브 대학의 수학과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영재아들이 처음으로 심화 프로그램과 함께 개별지도를 받게 되었고 이 심화 과정이 확대되고 공식화됨에 따라, 1970~71년에 문교부는 영재아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

① 광범위하고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영재들의 재능을 계발시키기 위한 최선의 여건을 제공한다.

② 이스라엘 교육체계는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잠재력, 최상의 능력,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학교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③ 유태계와 아랍계 간의 통합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교육체제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행해 나간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에 따라 텔아비브와 하이파에 25명으로 구성된 영재학급이 일반학교 내에 실험적으로 개설되었고, 1973년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문교부 내에 영재교육과를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교육제도로 전국 20,000여명의 영재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2. 영재의 정의 및 판별

이스라엘 문교부는 지적 성취를 바탕으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지적 혹은 특별한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아동'을 영재로 정의하였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정의에 입각하여 영재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해 오고 있다. 영재 판별 검사는 국립 행동과학 연구소인 쫄뜨(Szold) 연구소가 실시한다. 검사를 통하여 영재의 특징인 일반 및 특수 지적 능력을 판별해 낸다. 그동안 지능검사를 이용하여 상위 1~3%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발굴하여 영재교육에 참여하도록 해 왔다. 최근에는 지능검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관찰 수행 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3. 영재교육 담당교사

이스라엘 정부는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을 특별히 훈련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재 담당교사의 모집과 승인은 아주 엄격하다. 교사의 자격은 전공 영역에서 뛰어날 뿐 아니라 인간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폭넓은 소양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나아가 영재 학생들의 독특한 특성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교직 경력이 있는 사람과 교사 심화 연수에 정기적으로 참가한 사람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교사 심화 연수는 영재 교육과가 조직, 제공하며 한 달에 한 번씩 특정 학년을 위한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과목을 전개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지도한다.

문교부 집행기구는 영재 담당교사는 보통 교사들과는 다른 재능을 갖출 뿐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일반 학생을 위한 교사와는 다른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일치했다. 그들은 가르칠 과목에 전문가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영재교육에 적합한 교육적 자질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4. 영재교육 형태

1989년 당시 이스라엘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체제는 다음의 11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기숙사 시설이 있는 전일제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이 없는 전일제 특수학교, 전일제 직업학교, 전일제 특별학급, 시간제 특별학급, 일반 학급 내의 영재아 지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동시 등록, 일반 지적 능력검사에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나 대학교에서의 방과후 학급, 특수 학문 적성검사에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나 대학교에서의 방과후 학급, 공립학교의 방과후 학급, 사립학교의 방과후 학급.

이상의 여러 형태의 영재교육 방법 중 어떠한 형태의 교육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는 각 지역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와 인력에 따라 지역 당국자와 문교부가 협력하여 결정한다. 1997년 현재는 이상의 여러 형태 중 일반 학교 내의 특별학급, 지역공동 영재센터,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방과후 학급의 세 형태로 축소 변화되었다. 이 세 형태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별학급

영재아를 위한 특별학급은 일반학교 내에 설치되며 그 지역 전체 학생의 약 1%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재들을 일반 학생들과 격리시키지 않도록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영재들은 일반학생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공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학급은 3, 4학년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된다. 이스라엘의 정책은 속진보다는 심화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문교부는 각 학생들의 지적 발달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을 강조하며 또한 사회에 공헌하는 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비록 학문적 성취가 영재교육의 주요 요소이긴 하지만 영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덕과 가치 교육을 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문교부는 속진보다는 심화교육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수학영재의 경우는 예외로서,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영재들에게는 속진을 격려한다. 이를 위해 문교부는 텔아비브 대학 수학과와 협동하에 대학 수준의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 수학에 뛰어난 9~1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다른 과목들을 학습하면서 대학교의 특별 예비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들은 텔아비브 대학교의 수학과 특별학생이 된다.

고등학생들을 개방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목을 수강하거나, 레호보트(Rehovot)의 와이즈만(Weizmann) 과학연구소와 베이트 다간(Beit Dagan) 의 볼카니(Volcani) 농업연구센터의 연구원들에게서 개인 지도를 받도록 주선해 주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특별 학급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 과목들을 기초로 심화학습과 심층연구를 더한 것이다. 영재를 위한 특별학급의 특징은 영재들로만 구성되며, 학습 내용의 수준이 높고,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구성은 영재들로 하여금 한 특정 영역에서 전문화되게 하기 보다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과목에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식 획득과 이해뿐만 아니라 완전히 학습한 내용을 다른 영역에 응용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교사는 독립적 사고, 독창적·확산적 사고력을 격려한다. 학생들은 고등교육, 대학, 그리고 특별 센터 등 학교 밖에서 스스로 새로운 자료를 연구하고 다루는 것을 배우며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의 통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2) 지역공동 영재교육센터의 주중(週中) 심화 학습 프로그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영재학생을 위한 지역 공동 영재교육센터의 주중 심화 프로그램은 각 학교마다 특별학급을 설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심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부가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과학, 인문학, 예술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배우게 하는 교육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은 학생의 시야, 경험, 상상력을 넓혀 준다.

영재들은 일주일 중 5일 동안은 일반학교에 다니고 하루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센터에 참가한다. 참가범위는 초등학교 2~3학년 대상의 졸뜨연구소 시험을 거친 학생들로서, 그들 또래 그룹의 상위에 속한다.

센터에서의 심화학습을 위해 영재들은 일반학교에서의 정규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게 되는데 그들은 결손된 학습내용을 스스로 보충해야 한다. 전국에 약 14~15개의 지역공동 영재교육 센터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재학생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고안되어 있다. 이는 과학, 인문학,

예술에 관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학습하는 과목들과 달라서 그 내용은 중복되지 않으며 학교 학습내용에 비해 매우 앞서지도 않는다.

수학, 화학, 미생물학, 예술과 회화, 조각, 그래픽 디자인, 저널리즘, 창작과 문학, 영화예술, 지질학, 동물학, 동물행동, 생물학, 유전학과 약학, 건축학, 도량형학, 사진술과 컴퓨터 등의 과목들이 있다. 과제와 함께 학생들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어린 학생들(3~9학년)을 가르치기에 적합하고 지식이 많은 교사들로 대학원생, 연구원 등이 동원된다.

3) 방과후 학급의 심화학습 프로그램

이스라엘의 모든 고등교육기관 즉,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테크니온, 벤구리온 대학, 발일란 대학, 텔아비브 대학, 그리고 히브리 대학교에 영재학생과 과학지향적인 학생을 위한 심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마트 간드의 동물학 센터, 트소피트의 바이트벌, 샤르하 네게브의 사피르 지역대학, 텔하이의 텔하이 대학 등에서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쫄뜨 연구소에서 검사를 받고 4학년 이상이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방과후 심화학습 과정에서 지도받는다.

많은 학생들은 과학과 수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과목들 중 선택한다. 학습 내용의 예로는 항공학, 전자학, 고고학, 생물학, 동물학, 화학, 공상과학, 컴퓨터, 수학, 물리학, 천문학, 천체물리학, 심리학, 사진학, 약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과 철학 등이 있다. 교육과정은 그들의 지적·창의적 재능을 계발하고 관심영역을 넓히기 위해 일반 교육과정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과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온 영재들이 이 특별 교육과정에서 서로 만남으로써, 일반 학급에서 종종 예외적이고 고립되었던 개개인들이 공통관심과 재능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5. 결 론

이스라엘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재교육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영재교육 자체의 운영 뿐만 아니라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각 영재 교육 프로그램들은 소수를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전인적인 발달의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속진은 허용하지만 그다지 권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가능한 한 자신과 나이가 같은 동급생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모든 국민이 그들의 잠재력과 재능을 최대한 성취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영재교육을 펼칠 때가 왔다. 개인 간에는 능력이나 관심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조건을 제공받음으로써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영재 각자가 자신의 영재성을 계발함에 있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투고안내

본원에서는 교육개발 연구 결과를 교육기관 및 교육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 보급하여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본원 기관지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내용

1) 칼 럼 명 : 연구동향
   칼럼 성격 : 한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 새로운 연구동향이나 알리고 싶은 연구동향
   분 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내외

2) 칼 럼 명 : 멀지만 가야 할 길
   칼럼 성격 : 현장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들.
   분 량 : 200자 원고지 기준 28매

◆ 기한 : 수시 접수

◆ 제출처 : (우) 137-791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운영팀
(Tel : 3460-0233, 0234 Fax : 577-5117)
E-mail : keditor@ns.kedi.re.kr
*** 우편으로 보낼 경우 원고가 수록된 디스켓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1) 제출된 원고는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고, 게재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2) 한자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를 보낼 때는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 국제연구협력실 ●

한국교육의 국제화와 교육을 통한 국제 이해에 헌신하는 국제연구협력실의 사람들

국제연구협력실은 성경희 실장을 중심으로 한국을 외국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교육부와 공보처의 협력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OECD, APEC, IEA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 협력 및 공동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의 교육적 경험을 공유하여 자국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동남아시아의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연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 장

* 본원 이돈희 원장은 지난 3월 26일 교육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과외 감소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학교발전연구본부

* 학교발전연구본부(본부장 : 성일제)는 지난 3월 28일과 29일(1박 2일) 덕소의 한 연수원에서 현장에 밀착된 연구라는 본부 창설의 취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연구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부장 주재하에 현장혁신팀과 교육개혁팀을 주축으로 하여 본부 소속의 각 팀장이 참석한 이 워크숍에서는 학교 현장과 긴밀한 연관을 갖기 위한 여러 방안과 본원이 구체화해야 할 '새로운 학교'의 여러 조건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돈희 원장이 특별 연사로 참여하였다. 본부에서는 이날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몇 차례 논의를 진전시켜 본원 실험학교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광명시 교육발전연구팀'(과제책임자 : 이돈희 원장)은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광명시청 회의실에서 이돈희 원장과 광명시장, 광명시 교육장, 광명시 내 30여 명의 각급 학교 교장이 참가한 가운데 작년 8월부터 수행해 온 〈광명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연구〉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원장의 연구 개요 소개에 이어 이인효 박사의 발표로 진행된 이 보고회는 광명시 교육의 실태와 총론격의 발전 방향, 그리고 유아교육, 초·중등 학교교육, 고등교육, 교육정보화, 사회교육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온갖 교육 부분을 망라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본원이 큰 역할을 해 줄 것과 앞으로 종합적인 연구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요망하였다. 한편, 본원 연구 발표로서는 이례적으로 Power Point를 활용한 이날의 발표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 영재교육기초연구팀(팀장 : 조석희)은 3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장학사, 행정가 및 영재학회 회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 한국영재학회와 공동으로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상희(국회의원, 한국영재학회장), 조석희(본원 영재교육기초연구팀장), 이군현(한

국과학기술원)이 '영재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영재교육 진흥 특별법의 구체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의된 주요 내용은 정보가치를 창출할 우수 두뇌 양성 정책의 방향, 정보화 사회의 창의적인 인재개발 정책, 영재교육진흥법(안)의 신설 방안, 과학고와 과학기술대 관련 제도의 문제점, 우수 인재의 진로 문제 등이었다.

* 영재교육 자료개발팀장인 김주훈 박사는 4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 필리핀 라플라프 시에서 개최된 영재교육 워크숍에 초청받아 출국하였다. 김박사는 필리핀의 영재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해 본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과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원칙 등에 관해 강연하고, 태양에너지의 과학과 과학에서 창의력 신장 기법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연구본부

* '남북 중·고등학교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팀'은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 정부종합청사내 교육부 회의실에서 본 사업의 향후 원활한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통일 대비 교육과정 연구 : 남북 교육과정·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요소의 체계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관계자 모임을 개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과는 도덕(윤리), 정치경제, 국어, 역사(국사·세계사), 지리(한국지리·세계지리)이며 본 회의에서는 각 연구 영역의 정밀한 추진 일정과 추진 방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였다.

각 연구 영역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 정치·경제 영역은 유균상(본원), 국어 영역은 윤희원(서울대), 역사(국사·세계사) 영역은 이찬희(본원), 지리(한국지리·세계지리) 영역은 최석진(본원), 그리고 통일 교육 요소의 체계화 연구는 한만길(본원)이다.

* 과학교육 연구팀은 "과학 교육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cience Education)"라는 제하의 국제 세미나를 UNESCO와 ICASE의 후원하에, 5월 26일에서 30일까지 5일에 걸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는 최승언, 박승재(한국), Glen Aikenhead(캐나다), Paul Black(영국), Rodger Bybee, Audrey Champagne(미국), Richard Gunstone(호주), Avi Hofstein(이스라엘), Brenton(ICASE), Yoshisuke Kumano, Namio Nagasu(일

본), Colin Power (UNESCO), Robert Yager (미국) 등이 참가한다.

교육정책연구본부

*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II)팀'에서는 지난 3월 6일, 본원 연구동 회의실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4명을 비롯한 원내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의 제 측면 및 교육과의 연계 분석과 설계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팀'에서는 지난 2월 26~27일 양일간 정영수(인하대), 이기종(경희대), 최은수(숭실대), 박영호(민족통일연구원), 박갑수(통일교육원) 등 외부 인사와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족 통합의 개념, 민족통합과 교육의 관계 및 역할, 남북 학생의 내면의식, 민족 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교원정책 연구팀'에서는 「교원양성체제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4일, 본원 연구동 회의실에서 대학교수, 교육부 담당자 등 외부인사 7명을 비롯한 원내외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및 조사지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동 연구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선 요구조사'를 전국 11개 교육대학 및 12개 국립사범대학 교수 1,9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4일~4월 4일에 실시하였다. 또한 3월 26일~4월 11일에는 설문지 조사 독려 및 현지 분위기 파악을 위한 방문면담 조사가 전국의 교육대학 총장과 사범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서울시 초·중등학교 및 교육청 평가 연구팀'에서는 지난 3월 24일 서울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본원의 연구진과 서울시 교육청의 초·중등 장학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팀이 작성한 학교단계별, 교육청의 평가 영역과 기준을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기획조정실

* 지난 3월 15일 본원 제2회의실에서는 손용택 박사가 「동구권에서의 한국 이미지 변화(지리교과서 및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구권 교과서에 나타난 우리 나라의 위상 변화의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또한 3월 29일에는 조석희 박사가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조석희 박사는 우리 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영재로 키우려는 교육적 노력보다는 자기의 자녀가 영재인지 아닌지 판별받는 데 더 관심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앞으로도 11월까지 원내 학술 토론회가 계속 있을 예정이다. 5월말까지의 발표 일정을 보면, 4월 19일 박재윤 박사의 「일본의 교육통계 제도」, 5월 3일 이인숙 박사의 「가상대학 설립의 교육학적 측면」, 5월 17일 류재택 박사의 「중국 교과서에 비친 한국사 이해 그 비판」, 김혜숙 박사의 「교원단체 교섭과 교육행정」이 있을 예정이다.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교육전문 학술지인 「한국교육」 제24권 제1호에 실릴 연구논문(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을 '97년 6월 30일까지 공모하고 있다(문의처 : 02-3460-0210, 0211).

국제연구협력실

* 3월 3일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의 문과대학 학장 Dr. Patricia Clements와 국제교류 담당 Ms. Rae McDold가 본원 원장을 예방하여 알버타 대학교의 한국학 설립과 관련된 논의를 나누었다.

* 3월 11일 영국 Bath 대학교의 Dr. Hugh Lauder 외 3명이 본원 연구원들과 고급기술인력 양성 교육 정책과 경제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본원을 방문하였다.

* 3월 18일 영국 국립장학평가원(OFSTED) 장학관 Dr. R. V. Davis가 본원을 방문하여 OFSTED에 대한 기관 설명회와 영국의 장학제도에 관한 강연을 하고 본원 연구원들과 한국의 과학, 수학 교과 과정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3월 27일 일본 나고야 대학교의 아비코 타다히코 교수외 3명이 본원 연구원들을 방문하여 한국의 제6, 7차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3월 30~4월 6일까지 본원 곽병선 부원장은 미국에서 열리는 PCC(환태평양 교육과정 협회) 학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였다.

* 4월 10일~15일까지 스리랑카의 고위급 교육 공무원 12명

이 본원에서 교육개혁, 교육행정의 정보화, 교과과정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았다.

* 4월 19일~23일까지 이디오피아의 교육부 차관 및 고위급 교육 공무원 7명이 본원에서 학국의 기초교육 발전과정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 국제협력연구팀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UNESCO의 IIEP 장학세미나를 제1, 2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각국의 장학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동향

을 탐색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우리 나라, 중국 등 9개국의 대표 및 전문가 2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가 끝난 후 5월 9일에는 ANTRIEP(the Asian network of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ion in educational planning) 정기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정보자료실

* 전산운영팀에서는 윈도우 95용 ERIC 검색 S/W(WinSpirs)를 4월 15일까지 각 연구실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윈도우 95가 설치된 PC에서 LAN을 통하여 전산기계실에 설치된 CD-NET에 장착된 ERIC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설치된 윈도우 95용 ERIC 검색 S/W는 기존의 DOS용 ERIC 검색 S/W에 비해 검색된 자료에 대한 파일 받기 및 프린트하기 기능이 보강되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제 본원의 LAN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 전자메일, 한국교육개발원 소장 도서검색(KEDILAS), ERIC 검색(WinSpirs)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정보자료실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LAN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전산실에서 윈도우 95용 ERIC 검색(WinSpirs)과 전자메일 사용법에 관한 연수를 본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

* '97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관계자 협의회가 4월 18일 9시부터 3시까지 본원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원 이돈희 원장의 인사와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부장 교사와 15개 시도 교육청의 중등장학, 방송통신고 담당 장학사, 교육부 평생교육국 방송통신고 관계관 및 교육방송(EBS) 방송통신 강의 프로그램 제작팀, 본원의 방송통신교육본부 연구진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97학년도 방송통신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로 사업계획, 학사운영 및 학교운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협의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 방안 등이 폭넓게 협의되었다.

* 본 연구본부에서는 방송통신고 학생들의 학습 편의를 위하여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교육방송 FM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방송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재청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선 수도권 지역부터 실시하게 되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교과용 도서 3책(화학Ⅰ, 지구과학Ⅰ, 영어독해)이 원고 완료된 상태에서 검토와 보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7월에 승인신청본이 만들어지고 8월에는 교육부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직업기술교육특임본부

* 직업기술교육 연구 본부에서는 "「공고 2.1체제」 교과서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3월 22일(토) 13:30부터

시작된 워크숍은 참가자 규모로는 본부 내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서 전국의 대학 교수, 공업고교 교사 및 산업체 관련 인사 200여 명이 모여 질적으로 내실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 체제, 집필 지침에 관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돈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워크숍은 장석민 직업기술교육연구본부장의 공고 2.1체제의 취지 및 배경 설명에 이어 강종훈 직업기술교육연구 3팀장의 공고 2.1체제 응용 교과서 체제 및 집필 지침 설명이 있었다. 이어 교과서별로 이동, 교과서별 협의회를 통하여 응용 교과서 원고 작성 지침 설명과 집필 계획서 작성 및 연구진 구성 등이 이루어졌다. 금년도 공고 2.1체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과서 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되는 산업체 현장 교육용 교과서는 2년간 이론 중심 학교교육을 마친 후 각 산업체에서 행하게 되는 1년간의 현장 교육 활동에 활용하게 된다. 이 교과서에는 현장 실습 교육에 맞게 실습생들이 실습 과정 및 결과를 직접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술해 나가는 워크쉬트까지 포함되게 된다.

* 3월 31일, 본원 제1회의실에서 교육부 관계자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집필진, 연구진, 및 당본부 주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 지적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당본부에서는 금년 중 지적과 교과서 4책을 개발하게 된다.

* 4월 9, 공고 2. 1체제 교육과정 고시 및 교과서 심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외에 공고 2. 1체제 종합 평가를 위한 자문단 및 실무 추진단 회의, 공고 2. 1체제 시범 운영을 위한 실무자 회의 등이 열렸다.

교육통계연구특임본부

* "교육통계 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관계자 협의회"가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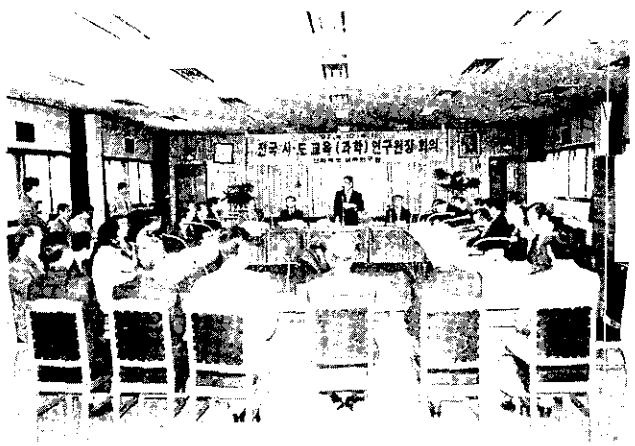
11일 본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본부와 개발기관인 농심데이터시스템 개발팀, 그리고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시·도교육청 전산담당자 및 교육통계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안건은 첫째, 현 교육통계연보 체제에 대한 검토로서, 자료 수집과 입력에 있어서의 애로 사항, 조사 항목의 적절성 및 첨가내용, 통계연보체제의 보완·수정 및 자료 이용에 있어서 통계연보 자료 이외의 첨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 안건으로는 새로운 체제하에서의 자료의 입력, 전송 및 검색방식에 대한 사항으로서 자료 입력화면과 자료 검색과정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 외에도 각종 교육망 및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문제, 그리고 시·도 분산 DB의 조속한 구축 등에 대한 사항도 중심 의제로서 다루어졌다.

* "교육통계 DB 1차년도 사업의 분석단계 웍스루(품질평가회)"가 4월 1일 본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의 조사통계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본부, 농심데이터시스템 개발팀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프로젝트 개요 및 과정, 요구분석 결과 보고 및 검토, 입력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시연 등이었으며, 교육통계연보 사업의 확장 및 연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는 행정·시설·재정 통계와의 연계 방안과 시·도 전산화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 교육조사 지원팀에서는 4월 한달간 '수도권 대학 신입생의 특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대학 신입생의 특성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대학 입시 준비 방식, 현재 관심 분야, 소비문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한편 5월에는 '교원 의식'을 전국에 걸쳐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 교육 개혁에 대한 의견, 전반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 등이다.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97 전국 시·도 교육연구원장 협의회 개최

지난 4월 10~11일, 전주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97 전국의 시·도 교육연구원장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97년도 전국 시·도 교육연구원 사업계획 보고 및 특색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학생교육에 있어서 적성검사 실시의 중요성, 전국 시·도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연2회),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 연구원간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업무 이관

시교육청 초·중등장학과에서 관장해 오던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업무가 '97학년도부터 교육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교육연구원이 교과교육 연구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은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 연구를 위한 연구중심학교 운영, 창의력 신장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수업연구 발표대회, 교과연구회별 세미나 및 교원 자율연수, 교과연구 자료 개발 및 보급 등 교과 연구활동에 관련된 제반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금번 업무 이관으로 교과교육 연구의 전문성 제고, 교원의 연구 풍토 조성, 연구결과의 현장 기여 증진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의 개선·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 개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를 지난 3월 3일에 개설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책사업에 의해 11개 지역교육청과 동시에 설치되었으며 상담교사 4명과 자원봉사자 2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다.

- ○ 시간 : 09 : 00~22 : 00
- ○ 대표전화 : 737~7887
- ○ FAX : 737~4734
-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4층(405호실)
- ○ 상담방법 및 내용

방 법	내 용
전화상담	학업상담
	진로상담
PC·FAX·서신상담	학교생활상담
	학부모상담
내방·출장상담	각종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상담	학원폭력 신고 등

- ○ 지역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 대표 전화

동 부	233~7887
서 부	325~7887
남 부	677~7887
북 부	949~7887
중 부	722~7887
강 동	3431~7887
강 서	694~7887
강 남	3444~7887
동 작	884~7887
성 동	297~7887
성 북	986~7887

학생상담 자원 봉사제 운영

지역사회의 고급 인력을 학생상담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도가 198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60시간의 연수 후 상담 자원봉사자 위촉장을 받아 각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진로 상담교사를 도와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까지 3, 117명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이 1996년도에 상담한 인원수는 216, 889명(개인상담 76, 280명, 집단상담 140, 607명)에 이른다.

1997년도 모집인원은 150명 내외로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15~30일까지(토요일 제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을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에서 '97. 5. 8~5. 9에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교육연구회에 4, 300여명의 교사 참여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에서는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 참여와 교육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과 현장교육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과,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 50개 분과회에 4, 3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97년도에, 이들은 열린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방안 연구라는 대주제에 따라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앞으로 분과별 연구활동은 연간 계획에 따라 초빙연수, 자체연수, 현장연수, 실기연수, 전시회, 발표회 등을 갖고 그 실천사례를 발표하게 되며 우수사례는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선정, 표창하고 실천사례집을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게 된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실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4층 강당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 희망자 15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수 60시간을 실시했다.

이 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생상담 자원 상담원으로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5월부터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학교(중·고 100개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비행 예방, 문제학생 선도 등의 상담활동을 할 예정이다.

'97학년도 연구(실험·시범) 학교 운영 관계자 협의회 개최

3월 12일 시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97학년도 연구(실험·시범) 학교 (100개교) 교감, 연구주임, 실무상담 교사 및 본청,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원의 연구학교 담당장학사의 참석하에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순택 교육감은 부산 교육의 나아갈 바를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연구학

교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교육의 추진과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강화에 주력하여 많은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게 되었음을 참석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이를 위해 관계자들이 힘써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운영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와 분과 협의를 가진 뒤 각 학교별로 담당 연구사 및 장학관들과 학교 담당자들이 주제별 실천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97 학년도 연구(실험·시범) 학교 관계관 협의회 개최

'97 학년도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 방법을 모색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시 교육청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관계관 협의회를 '97년 3월 18일 본원 시청각실에서 개최하였다.

연구(실험·시범)학교 80개교 교장 및 연구 실무자, 시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담당 장학사(관), 교육과학연구원 전문직 등 203명이 모여 '연구학교 운영의 실제'에 대한 특강(대구교원연수원 연구부장 김대수)과 '연구학교 운영 실천 사례' 발표를 듣고, 금년도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방향 협의, 연구 추진 일정 및 업무 연락 등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

「과학 탐구 학습장」 확대 개방

초·중등 학생과 일반 시민에게 평일에만 개방하던 탐구학습장을 '97학년도부터 일요일에도 확대 개방하기로 하고, 지난 3월 9일(일요일)부터 개관을 시작한 결과 일요일 개관 첫날부터 500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관람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고, 특히 천체 투영실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96학년도에는 연인원 55, 836명이 관람하였으나 금년도에는 70, 000여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식' 관측 교실 「우주 속의 나」 운영

'97년 3월 9일 까지 본 연구원 광장에서는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일식 관측 교실을 개설하고, 일식 관측 사진 촬영, 일식의 원리, 혜일-밥 혜성의 관측 정보 제공, 일식 탐구활동 우수 학생 시상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는 김연철 교육감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 교사 학생 등 700여명이 참가하였다.

제12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기초 교육 실시

상담자원 봉사자의 상담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14일간(2월 12~27일) 본원에서 희망자 47명을 대상을 청소년의 심리, 상담 및 진로 지도와 개인·집단 상담 실습을 실시하였다.

한편 상담 교사와 상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0명의 특별 상담자는 4일간에 걸쳐 (2. 25~28) 중퇴생의 재(편)입학을 위한 학교 적응 심성 훈련 프로그램 집단 상담을 실시하였고, 학부모로 구성된 상담 자원봉사자 18명은 3월 18~19일과 3월 25~26일 대구교육원 제2, 3기 수련생의 자기성장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 상담을 실시하였다.

학력 진단평가 실시

'97 중학교 신입생 배정자 (36, 054명)에 대한 기초 학력 확인과 부진학생 진단을 위한 학력 진단평가가 2월 18일 9개 교과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평가는 각 교과별로 기초 문항을 30% 출제하여 학생 개인별 학습 결손 부진 교과에 대한 지도 대책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일선 학교에 제공되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26, 602명) 학생에 대해서는 2월 14일 국·영·수 3개 교과에 대한 수학능력시험 적응력 배양과 각 교과 수준별 이동 수업 자료 및 반편성 자료를 위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VTR 영상자료 및 OHP-TP 자료 제작 보급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작·보급함으로써 교수-학습활동의 개선과 학교교육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96년 3월부터 '97년 2월에 걸쳐 VTR 영상 자료 13편, 2, 171개와 OHP-TP 자료 10개 교과 191종 304매를 개발·제작하여 4, 483부를 보급하였다. 그 결과 현장 교사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함께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

청받고 있다.

이에 '97년에도 VTR 영상 자료 3종 6편과 OHP-TP 자료 10개 교과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며 CD-ROM 자료도 제작할 계획이다.

'96년에 제작하여 보급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VTR 영상자료

교과	학년	단원	자료명	보급수
사회	3-1	2. 개구리와 더불어	㉠ 움직이 관찰	* 초등 167개교 초당 각1년씩
			㉡ 개구리 관찰	
			㉢ 개구리의 한 살이	
	4-1	1. 대구의 오늘과 내일	① 대구의 모습	
			② 대구의 자랑거리와 문제	
			③ 동화사	
			④ 단성의 추억 수립	
			⑤ 골로동 고분군	
	4~6	단장 학습 자료	⑥ 신승겸 장군 유적지	총 2,171개 보급
			⑦ 조양 회관	
			⑧ 신암 선열 공원	
			⑨ 낙동강 승전 기념관	
			⑩ 국립 대구 박물관	

OHP-TP

교과	학년	TP(종수)	시트(매)	보급수
국어	1-1	15	26	1~4학년 학급수의 67% (4,316부)
수학	1-2	30	63	
국어	2-1	18	23	
수학	2-1	30	57	
사회	3-2	15	15	
자연	3-1	10	14	
사회	4-1	18	24	
자연	4-1	10	19	
계		146	241	
수학	중1	24	30	98부
국어	고1	21	33	69부
계		45	63	고당1부 (167부)
총계		191	304	4,483부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열린교육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이론과 실제」 자료 개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실제적응 사례를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이론과 실제」라는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제1부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초이론, 제2부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본학습전략과 방법, 제3부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제편으로-NIE학습, 열린교육, 토의학습, 조사학습, 문제해결학습의 방법과 적용사례, 제4부에서는 멀티미디어의 교육적 활용기법과 시청각 기교재 활용기법을 체계적으로 제시였다.

학생상담 자원 봉사자 연수 실시

3월 17~28일까지 10일간 상담자원봉사자 9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육은 개인 상담 면접 기초, 효과적인 부모 역할, 심성수련의 이론과 실제 등에 관해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연수 후에는 인천광역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97 연구·실험·시범학교 관계자 협의회 및 사전연수 실시

3월 14일 시청각실에서 '97년도 교육부와 시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로 지정된 11개교 학교장 및 연구주무자, 지도담당 장학사, 연구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교육의 수업방법을 통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방안의 모색과 교육현장의 현안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수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멀티미디어 CD-ROM Title 개발·보급

3월 26일 그 동안 개발한 학습용 CD-ROM Title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 일선 교사들로 구성된 본원의 멀티미디어 개발팀은 초등학교 수학과 1종(13편)과 중학교 수학과 2종(12편)을 자체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교단 선진화를 통한 열린교육의 실현과 학습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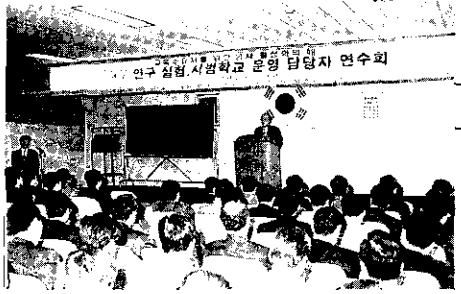
제11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실시

본원 진로교육부 주관으로 3월 24일부터 28일(5일간)까지 시청각실과 심성수련실에서 각계에서 추천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이론과 실기연수를 본 분야의 권위자를 감사로 초빙하여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연 25회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강원도 교육연구원

'97 연구(실험·시범)학교 담당자 연수회 개최

지난 3월 7일, 강원도내 초·중·고 및 병설유치원 교사 142명, 지역교육청 장학사 17명, 담당 도 장학사와 연구사 23명, 일반회원 27명 총 209명을 대상으로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학교교육 현장의 현안 과제 해결 방안과 새로운 교육이론 및 교수-학습 평가 방법, 교육자료 제작 등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 한편 사전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계획서 작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 등이 이루어진 이번 담당자 연수는 교육연구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 교육자료부 신설

교수공학 매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단 선진화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 3. 1자로 기존의 교육평가부를 조사연구부로 통합하고 교육자료부를 신설, 교육정보자료실로 운영하게 되었다.

교육자료부에서는 영상, 음향, 일반 교육 정보, 멀티미디어 정보 등을 수집, 입력, 가공, 보급, 관리하고 양질의 다양한 교수-학습 정보와 자료를 적기에 신속히 제공하여 교단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 '97 연구·시범학교 운영 협의회 개최

3월 14일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회의실에서 1997년도 충청북도 초·중·고 연구·시범 학교 운영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93개교(교육부 지정 17개교, 도교육청 지정 76개교)의 연구 주임 및 담당 교사 92명, 유치원, 지역 중심 학교 담당 교사, 충청북도 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시·군 연구 학교 담당장학사,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연구사,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연구관 및 연구사 총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시범학교 운영 방향과 추진 과정상의 기법과 실무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 '97 특별연구교사 위촉

3월 20일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북도 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97 특별연구교사(초등 15명, 중등 20명 계 35명)에 대한 교육감의 특별연구교사 위촉장 수여와 그 취지 및 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금년을 '교육개혁 가속의 해'로 정한 충청북도에서는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을 통하여 보다 교육 현장에 밀착되어 현안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 학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학교 현장의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연구원에서는 도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청주(3. 28, 학생회관), 충주(4. 1, 충주중학교 강당), 옥천(4. 4, 옥천 관성회관), 증평(4. 8, 증평 문화회관), 제천(4. 15, 제천 문화회관)에서 해당지역 초·중·고 교감 및 진로 상담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학생 진로 지도의 개선 대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 상담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실시

청주 지역 '97학년도 신규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90명을 대상으로 4월 21~26일까지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회의실에서 '교육 개혁과 진로 교육', '봉사자의 역할', '상담 기법의 실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자의 기초소양 배양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교육은 지역 교육청의 주관하에 지역별로도 실시된다.

충청남도 교육연구원

□ 초등 영어 지도서(I) 발간·보급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이면 누구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흥미 중심으로 구성한 초등영어 지도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항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아동의 발달 단계와 학년 수준에 맞도록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기본 대화문을 제시하였다. 관련 활동으로는 기본 대화문의 듣기 능력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TPR(전신반응), 아동이 수업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 중심으로 구성한 게임과 노래, 그리고 초등 영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800개 어휘 범위내로

구성된 기본 대화문을 활용한 역할극 자료와 역할극 상황 제시, 삽화 자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자료는 교육전문직 및 초등 영어 담당교사 25명으로 집필 및 검토 위원을 구성하여 교육 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고 이의 활용을 위하여 도내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 교육전문직에게 집중 배부하였으며, 3학년 영어의 삽화자료와 4, 5, 6학년의 특활 영어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초등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교육연구원

□ 「열린 교육」 자료 개발 연수회 개최

본원에서는 교육 개혁의 현장 정착을 위한 「열린 교육」 자료 개발 연수회를 개최했다. 초 · 중 · 고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회는 4월 8일부터 통영 교육청을 시작으로 한 달간 지역 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열린다.

연수 내용은 「열린 교육」 자료 개발의 방향과 실제, 멀티미디어 자료 및 인터넷 자료 개발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수회의 효과와 반응 평가 후 희망 교원들을 대상으로 제2단계 연수회를 가질 예정이다.

□ 교원 예능 작품 전시회

경상남도 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경남 교원 작품 전시회'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 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된다.

경남 교원예능연구대회 1회부터 24회까지의 우수 입상자들에게 작품 전시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능 연구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예능 교육을 활성화시켜 전통 예술의 저변 확대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번이 네 번째가 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글 서예, 한문 서예, 사군자, 한국화, 서양화, 한국자수, 사진, 꽃꽂이 등 8개 종목 209점이 전시된다.

□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확대 운영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돕고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며, 장래의 진로를 바르게 선택하도록 돕기 위하여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향후 3년('97~'99)에 걸쳐 도내 전 초 · 중 · 고등학교에 확대 운영한다.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도내 전 초 · 중 · 고등학교 수는 124개교이고, 봉사자 수는 610명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97년에 256개교(1,280명), '98년에 348개교(1,748명), '99년에는 398개교(1,990명)로 총 1,126개교에 5,630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제주도 교육연구원

□ 진로교육 제26호 발간 · 보급

제주도 교육연구원 진로교육부에서는 3월 1일 진로교육 제26호를 1,750부 발간하여 교육부, 각 시 · 도 교육연구원 및 도내 초 · 중 · 고에 배부했으며, 또 5월 12일부터 24일까지(11일간 60시간) 신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상담실 및 학교에 배치 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찬흡 신임 원장 부임

'97년 3월 1일자로 고시수 원장이 서귀포 교육청장으로 이임하고 신임 김찬흡 연구원장이 부임하였다. 북제주 교육청장에서 제주도 교육연구원장으로 부임한 김찬흡 원장은 「제주교육사」(편저), 제주 향토지에 관한 논문 등의 저서가 다수 있으며 제주도 향토사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교육제주」 제95호 발간 · 보급

특집좌담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교육논단, 특별기고, 우리학교 자랑, 교단문원, 교과연구회 활동, 선행 · 미담사례, 은사이야기 등을 수록한 교육제주 제95호를 3,000부 발간, 도내 초 · 중 · 고 교원에게 배부하였다.

□ 교육강좌 개최

제주도 교육연구원에서는 4월 10일과 11일에 제주도 교육청 대강당에서 연구 · 시범학교의 현안과 개선방향, 교육 현장연구의 방법이란 주제의 교육강좌를 개최하였다. 이 연수회에는 도내 연구 · 시범학교 담당자와 현장교육연구 교원들이 참석하였고, 전공 교수의 강의와 질의 · 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행 출판 자료 목록

자료명		정가	대행출판사
초등학교 특활영어	배움책(상)	6,000	대한교과서(주) (02) 3475 -3961
	배움책(중)	6,000	
	배움책(하)	6,000	
	지도서(상)	2,500	
	지도서(중)	2,700	
	지도서(하)	2,800	
배우며 생각하며 (초등학교용)	배움책(1-2)	4,800	
	배움책(3-4)	4,000	
	배움책(5-6)	3,700	
	지도서(1-2)	3,300	
	지도서(3-4)	3,600	
	지도서(5-6)	3,200	
배우며 생각하며(중학교용)	배움책	2,700	
	지도서	3,400	
생각하는 수학공부 (초등학교용)	1학년용	2,600	
	2학년용	2,700	
	3학년용	3,300	
	4학년용	3,700	
	5학년용	3,700	
	6학년용	3,900	
생활경제 학습자료 (초등학교용)	지하마을의 전설	1,400	
	태호와 드송	1,500	
	내일은 야구왕	1,500	
	욕망과 선택	1,500	
	동수의 병	1,400	
	화해	1,300	
	이루코부족과 무역선	1,500	
	짱구의 물가비행	1,400	
	한지붕 두 마음	1,300	
	물고기의 교훈	1,400	
	지도서(상)	500	
	지도서(하)	4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학생용)	35,000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지도서)	3,3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2학년 학생용)	1,3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2학년 지도서)	2,2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4학년 학생용)	1,6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4학년 지도서)	2,600	
	우리와 나(초등학교 5-6학년 학생용)	1,600	

자료명		정가	대행출판사
민주시민 교육자료	우리와 나(초등학교 5-6학년 지도서)	2,400	대한교과서(주) (02) 3475 -3961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학생용)	1,6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지도서)	3,1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지도서)	4,0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사회 학생지도서 민주적 학교운영(총지침서)	3,800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한국 교육의 과제	4,500	
성교육자료	아직도 아기라고요 (초등학생용)	2,500	
	어른이 되나봐요(중학생용)	3,0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3,400	
초등학교 영어학습 자료	3학년용	12,000	삼화출판사 (02) 776 -6687 ~8
	4학년용	12,500	
	교사용지도서	2,400	
우등생이 되기 위한 글읽기(초·중등학생용)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1,800	
	자기점검 학습전략	1,2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정교화 학습전략(Ⅰ)	1,700	
	정교화 학습전략(Ⅱ)	1,900	
	읽기학습전략훈련지침서	1,200	
환경교육 자료(초등학교용)	즐거운 환경탐구 (1,2학년용)	1,900	
	재미있는 환경탐구 (3,4학년용)	2,000	
	보람찬 환경탐구 (5,6학년용)	2,300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3,900	
영지교육 자료	이야기나라 (초등학교 3,4학년용)	1,400	
	측정의 세계(〃)	1,200	
	사람들이 사는 곳(〃)	1,700	
	자석에 관한 연구(〃)	1,100	
	미술감상(〃)	1,600	
	교사용지도서(초등학교 3,4학년용)	2,500	
	신문기사(초등학교 5,6학년용)	1,0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영재교육자료	확률의 신비(〃)	1,100	삼화출판사(02) 776 -6687 ~8
	우리나라의 풍습(〃)	1,400	
	깨끗한 물(〃)	1,100	
	동요만들기(〃)	1,800	
	교사용 지도서(〃)	3,300	
	에너지와 우리생활(중학생용)	1,400	
	전기와 그 이용(〃)	1,200	
	인간과 생태계(〃)	1,000	
	바다의 신비(〃)	1,100	
	우리가 사는 지구(〃)	1,300	
	교사용 지도서(〃)	2,800	
수학과 학습자료(중학생용)	수학 문제 해결의 지혜		
	(1학년용)	4,100	
	(2학년용)	3,500	
	(3학년용)	3,500	
영어능력신장자료(중학생용)	영어 읽기	3,800	
	영어 쓰기(1)	3,100	
	영어 쓰기(2)	2,500	
	영어 쓰기(3)	2,600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초등학교용(A형)	950	
	초등학교용(B형)	95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중학교용(A형)	950	한국적성연구소 (02) 515 -5722 (02) 515 -5725
	중학교용(B형)	950	
	고등학교용(A형)	950	
	고등학교용(B형)	950	
	대학교용(A형)	1,100	
	대학교용(B형)	1,100	
	초등학교용 추가검사	1,100	
	중학교용 추가검사	1,100	
	고등학교용 추가검사	950	
진로성숙도검사	중·고등학생용	750	
아동용 개인 지능검사 (KEDI -WISC)	만 5세-만 15세	104,000	도서출판 특수교육 (02) 812 -0348
기초학습 가능검사	만 5세 초등학교-6학년용	184,000	
교실에서 세계로, 세계를 교실로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		6,500	(주) 홍익미디어 (02) 761~0650

[KEDI 도서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 NO.

구독자(기관) 주 소		우편번호 –		
개인의 경우	구독자 성 명		전화번호	
	근무처		직 위	
단체의 경우	구 독 단체명	대표자명( )	전화번호	
구독구좌수		구좌 (신규, 재가입 : 년도회원)		
회 비 * 가입 년회비 (1구좌당) : 70,000 원		○ 납 입 처 :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 ○ 송 금 액 : 원 ○ 송금 년월일 : 199 년 월 일 ○ 송 금 자 명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원의 도서회원으로 가입코자 합니다.

199 . . .

신 청 자

(개인, 단체) (인)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장 귀하

* 회비(70,000 원)를 입금하실 때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EDI 도서회원]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87 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에 대한 특전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 회), '한국교육'(연 1 회) 우송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15~20 종(익년도 3 월) 우송

2. 연도별 회원제

회원자격은 1 년간 주어지며, 가입년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 월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4. 연회비 (1 구좌당)

■ 가입 년회비 : 70,000원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사무국 총무부 출판계(전화 : 3460-0279 FAX : 577-5117)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PC 통신망을 통한 '초중고교 문제은행' DB 서비스 개시

❖ 국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문제은행 서비스 개시

한국교육개발원은 부가가치전산망(VAN) 사업 전문업체인 벨타정보통신(주)과 협력하여,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감축시키면서도 국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고교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초중고교 문제은행 DB의 내용

1. 교수-학습 활동을 돕기 위한 평가 문항의 개발 및 제공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 전 교과에 걸쳐 각 단원별로 교수-학습 평가문항을 출제·검토하였고, 특히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영어 교수-학습 평가문항을 충분히 개발·저장하였다. 이 DB에 수록된 총 1,500개에 달하는 양질의 교수-학습평가 문항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생 스스로 예습·복습을 하거나 부모와 함께 예습·복습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각종 입시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제공

각종 입시정보(대학별 입시제도, 대학별 입학고사, 전년도 수능시험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등)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제공하고 있어 각종 입시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아울러 고입, 대입 모의고사 등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입시공부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3. '이용자 게시판' 운영

'이용자 게시판'을 통하여 개별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의견이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초중고교 문제은행에 교수-학습평가 문항이 수록된 교과목명

초등학교(1학년~6학년)	중학교(1학년~3학년)	고등학교(1학년~3학년)	
1. 국어	1. 국어	1. 윤리	9. 사회·문화
2. 수학	2. 수학	2. 국어 1, 2, 3	10. 세계사
3. 사회	3. 영어	3. 공통수학, 수학 Ⅰ, Ⅱ	11. 세계지리
4. 자연	4. 국사	4. 영어 1, 2, 3	12. 공통과학
5. 영어	5. 사회	5. 국사	13. 물리 Ⅰ, Ⅱ
	6. 물상	6. 공통사회	14. 화학 Ⅰ, Ⅱ
	7. 생물	7. 정치	15. 생물 Ⅰ, Ⅱ
		8. 경제	16. 지학 Ⅰ, Ⅱ

❖ 이용방법

현재 이 DB는 한국통신의 전상망(Hitel Infoshop)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전국 어디에서

나 쉽게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접속을 위한 S/W :

-하이콤 3.1(한국통신 보급)

-DL2(데이콤 보급)

-이야기(하늘소 보급)

⊙ 하이텔 접속 : 전화 01410 또는 01411

▲ Hitel 초기 화면에서

방법 1 **'delta'** 입력→델타 초기 화면에서 **'21. 초중고교 문제은행'** 선택

방법 2 **'1(Hitel Infoshop)'** 선택

→**'40(교육/문헌)'** 선택

→**'65(DELTA)'** 선택

→델타 초기 화면에서 **'21. 초중고교 문제은행'** 선택

PC 통신망을 통한 KEDI 소장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 하이텔 인포샵에 'KEDI 교육학 DB' 코너 개설

한국교육개발원은 1997년 5월부터 한국통신의 PC 통신망(하이텔 인포샵)을 통해 교육학 서지 DB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제 연구실, 사무실, 가정 등 전국 어디에서나 본원을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지 DB를 검색하고 필요한 부분을 PC 통신망을 통해 복사 신청을 하여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될 정보서비스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소장 도서 검색, KEDI 구독 학술지 소장 내역, KEDI 최신 연구보고서, KEDI 소식 등이며, '질의/응답', '자유게시판'을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의견 제시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용방법

▲ 01410 또는 01411로 하이텔 접속

▲ Hitel 초기 화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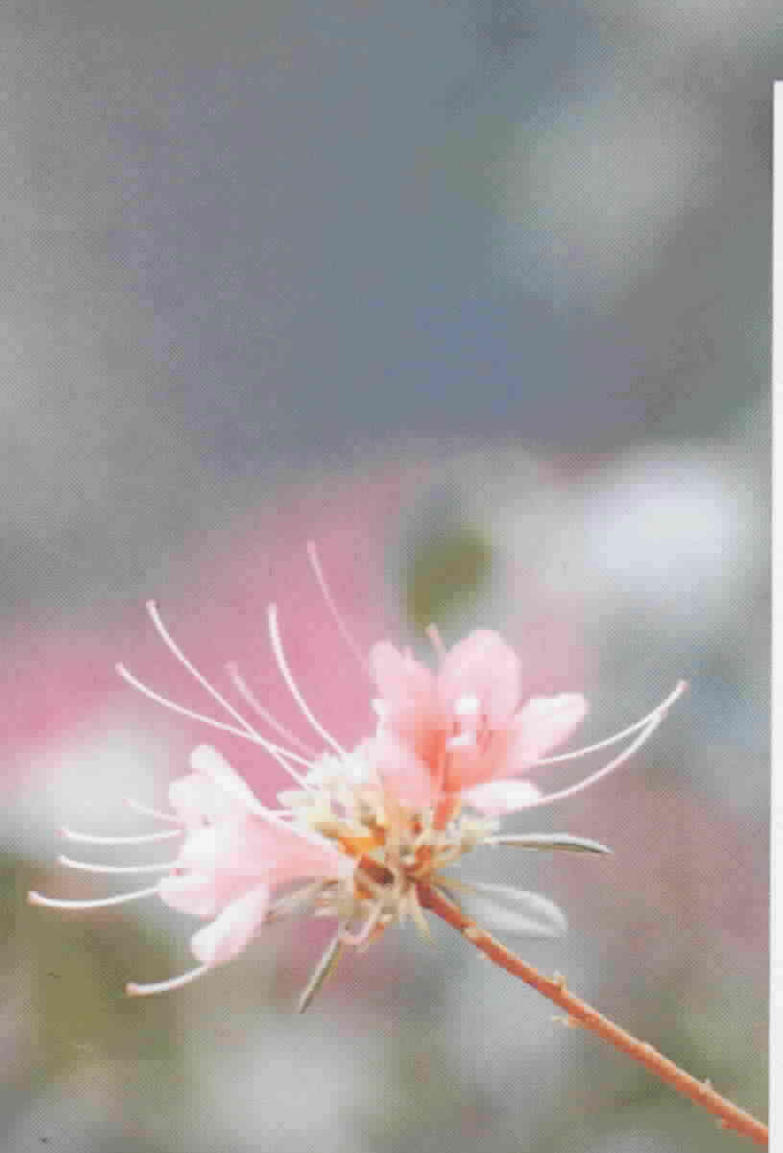
방법 1 **'delta'** 입력→델타 초기 화면에서 **'22. KEDI 교육학 DB'** 선택

방법 2 **'1(Hitel Infoshop)'** 선택

→**'40. (교육/문헌)'** 선택

→**'65(DELTA)'** 입력

→델타 초기 화면에서 **'22. KEDI 교육학 DB'** 선택



해마다 봄이 되면

—어머님을 생각하며—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속에서, 땅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쉬임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와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둑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와라

"교육의 미래를 여는 한국교육개발원"